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  
: 구미제자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박기덕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0년 5월

Copyright © 2020 Gideok Park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Evangelism with Six Atonement Stories** : A Case Study of Gumijeja Church, Gumi, Korea

Gideok Park

Gumijeja Church, Gumi, Korea

This study was begun with the hope of reviving and renewing Korean churches from a stagnation that has been continued since the 1990s. Most of all, Gumijeja church which I serve has a small number of believers. It was in dire need of revival and renewal. Thus, I started this study with a desperate desire.

Studying at the evangelism of Korean churches, there were many cases where they did not have contentable results considering the time and the money invested. New families that first came to the church mostly ended in one-offs. Moreover, the families who newly registered with the church did not attend continuously and often dropped out of faith halfway. This resulted in failure of the church reviva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vercome the stagnation of Korean churches and to present concrete alternatives for revival and renewal. To achieve the goal, I first searched for the causes of the first century church revival recorded in Acts. Secondly, I tried to help people understand the meaning and purpose of evangelism by presenting theological basis based on the Bible and related books. Finally, I have researched God's heart and Jesus Christ revealed throughout the Bible in order to provide a basis for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the revival and renewal of Korean churches.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named “Evangelism with Six Atonement Stories.” It is an evangelism that preaches the God’s heart to save all mankind which is revealed in

the entire Bible, from Genesis to Revelation. It is also the evangelism that preaches Jesus Christ, the Savior of all mankind revealed in the entire Bible. And it is the evangelism that preaches the gospel by obeying God's commands revealed throughout the Bible.

From April 2019 to February 2020, I have continued to deliver “Evangelism with Six Atonement Stories” during my Sunday sermons, six weeks of intensive training, and the first week's Bible meeting. It was a short time, but the members came to understand God's heart and Jesus Christ deeply. They are enjoying the pleasure of evangelism and are changing from passive evangelists to active and voluntary evangelists. I sincerely hope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as one of the means to helping the revival and renewal of Korean churches.

## 국문초록

###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

: 구미제자교회를 중심으로

박기덕

구미제자교회, 구미, 한국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침체 현상에서 벗어나 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본인이 섬기는 구미제자교회는 성도수가 작은 개척 교회로 교회의 부흥과 갱신이 절실히 필요하였기에 본 연구를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 교회의 복음전도를 보면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 것에 비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 교회에 나온 새 가족들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교회에 등록된 새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중도에 신앙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교회부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교회의 침체를 극복하고 부흥과 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먼저 사도행전에 기록된 1세기 초대교회의 부흥원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복음전도의 의미와 목적을 성경과 관련 서적들을 토대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의 필요성과 방향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 결과물을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 라 명명하였다.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게시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도이다. 또한 성경 전체에 게시된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 게시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이다.

필자가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 를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주일설교와 6주간 집중교육과 1주간 전교인 말씀사경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하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도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복음전도의 기쁨을 누리고 수동적인 복음전도자에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복음전도자로 변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목 차

감사의 글 .....	xi
표 목차 .....	ix
그림 목차 .....	x
I.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연구의 방법 .....	6
논문의 구조 .....	7
II. 성경 속에 나타난 전도 이해 .....	8
복음전도의 정의 .....	8
전도의 사전적 의미 .....	12
전도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교회성장 .....	15
성경에 나타난 전도방법 .....	24
왜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통한 전도인가? .....	41
III.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 .....	53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란? .....	53
첫 번째 줄기: 모세오경에 계시된 구원스토리 .....	57
두 번째 줄기: 역사서에 계시된 구원스토리 .....	84
세 번째 줄기: 시가서에 계시된 구원스토리 .....	101
네 번째 줄기: 선지서에 계시된 구원스토리 .....	109
다섯 번째 줄기: 복음서에 계시된 구원스토리 .....	141
여섯 번째 줄기: 서신서에 계시된 구원스토리 .....	149

IV.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구미제자교회 .....	167
적용과정 .....	167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	168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 6주간 집중교육.....	169
V.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의 설문조사와 평가 및 사례연구 .....	176
설문조사와 평가 .....	176
사례연구 .....	189
VI. 결론 .....	193
요약 및 평가 .....	193
제언 .....	197
부록 .....	200
참고문헌 .....	213

## 표 목차

<표1> 사도행전과 복음전도 .....	28
<표2>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와 통 성경.....	56
<표3>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 6주간 집중 교육 일정표 .....	169
<표4> 1주차 교육: 첫 번째 줄기(모세오경에 계시된 구원스토리를 통한 전도)..	170
<표5> 2주차 교육: 두 번째 줄기(역사서에 계시된 구원스토리를 통한 전도)....	171
<표6> 3주차 교육: 세 번째 줄기(시가서에 계시된 구원스토리를 통한 전도)....	172
<표7> 4주차 교육: 네 번째 줄기(선지서에 계시된 구원스토리를 통한 전도)....	173
<표8> 5주차 교육: 다섯 번째 줄기(복음서에 계시된 구원스토리를 통한 전도)..	174
<표9> 6주차 교육: 여섯 번째 줄기(서신서에 계시된 구원스토리를 통한 전도)..	175
<표10> 질문1 신앙생활을 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177
<표11> 질문2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고 있습니까? .....	178
<표12> 질문3 성경을 자주 읽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179
<표13> 질문4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80
<표14> 질문5 교회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81
<표15> 질문6 성경은 복음전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182
<표16> 질문7 평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전도를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183	183
<표17> 질문8 복음전도를 자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84
<표18> 질문9 지금까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186	186
<표19> 질문10 앞으로 얼마나 자주 복음전도를 하겠습니까? .....	187
<표20> 질문11 여섯줄기 구원스토리 교육이 전도에 미친 영향은 얼마나 됩니까? 188	188

## 그림 목차

<그림1> 빌립의 복음전도 .....	33
<그림2>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 .....	53
<그림3>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	55
<그림4> 구미제자교회에서 실시한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통한 전도 교육장면..	169

## 감사의 글

“Evangelism” 이 단어를 목상할 때마다 벅찬 감동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식어져 갔던 복음전도에 대한 열정이 본 논문을 쓰는 동안 다시 회복하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본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감당할 능력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루대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 기간 동안 심혈을 다해 가르쳐 주신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 박사님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을 통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논문을 끝까지 읽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가르쳐 주신 조병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복음 전도’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려던 저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시고, 논문을 잘 쓸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자세하게 지도해 주신 김영래 교수님과 목회학 박사 과정 기간 동안 함께 공부하며 수고했던 동료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 라는 6주간의 교육에 기쁨으로 참여하여 아낌없는 기대와 격려를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구미제자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논문을 쓰는 모든 시간 동안 옆에서 중보기도와 함께 격려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요 후원자인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너무나도 소중한 예쁜 세 딸 주은, 주혜, 주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5월

박 기 덕

## 제 I 장

### 서 론

####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 온지 약 130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1960년대와 70년대의 교회 성장은 전 세계 교회가 주목하고 부러워할 정도로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계속적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교회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는 “세계적으로 교회성장의 빛나는 예는 한국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백 년 전에는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었으나 현재는 기독교인이 인구의 30% 정도에 달하며 1980년대 말에는 50%가 넘을 것이다.”<sup>1</sup> 고 예측했다. 그의 말대로 한국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갔다.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전도를 하였다. 젊고 신실한 청년들은 신학교로 몰려갔고, 전국 곳곳에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났다.

서정윤은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서구의 물질주의적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확산되면서부터 또 서구기업의 경영방식이 도입되고 양적 성장을 우선으로 하는 교회성장론이 유행하게 되었다.”<sup>2</sup>

---

<sup>1</sup> <http://www.church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769> (2019년 12월 22일 접속).

<sup>2</sup> 서정윤, *한국교회 진단과 그 처방* (서울: 요단출판사, 1996), 31.

고 했다. 그의 말대로 교회성장론이 한국교회에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다.

교회성장론은 세계 복음화와 한국 교회부흥과 갱신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했다.

국내 및 해외 선교에 강한 열정을 부여하였고 교회마다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교회성장론의 지나친 강조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원규는 “교회성장론이 지니고 있는 자체모순과 한국교회에 미친 역기능이 매우 컸다. 교회성장론은 교회의 존재이유 자체를 ‘성장’이란 용어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즉 성장이 교회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리는, 소위 목적전치 현상이 생겨나게 된다.”<sup>3</sup> 고 했다. 그의 말대로 교회성장론은 성장 그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교회들은 영혼구원이라는 순수한 목적보다는 교회의 대형화를 위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경향들이 준비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한국교회의 성장보다는 정체 또는 침체로 이어졌다. 전호진은 “1980년대에는 하루 6개의 새 교회가 등장했는데 1990년대 와서는 오히려 하루에 6개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이라.”<sup>4</sup> 고 하였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피터 와그너의 예측과 전혀 다른 결과였다. 그 이유에 대해 이종윤은 “1982년 10월 28~30일 할렐루야 교회에서 한 강연에서 현대 한국교회는 경제성장과 비례하여 외형적 성장만 하고 있어서 로버트 벨라가 지적한 바와 같이 텅 비고 깨진 조개껍질과 같이 그 원래의 특성을 상실한 병든 교회로 진단이 내려진

<sup>3</sup>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4), 240.

<sup>4</sup> 전호진, “한국교회 침체 원인과 해결책,” *월간고신* 8월호(1995), 36.

채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sup>5</sup> 고 경고한 바 있다.

그의 경고대로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는 현저하게 정체 내지 감소 현상을 보여 왔다.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크게 네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증가이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품위나 자격이 없는 성직자가 많다’ 는 질문에 1984년의 경우 65%였는데 1990년을 넘어서면서 증가하였는데 2014년에는 87%에 이르렀다.”<sup>6</sup> 이는 성직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결국 교회 성도들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교회 성직자들의 비상식적인 모습들, 언행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들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새 가족들의 감소는 물론이고 기존 성도들마저 타종교로 개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 환경의 변화이다. 199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사회 환경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무엇보다 여가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전국 곳곳에 많은 관광지과 휴양지들이 개발되었고,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스키장과 골프장, 야구장과 볼링장, 각종 레저시설들과 유흥업소들이 세워졌다.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여가를 즐기려고 국내외 휴양지와 관광지로 떠나는 사람이 늘어났다. 2019년 전국 모든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었고, 주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야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 훨씬 증가하였다. 이런 사회 환경의 변화들이 교회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셋째는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감의 증가이다. 6.25 전쟁을 겪은 후 1960년대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을 맞이했다. 1960년

---

<sup>5</sup> <http://www.church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769> (2019년 12월 22일 접속).

<sup>6</sup>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630> (2019년 12월 29일 접속).

4.19 혁명,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한국은 정치적 혼란기를 맞이했다. 이어서 1979년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과 12.12 군사반란 그리고 1980년 5.17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으면서 전반적인 대 혼란기를 맞이했다. 뿐만 아니라 ‘보릿고개’ 라는 극심한 궁핍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의 해소와 안식을 위해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이 5천불을 넘기고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교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영적인 질병들이 성장을 둔화시켜 왔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엡1:23)’ 으로 비유했다. 신체적인 몸이 건강하다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다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영적 질병들이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

「교회 성장의 장벽을 극복하라」는 책에서 교회 내의 질병 8가지를 사회층별거부증, 고령화증, 상호오해증, 친교과잉증, 시설협소증, 영적발달장애증, 열정감퇴증, 영적발전제한증으로 표현했다.<sup>7</sup> 저자는 교회가 200명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와 1000명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교회 내에 영적 질병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교회 내에는 다양한 영적 질병들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질병은 친교과잉증과 열정감퇴증과 영적발전제한증이라고 여겨진다. 말씀과 기도 중심의 영성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복음전도의 열정은

---

<sup>7</sup> 피터 와그너, 톰레이너, 엘머 타운즈, *교회성장의 장벽을 극복하라*, 오수현 역 (서울: 침탑, 2008), 25-32.

감퇴되고 있으며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하심의 경험들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1세기 초대 교회 성도들은 달랐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누룩처럼 소리 없이 퍼져나가 로마 전체를 변화시켰다. 초대교회는 총동원전도주일 한번 행한 일이 없었지만 교회의 복음운동은 활발히 전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1세기 초대교회의 차이는 무엇일까? 왜 현재의 성도들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와 다르게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복음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중에 그 이유 세 가지를 발견하였다.

가장 먼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의 성도들보다 성경전체에 계시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많았다는 점이 주된 요인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복음전도이었기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복음전도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요, 이해의 문제이다.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게 할 것인가? 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복음전도를 이해시켜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전도하도록 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필자는 한국교회 안에 내재된 여러가지 질병들을 없애고, 정체를 혹은 침체를

벗어나 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이끌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전도의 방법을 모색하기보다 성경 전체에 계시된 복음전도의 의미와 목적을 정확히 제시함으로 자발적인 전도를 유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논문의 목적은 가장 먼저 성경 전체에 계시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시함으로 복음전도의 열정을 높이는 데 있다. 또한 성경 전체에 계시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순차적으로 제시함으로 성도들의 자발적인 복음전도를 유도하는데 있다. 마지막으로 복음전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임을 제시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자료)연구와 사례연구로 되어 있다. 문헌 연구는 전도와 성경에 관한 전문 서적과 논문, 신문, 기타 서적들의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다양한 문헌(자료)을 통해 복음전도의 의미와 목적을 정리하고 전도의 방법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계시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리할 것이다. 또한 복음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명령임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시할 것이다. 사례 연구는 구미제자교회에서 실시한 6주간의 교육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적용한 전도”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구미제자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부흥과 갱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논문의 구조

본 논문은 크게 서론-본론-결론으로 나누어진다. 서론 부분은 제 I 장이다. 여기서 본 논문의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연구 방법, 논문의 구조를 서술할 것이다. 본론부분은 제 II 장부터 V 장까지다. II 장에서는 성경 전체를 근거로 해서 복음전도의 정의, 전도의 사전적 의미, 전도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교회성장, 성경에 나타난 전도방법, 왜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통한 전도인가?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III 장에서는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IV 장에서는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를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구미제자교회에서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본 연구의 주제를 따라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 가 전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V 장에서는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의 설문조사와 평가를 한 후 개인의 변화 사례연구를 서술할 것이다. 결론부분은 VI 장이다. 여기서 본 연구의 요약과 평가, 그리고 제언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 제 II 장

### 성경 속에 나타난 전도 이해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에 처해있다. 수적 감소는 물론이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와 불신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교회 부흥과 갱신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가 되었다. 교회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영혼구원이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수적인 성장과 함께 교회 갱신을 위해 힘써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교회 부흥과 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전체에 계시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복음전도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복음전도의 정의

복음전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정체성이나 전도의 방향성이 많은 부분에서 달라진다. 복음전도를 정의할 때 복음전도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지? 복음전도의 범위와 방법은 무엇인지? 전도자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를 정확히 규명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복음전도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되어 왔다. 필자는 복음전도에 관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들을 먼저 살펴본 후 복음전도의 정의를 내려 보고자 한다.

복음전도에 대한 신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들이 있어 왔다. 가장 먼저 1918년에

아래와 같은 복음전도에 대한 정의가 있었다.

1918년 대주교 위원회가 교회의 복음전도사역에 대한 보고서 속에서 복음전도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했다. 복음전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제시해 그 분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며, 교회의 교통 안에서 그 분을 왕으로 섬기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sup>8</sup>

이는 복음전도에 대한 아주 훌륭한 정의다. 복음전도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복음전도의 범위와 방법, 전도자의 역할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적절하게 잘 표현하였다. 첫째, 복음전도의 목적은 예수님을 제시해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복음전도의 목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이 교회의 교통 안에서 그 분을 왕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다. 셋째, 복음전도의 범위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원히 섬기게 하는 것이다. 넷째, 복음전도의 방법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역할은 성령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토록 왕으로 섬기도록 돕는 일이다. 제임스 팩커는 1918년 대주교 위원회가 내놓은 정의를 대부분 동의하지만 한 가지 부분에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음전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제시해 그 분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고’ 라는 표현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주교 위원회의 정의는 복음전도자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회심을 정확히 설명은 하지만 복음전도의 성공 여부는 회심을 이끌어냈느냐 이끌어내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복음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 즉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9</sup>

<sup>8</sup> 제임스 팩커, *제임스 팩커의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59.

<sup>9</sup> Ibid., 60-62.

그의 말에 따르면 전도자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히 전했다면 그것으로 복음전도가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회심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복음을 순전하게 전한 것만으로 복음전도를 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 후 1974년에는 아래와 같은 복음전도에 대한 정의가 있었다.

1974년 로잔에서 모였던 세계복음전도에 대한 국제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복음전도를 정의하였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에 따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제는 통치하시는 주님으로서 모든 죄에 대한 용서와 자유롭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 모두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다. 복음 전도 그 자체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도록 설득할 의도로서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선포하는 일이라고 정의하였다.<sup>10</sup>

여기서도 복음전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전과 조금 다르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도록 설득할 의도’ 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즉 복음전도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설득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게 된 것이다. 존 스토틀(John stott)는 복음전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복음전도는 성경의 말씀대로 멸망할 죄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유일하신 구속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모든 생활에서와 그의 교회의 교제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게 하며 영광중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날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다.<sup>11</sup>

그가 정의한 복음전도는 이전에 정의한 내용과 좀 다르게 복음만 단순하게

<sup>10</sup> 데이비드 왓슨, *나는 복음전도를 믿는다*, 박영호 역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80), 32.

<sup>11</sup> 박종무, “개인전도에 관한 연구,” (신학박사학위논문,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1985), 20.

전하는 차원이 아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모든 생활과 그의 교회의 교제” 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그가 전하는 복음전도는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며, 모든 생활과 그의 교회의 교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것이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말한 것이다.

마이클 그린은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도 아니고 기독교의 사회참여만도 아니고 양자를 모두 포함한다.”<sup>12</sup> 고 했다. 이는 복음전도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와 말씀선포가 각각 독립될 때는 둘 다 아무 소용이 없다.”<sup>13</sup> 고 했다. 이는 복음전도가 말씀선포와 사회참여 중 어느 하나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1세기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모두 사용했다. 마이클 그린의 말했듯이 복음전도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모든 생활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한 부분이다.

복음전도에 대한 신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복음전도는 1차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며, 그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게 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sup>12</sup> 마이클 그린, *초대교회의 전도*, 김정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14.

<sup>13</sup> Ibid., 15.

## 전도의 사전적 의미

복음전도란 말을 종종 사용하고 있다. 복음 전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양한 문헌을 통해 찾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서 찾는 것이다. 필자는 복음전도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신약성경에 나타난 헬라어 다섯 낱말을 연구함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유양게리소(εὐαγγελισμός)이다. 이 단어는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는 뜻이다. 이것이 우리말로로는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1:15)’ 고 말씀하실 때 이 낱말이 사용되었다. 여기서 이 낱말의 뜻은 ‘기쁜 소식’ 이다.”<sup>14</sup> 또한

“유양겔리젯다이(εὐαγγελισθεῖσθε)라는 동사는 신약성경 가운데 52번이나 나오는데 ‘복음을 전한다’ 라는 뜻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거나 선포하거나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sup>15</sup> 이를 종합하면 복음전도의 사전적 의미는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전도라는 말이다.

둘째, “케롯소(κηρύσσω)이다. 이 단어는 예수님과 요한 그리고 초대 복음전도자들에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4:23).라고 할 때 케롯손(κηρύσσω)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옛날에 임금의 법령을 알리기 위하여 이 지방 저 지방으로 돌아다니는 임금의 전령자를 묘사한 말이다.”<sup>16</sup>

<sup>14</sup> C.E. 어트리, *기본전도학*, 정진황 역 (서울: 침례회출판사, 1976), 35.

<sup>15</sup> 왓슨, *나는 복음전도를 믿는다*, 33.

<sup>16</sup> 어트리, *기본전도학*, 36.

“케류세인(κ η ρ ύ σ σ ε ι ν)은 선포하다는 의미의 동사이며 신약성경에 61번이나 쓰였다.”<sup>17</sup> 이를 종합하면 복음전도는 큰 기쁨의 소식을 선포한다는 의미이다.

사도바울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10:15).” 라고 말했다. 여기에 사용된 ‘전파하다’가 헬라어로 케루소이다. 즉 복음전도는 ‘선포하다, 전파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셋째, “디다스코(δ ι δ α σ χ ω)이다. 이 단어은 예수님의 복음전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단어보다 자주 사용되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마9:35).’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sup>18</sup> 이는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진리를 잘 가르쳐 주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꼭 알아야 할 진리를 쉬운 단어나 비유를 통해서 쉽게 알아듣도록 가르치셨다. 때로는 공중의 나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를 예로 들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복음진리를 가르치기도 하셨다. 따라서 복음전도는 가르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복음전도자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중요한 진리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마르투스(μ ά ρ τ υ ς)이다. 이 단어의 뜻은 ‘증인’이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행1:8).’에서 사용되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증인은 곧 증명, 증언이다. ‘증인’이란 낱말에서 ‘순교자’란 말을 갖게 된다. 순교자는 자신의 피로써 자기의 증거를 뒷받침하는 사람이다. 신약성경적인 진정한 증인은 복음을

---

<sup>17</sup> 왓슨, 나는 복음전도를 믿는다, 46.

<sup>18</sup> 어트리, 기본전도학, 36.

전과할 것이고 또 그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sup>19</sup> 이는 복음전도는 단순히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죽을 각오를 하고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세기에 살았던 사도들과 성도들은 감옥에 갇힐 각오뿐 아니라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전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공회원들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4:20)” 고 외치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복음전도는 증인이란 의미를 담고 있으며, 복음증거자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마테테스(μαθητης)이다. 이 단어는 복음전도의 성경적인 정의를 설명하는 마지막 낱말로써 그 뜻은 ‘제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28:19)’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마테투스테는 여기에 사용된 동사형이다. 이것은 ‘제자를 삼다’란 말이다. 이것은 ‘가르치다’라는 낱말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sup>20</sup> 이는 복음전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즉 복음전도는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신실히 따르고 섬기는 제자가 되는 모든 것을 내포한다.

C.E. 어트리는 “복음전도의 사전적 의미로 사용된 5개 단어(유앙게리조, 케루소, 디다스코, 마르투스, 마테테스)들은 한 낱말로 축소할 수 있다. 그 낱말은

---

<sup>19</sup> Ibid.

<sup>20</sup> Ibid., 37.

곧 ‘선전’이다. 복음전도와 선전은 원래 같은 것을 의미했다.”<sup>21</sup>고 했다. 이는 복음전도라는 말과 선전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도들은 힘든 고난 중에도 복음을 선전하며 살았다. 즉 초대 초대교회 복음전도자들은 복음의 선전자였다는 것이다.

피터 와그너는 복음전도를 정의하는 단어로 다음과 같이 8개 단어를 사용했다. “① 증거하다(행1:8) ② 말하다(행4:1) ③ 복음전하다(행8:4) ④ 가르치다(마28:20) ⑤ 강론하다(행17:2) 알리다(행17:3), 선포하다(행8:5), 제자로 삼다(마28:19).”<sup>22</sup> 이는 복음전도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고 말하는 것이며,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이며, 알리고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전도의 사전적 의미를 정리하면, 복음전도는 한 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전파하고 선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고 선전하는 행위 속에는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삼고, 제자로 삼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복음전도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도록 전파하는 것이다. 또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며, 최종적으로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우는 일체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전도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교회성장

---

<sup>21</sup> Ibid.

<sup>22</sup> C.P. 와그너, *교회성장학 개론*, 이재범 역 (서울: 나단, 1995), 43.

복음전도를 함에 있어서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경적인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제시할 때 복음전도 자체가 의미가 있고, 성도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복음전도에 동참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쳐 주신 후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마9:30)” 고 경계하였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였다. 이것은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처럼 자발적인 복음 전도가 되도록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도의 동기

첫째,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마26:69).” 고 했을 때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처음엔 그냥 부인하다가 두번째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세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요21:15).” 라고 세 번이나 물으셨다. 베드로는 주님앞에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했다. 그 때 주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요21:17)”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함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조병호는 “성경은 펼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하나님의 러브레터’ 이다.”<sup>23</sup> 고 했다. 이는 성경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sup>23</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通)신학* (서울: 통독원, 2016), 45.

표현되어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조로 표현된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다.”<sup>24</sup>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전도자 바울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강권했다(고후5:14). 그 때 그는 누구보다 훌륭한 복음전도자로 살 수 있었다. 그는 로마에 가고자 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롬1:14-15)” 그는 주님께 사랑의 빛을 진자로 여기며 일생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롬5:8).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임을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둘째,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동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나병환자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막1:41)”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에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았던 그를 보시고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다.

---

<sup>24</sup> 왓슨, 나는 복음전도를 믿는다, 91.

조병호는 “성경통독은 성경 66권을 읽어가는 동안 성경 66권 전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적으로 읽는 방법이다.”<sup>25</sup> 고 했다.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책이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그 분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복음전도자는 성경 전체에 계시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복음서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분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고생하는 유대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깊이 동참하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마9:36). 또한 귀신이 들리고 병든 백성들이나(마14:14), 주님과 함께 사흘이나 함께 있었지만 먹지 못해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마15:32). 만약 주님이 세리나 창기나 나병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하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우리가 세상 믿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동기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때문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어야 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전도의 사명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 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하늘과 땅의

---

<sup>25</sup>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5), 35.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8-20)” 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두에게 하신 명령이었다.

사도 바울은 전무후무한 전도자였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었다.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다. (행20:24).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신약시대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끊임없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말씀을 전했다. 때로는 매를 맞고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변함없이 주님께 받은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4:2)” 고 말씀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2:4)” 고 말씀하면서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권면했다. 복음전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순종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동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 전도의 목적

첫째, 전도의 목적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위해 여자의 후손(창3:15)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그 후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손과 땅과 복을 약속하였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친 후 약 500년이 흐른 뒤에 애굽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다(출1:7).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갈3:16).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타락한 인류에게 주실 복으로 구원자 예수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때가 되어 약속한 대로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인기가 최절정에 달아올랐을 때 제자들에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하시면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1:38)” 고 말씀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19:10)” 고 말씀했다.

예수님은 늘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최고의 인기를 누릴 때에도 변함이 없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막6:31) 무리를 돌보며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복음전도의 1차적 목적은 단순히 교인수를 늘이거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함이 아니다.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둘째, 전도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함이다. 세례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왔느니라(마3:2).” 고 전파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4:17)” 이었다. 세례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막9:2).” 고 말씀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12:28).” 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닌, 지금 여기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힘 있게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미한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이다. 바로 복음전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며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다. 복음전도를 통해서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옴으로 그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전도의 두 번째 목적이다.

셋째, 전도의 목적은 신앙성장을 위함이다. “신5장1절에 쓰인 ‘배우다’란 단어와 신4장1절에 쓰인 ‘가르치다’란 단어의 히브리어가 같다. 똑같은 히브리 단어가 ‘배우다’와 ‘가르치다’를 의미한다. 배움에서 가르침을 분리시킬 수 없다.”<sup>26</sup> 이는 배우다와 가르치다는 동전의 양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가르칠 때 배운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은 배움과 가르침을 분리시키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이 3년간 배운 복음의 내용을 세상에 전하고 가르치게 하셨다. 주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낼

---

<sup>26</sup> 브루스 윌킨슨,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 홍미경 역 (서울: 디모데, 2004), 28-29.

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10:16).”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가 가득한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것은 무엇보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의 신앙성장을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배움과 가르침이 동전의 양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들은 주님께 배웠던 복음진리를 실제로 세상에 선포함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쳤다(막6:13). 그 경험과 배움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담대한 복음전도자가 되었다. 공회에 끌려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경고했을 때 그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4:20).” 고 말했다.

그들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은 전도자로 신앙이 성장한 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복음전도를 함으로 신앙이 성장한 결과라고도 여겨진다. 그러므로 복음전도는 우리의 신앙성장을 위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 교회성장

교회성장은 하나님의 소원인 동시에 모든 교회의 희망이요 꿈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지역 교회가 세워지면 성장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교회는 성장이 거의 멈추고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바람직한 교회성장을 위한 방법을 해롤드 엘 픽켓트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헤롤드 엘 픽켓트는 그의 책 「교회 성장의 열 가지 원리」에서 교회성장원리 10가지를 제시했다. “그가 말하는 10가지 원리는 예수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전도하는 교회, 중생교인 확보, 신임받는 지도력, 성경적인 재정정책, 충분한 직원, 믿음의 동력화, 교회 봉사의 전문화, 균형의 유지이다.”<sup>27</sup>

저자는 교회 성장의 열 가지 원리 중에 가장 먼저 예수그리스도 중심을 제시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결속된 단체이기 때문이다”<sup>28</sup> 고 했다. 이는 교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섬기는 공동체이다. 오직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일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제시한 것은 성경중심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은 성경을 우리의 유일한 교과서로 삼기 때문이다.”<sup>29</sup> 고 말했다. 이는 교회가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텍스트가 성경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고 말씀했다. 성경은 가르치고 섬기는 모든 사역의 중심이어야 한다. 성경중심으로

---

<sup>27</sup> 헤롤드 엘 픽켓트, *교회성장의 열 가지 원리*, 조해수 역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78), 15-16.

<sup>28</sup> Ibid.

<sup>29</sup> Ibid., 19.

교회가 세워질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장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제시한 것은 전도하는 교회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복음전도로 일관하기 때문이다.”<sup>30</sup> 해롤드 엘 픽켓트는 “나의 설교는 언제나 복음전도 위주이다. 구속의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 설교는 이미 궤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한다.”<sup>31</sup> 고 했다. 이는 교회의 모든 사역 중심에는 복음전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하고, 그 다음은 성경중심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기란 불가능하다.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배운 성도들이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 “해롤드 엘 픽켓트는 1914년 15명의 교인과 함께 밴 나이스 제일 침례교회를 개척했다. 그로부터 57년 후 1만명 교인과 함께 12년간 매 주일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sup>32</sup>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성장의 원리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 해롤드 엘 픽켓트가 제시한 10가지 원리는 아주 바람직하고 훌륭하다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사역할 때 교회갱신과 함께 바람직한 교회성장과 갱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겨진다.

## 성경에 나타난 전도방법

### 복음서에 나타난 전도방법

---

<sup>30</sup> Ibid., 23.

<sup>31</sup> Ibid., 45.

<sup>32</sup> Ibid., 11-12.

## (1) 예수님의 전도방법

## 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먼저 찾아가는 복음전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5:3)” 라고 말씀하셨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구원 얻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대부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마가복음의 경우를 보면,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환자를 찾아가셨고, 2장에서는 중풍병자와 세리 레위를 찾아가셨고, 3장에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찾아가셨다. 5장에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들린 사람을 찾아가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을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증거이다.

## ② 전도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복음전도

예수님은 나병환자든, 중풍병자든, 세리든, 한 손 마른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셨다.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얻기 위해 나아왔을 때는 아무 말도 없이 그를 붙잡고 여기시키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막1:41).” 라고 말씀하셨다. 중풍병자의 경우엔, 그가 네 사람의 도움을 받고 나아왔을 때 그에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막2:5)” 고 말씀해 주셨다. 세리 레위의 경우에는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막2:14)” 고 말씀하셨다. 손 마른 사람의 경우는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면서 “네 손을 내밀라(막3:5)” 고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복음을 전하셨다.

특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사는 여인을 전도할

때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정오에 물을 길으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요4:7)” 고 하시면서 여인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야곱의 한계적인 우물물과 자신이 주는 영원한 샘물을 비교하면서 여인의 닫힌 마음을 여셨다. 마침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요4:16)” 고 하시면서 참된 신랑 되시는 자신을 소개했다. 예수님의 복음전도를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요4:29).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전도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셨다.

### (2) 세례 요한의 전도방법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3:2)” 였다. 그는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를 맞이하고 영접하도록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마3:8).” 고 강조했다. 그 결과 성경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마3:5-6)” 라고 기록한다. 세례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회개였다. 그가 전한 복음은 많은 유대 백성들을 회개시켰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다.

### (3) 안드레의 전도방법

안드레는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먼저 전도한 대상은 형제 시몬 베드로였다(요1:40). 그가 전한 복음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요1:41)” 였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자신이 만난 메시아(그리스도)를 형제 베드로에게 전했을 뿐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다. 안드레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가장 먼저 형제 베드로에게 전하고 인도한 복음전도자였다.

#### (4) 빌립의 전도방법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를 영접하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요1:43). 빌립은 나dana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요1:45)” 고 전했다. 빌립 역시 안드레처럼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다. 그리고 나dana엘에게 “와서 보라(요1:46)” 라고 했다. 예수님께서 나dana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요1:47)” 라고 하시며 그를 영접했다.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나dana엘에게 전했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복음전도자였다.

####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전도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남아있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 교회가 세계로 흩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4복음서가 예수님의 복음전도 사역을 기록한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복음전도 사역을 기록한 책이다.

&lt;표1&gt; 사도행전과 복음전도

초점	예루살렘에서 복음전파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전파	땅 끝까지 복음전파	
내용	교회의 태동 (1:1-2:47)	교회의 성장 (3:1~8:3)	교회의 확산 (8:4-12:25)	바울의 1차,2차,3차 전도 여행 (13:1~21:16)	바울의 재판 / 로마 여행 (21:17~28:31)
전도 대상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이방인, 흩어진 유대인	
전도자	베드로, 요한, 스테반		빌립, 베드로	바울, 바나바, 디모데, 실라, 누가	

## (1) 성령과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행1:4).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1:8).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있다. 첫째는 ‘오직’ 이란 단어다. ‘오직’ 은 ‘다른 건 다 없더라도’ 라는 의미이다. 다른 것은 없더라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다. 둘째는 ‘증인’ 이란 단어다. 증인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목격한 것만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까지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인이 되는 것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이 된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다.

## (2) 베드로의 복음전도

## ① 유대인에게 복음전도(행2:25-38)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구약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행2:25-28)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였다. 다윗이 언급한 ‘주의 거룩한 자’ 를 베드로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한다. 또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아름다운 시를 쓴 것으로 언급하면서 자신은 이 일에 증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고 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성도의 수가 삼천이나 되었다.

사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앞에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다고 전파하였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본인들이다.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남자의 수만 약 오천이나 되었다.

## ② 이방인에게 복음전도(행9:32-10:43)

## a. 키프로에서 에니아에게 복음전도(행9:32-35)

베드로는 키프로에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에니아를 만났다.

“에니아는 찬양하다는 뜻으로, 헬라 세계에는 흔한 남성 이름이었다. 따라서 그는 헬라과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sup>33</sup> 베드로는 그에게 아주 단순하게 복음을

<sup>33</sup> 한성권,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사도행전 제8-14장* (서울: 제자원, 2006), 197.

전하면서 말한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34절).”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 소개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35절). 복음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지역 사람들의 다수가 이방인이라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그 구원의 복음이 한층 더 넓게 확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4</sup>

b. 욥바에서 다비다에게 복음전도(행9:36-42)

베드로는 욥바에서 병들어 죽은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를 살려낸다.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베드로를 높이고 의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복음전도의 모습이다. “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는 표현은 복음의 역동적 확산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sup>35</sup>

c.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에게 복음전도(행9:43; 10:6; 10:32)

베드로는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 집에서 며칠 머물렀다. 무두장은 모피의 털과 기름을 뽑고 가죽을 부드럽게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죽은 시체를 만지는 직업이라 유대인들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 베드로가 이 부정한 사람의 집에 머무르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복음이 직업과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d.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전도(행10:1-43)

성령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동시에 역사하심으로 두 사람은 만나게

---

<sup>34</sup> F.F. 부루스, *헨드릭슨 성경주석 사도행전(상)*, 이용복 외 1인 역 (서울: 아가페, 1986). 255.

<sup>35</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사도행전 제8-14장*, 205.

되었다. 베드로에게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주범이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성령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아시고 그가 기도할 때 울법에 금한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고 하셨다. 이것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심으로 그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렸다. 그리고 로마군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누구든지 아무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 (3) 스테반의 복음전도 (행7:1-60)

스테반은 초대교회 일곱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행6:5). 그는 사람들의 거짓말과 모함으로 공회로 끌려 왔다. 사람들이 고소한 죄목은 신성 모독의 죄와 성전과 율법의 의미를 훼손한 죄였다. 그것이 인정되면 스테반은 사형을 당해야 했다.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나 묻자 스테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를 차례로 언급하면서 변론하였다. 먼저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경륜임을 전하였다. 하지만 요셉을 팔아 넘긴 유대 조상들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이 끈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했다. 이 순간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외쳤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테반의 변론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귀를 막고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생을 마감했다. 스테반의 죽음 이후 복음은 더 힘있게 전파되었고 믿는 사람들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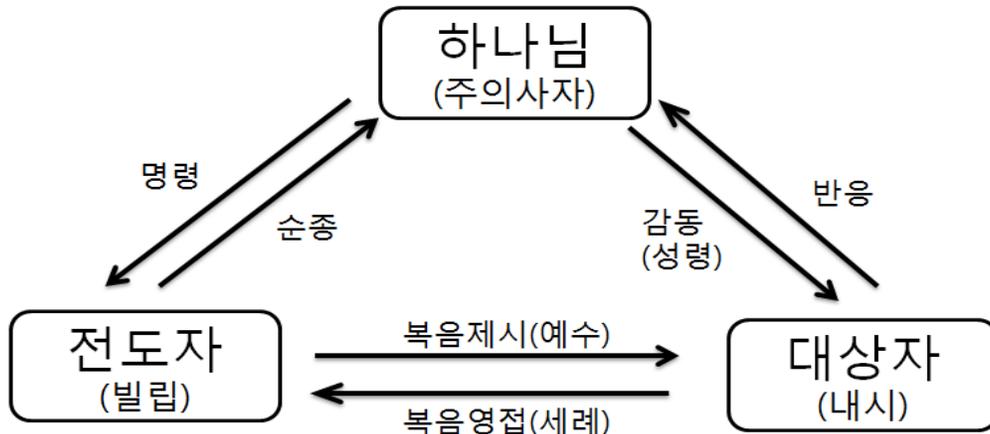
#### (4) 빌립의 전도(행8:5-40)

빌립은 초대교회 일곱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행6:5). 스테반의 순교는 핍박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마치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예루살렘 전역에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졌다. 그러나 스테반의 순교를 계기로 복음 역사는 더 힘있게 일어났다. 지금까지의 유대인 중심의 복음 역사가 이방인으로 점점 옮겨지기 시작했다.

전도자 빌립은 이방인 선교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고관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고위관직에 있었던 내시를 통해 더 큰 복음의 역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빌립의 복음 전도는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고 수용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먼저 전도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자 빌립을 보내셨고, 전도자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자 빌립을 인도하셔서 그가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전도자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내시가 영접하고 세례를 받도록 큰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셨다. 빌립의 복음 전도를 도식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빌립의 복음전도



(5) 바울의 복음전도(행9:1-행28:31)

하나님께서서는 땅 끝까지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바울을 택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다.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이었다(행9:15). 곧 사울은 주와 복음을 실어 나르는 그릇, 도구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바울이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대상으로 1순위가 이방인이요, 2순위는 임금들 곧 세상권력자들, 3순위는 이스라엘 자손인 유대인들이었다. 실제로 행13장부터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 모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세계 복음화를 얼마나 철저히 감당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행9:31)” 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의 회심사건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반복된다.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26장에서는 헤롯 아그립바 왕 앞에서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전했다. 이는 그만큼 사울의 회심 이야기(간증)가 가장 효과적인 복음전도의 방법이 됨을 말해준다.

① 안디옥 교회의 파송(행13:1-12)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교회의 파송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전파했다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이방 지역으로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바울을 부르시고, 따로 세우시고, 파송한 것이다.

② 바울의 소아시아 복음전도(행13:13-14:28)

a.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행13:14-52)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기독교론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바울은 이를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전했다. 첫째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선택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16-25)하였고,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26-37)을 전했고, 셋째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것을 권면하고 불신을 경고(38-41)하였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 많은 시민들이 계속 복음을 듣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은 맹렬하게 비방했다. 그 때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돌이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게 되었다.

b. 바울의 이고니온 전도(행14:1-7)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어려움은 있었지만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은혜의 말씀을 계속 증언할 수 있었다.

c. 바울의 루스드라 전도(행14:8-28)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14:9).” 그가 일어나 걷도록 도와주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바울을 신(헤르메스)으로 추앙했다. 이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질하여 갑자기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만 정신을 잃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을 줄 알고 시외로 끌어냈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③ 바울의 마게도냐, 아가야, 에베소 복음전도(행16:1-19:41)

a. 바울의 디베와 루스드라 전도(행16:1-5)

복음 외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심하게 다투며 복음 진리를 수호했던 바울이 스스로 원칙을 깨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이는 소극적으로는 복음역사에 유대인들의 훼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으며, 적극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함이었다(고전9:20). 바울이 여러 성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자 여러 교회가 믿음위에 든든히 세워져 갔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b. 바울의 빌립보 전도(행16:6-40)

바울은 소아시아를 복음화시키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는 환상을 보여주셨다. 바울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로 가게 되었다. 여기서 바울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심으로 그녀는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은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그 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겨지자 간수들이 무서워 떨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외쳤다. 그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 말했고, 간수집으로 가서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 놀랍게도 그와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 c.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행17:1-9)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하였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내용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었다.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자 경건한 많은 헬라 사람들과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

#### d. 바울의 베뢰아 전도(행17:10-15)

베뢰아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 e. 바울의 아덴 전도(행17:16-34)

바울은 철학과 수사학, 문학과 과학 등 다방면에서 학문의 꽃을 피운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을 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곧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에 호기심을 가졌던 아덴 사람들은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초대하여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자세히 듣고자 했다. 바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하신 심판의 주가 되심을 전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유력한 몇 사람 곧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 제자와 또 다른 사람들만 믿었다.

#### f. 바울의 고린도 전도(행18:1-28)

바울은 당시 유럽 최대의 항구도시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러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 바울의 복음역사가 활발히 일어난 것은 그에겐 아볼로라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배웠다. 그 후 그는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전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고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 3:6)” 라고 언급하였다.

#### g. 바울의 에베소 전도(행19:8-41)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서,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계승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세워서 훈련한 것처럼 바울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능력있고 왕성하게 역사했다.

④ 바울의 예루살렘과 로마 복음전도(행19:21-28:29)

a. 바울의 산헤드린 공회원 전도(행19:21-23:35)

바울은 여러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말한다.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19:21).” 결국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로마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체포되었다. 놀랍게도 그는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서서 유대 백성들에게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다. 또한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이 있음을 공회 앞에서 전하였다. 그러자 40여 명의 유대인 비밀 결사대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굳게 맹세하자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알고 로마의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었다.

b. 바울의 벨릭스 전도(행24:1-27)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전문 변호사 더들로의 고소에 맞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울의 변호는 자신의 무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박한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있었다. 바울은 `심문의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로마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었다.

c. 바울의 아그립마 왕 전도(행26:1-23)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한 바울을 고소하자 베스도총독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할 근거를 찾고자 아그립바 왕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러자 아그립바 왕이 친히 바울을 심문하기 시작했고, 바울은 왕과 고관들 앞에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신 것이었다.

d. 바울의 로마 전도(행28:16-31)

바울은 가택연금상태에서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였다. 그는 성경에 근거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다. 또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이때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다. 그는 가택연금이라는 제한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옥중서신”, 즉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집필했다. 그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몬 10)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행4:29). 그 결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믿는 무리들이 늘어났다. 사도행전은 이것을 반복해서 설명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행2:41),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행4:4).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행5:14).” 고 했다.

이것에 대해 정규모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의 선포는 초대교회 성장의 가장 결정적 요인이었다.”<sup>36</sup> 고 했다. 이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확히 전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교회 성장의 요인은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선포였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에 따른 복음전도였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왓슨은 “누가가 초대교회의 성공적인 복음전도사역을 묘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행6:7)’,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행12:24)’,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니라(행13:49).’,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행19:20).’ 등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성장을 가리키는데 사용된 매우 독특한 표현 방식이었다. 칼빈도 그의 주석에서 사도행전 19장20절을 인용하여 말할 때 ‘말씀이 흥왕하였다는 의미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며 차라리 교회가 흥왕하였다는 표현을 빌리는 것이 좋겠다.’ 고 하였다.”<sup>37</sup>

이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것은 복음전도가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의미요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복음전도의 역사 곧 교회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을 얻고 흥왕하게 나타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sup>36</sup> 정규모, *설교의 연구와 실제* (서울: 은성문화사, 1976), 12.

<sup>37</sup> 왓슨, *나는 복음전도를 믿는다*, 51-52.

그리스도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구원자(메시아)라는 사실이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을 때 교회의 부흥과 갱신의 역사가 일어났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에 도착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의 복음전도 사역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 왜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통한 전도인가?

필자는 지금까지 복음전도를 수 십 년간 해 왔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비슷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복음전도를 열심히 한 만큼 한국교회는 침체 혹은 정체에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지금 한국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게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해 왔다. 그러던 중에 조병호의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책이 큰 도전을 주었다. 그는 “모든 성경을 방해하는 불량식품 ‘예화주의’와 모든 성경을 방해하는 편식 ‘요절주의’”<sup>38</sup> 를 배격하고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조병호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대회’에서 모든 성경, 모든 민족, 모든 가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여기서 이렇게 말했다. 성경 전체를 부분적으로 과편화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한 권의 책, 하나의 스토리라는 것, 34살 젊은 루터가 외친 ‘오직 성경’을 2017년

<sup>38</sup>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7-17.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선언했다.<sup>39</sup>

한국교회의 침체 혹은 정체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친 것처럼 한국교회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를 외칠 때 교회의 회복 뿐 아니라 성장과 갱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 를 통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를 가르치고 전함으로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도모하고자 한다.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 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계시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전도이다.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이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이다

(1) 복음전도는 성경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전도는 성경 전체에 계시된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전도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선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sup>39</sup>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121000043292> (2019년 12월 20일 접속).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나서, 그분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이다.<sup>40</sup>

선교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되어 선교 즉 복음전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고서는 선교는 시작될 수 없다.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누군가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순간부터 세상 복음화는 시작되었다. 복음전도자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복음전도자는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기도 한다. 때로는 성경 한 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 하지만 성경 한 구절이나 성경 한 장으로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을 이해하기란 어려울 때가 많다.

조병호는 “성경통독은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성경66권을 읽어가는 동안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읽어가야 한다.”<sup>41</sup> 고 했다. 또한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경통독은 성경 66권을 읽어가는 동안 성경 66권 전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적으로 읽는 방법이다.”<sup>42</sup> 이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도

---

<sup>40</sup>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 백성의 선교*, 한화통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7), 19.

<sup>41</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通)신학*, 45

<sup>42</sup>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35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전체를 읽을 때 성경 단어나 구절 그리고 단락을 통해 알 수 없는 죄인을 향해 한탄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시에 온 인류를 향해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다.

노아홍수 사건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셨다. 분명히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 배후에는 다시 새로운 인류를 노아를 통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온 인류의 죄의 값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이로 인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 졌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여자의 후손(창3:15)을 보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크신 사랑이 숨어 있는 것이다.

왜 우리가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음전도는 단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음전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이해해야 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전체를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수동적인 복음전도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하는 자발적인 복음전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 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것은 성경 66권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을 6주간 가르치고 전달하고 실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복음전도 교육방법이다. 6주간의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배우고 현장에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자들이 양성이 되리라 기대한다.

(2) 복음전도는 성경전체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복음전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복음전도자들은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보라.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구약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행2:25-28)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였다. 그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다(행4:4). 이것이 바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복음이란 단어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사용되었다. 마가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막1:1)” 이라 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롬15:19)”,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고후4:4)” 이라고 했다. 즉 복음전도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의미와 거의 동일했다(롬2:16; 롬15:20; 롬16:25).

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미였다. 바울은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롬15:16).” 라고 했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골1:23).” 고 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복음의 일꾼이었다. 즉 그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여기고 표현했던 것이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의미이다. 개역개정판 신약성경에는 복음이란 단어가 113번 나온다. 구약성경에는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구약성경에 복음이란 단어가 없다고 구약성경은 복음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기에 구약성경은 분명히 복음이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이다. 구약성경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다면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읽고 이해해야 한다. 성경을 단어나 구절, 장이나 단권으로 보면 성경 전체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이해할 수 없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고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다.

복음전도는 성경전체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전체를 통해 계시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전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것은 성경 66권 전체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6주간 가르치고 전달하고 실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복음전도 교육방법이다. 6주간의 교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배우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자들이 양성이 되리라 기대한다.

(3) 복음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전도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이다. 복음전도자들이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았다면 다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기독교 월간지인 ‘목회와 신학’ (4월호)은 2018년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국내 기독교인(성도) 500명과 목회자 300명 등 800명을 대상으로 신앙 실태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성도 10명 가운데 7명 정도(71.4%)가 ‘복음 전도는 못하고 있다’ 고 답했다. 반면 복음 전도법을 가르친다는 목회자는 91%에 달했다. 이에 대해 신국원(총신대 신학과) 교수는 “한국교회가 신앙 성숙에 소홀한 나머지 전도의 자신감을 잃은 것이 전도 노력의 저하로 나타나는 것 같다” 고 분석했다.<sup>43</sup>

한국교회의 침체 및 정체 원인은 성도들이 복음전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교회마다 90% 이상의 목회자들이 복음 전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3명도 안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다.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도에 동참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 왜 복음전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는데 실제 복음전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 신앙 성숙에 소홀한 나머지 전도의 자신감을 잃은 것도 원인일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실제적인 복음전도자로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복음전도 교육 방식과 내용에 있다. 이제는 성경 전체를 통해 복음전도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제시할 수 있는 복음전도 교육 방식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성도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복음전도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복음전도가 성경전체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복음전도 교육 내용에 충분히 담겨 놓는다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현재의 복음전도

<sup>43</sup>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925370#RedyAi> (2020년 1월 20일 접속).

교재는 대부분 성경 몇 구절이나 몇 장, 그리고 다양한 예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 복음전도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제시할 때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복음전도자로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복음전도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전체를 통해 거듭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것은 성경 66권 전체에서 복음전도는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실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복음전도 교육방법이다. 6주간의 교육을 통해 복음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깊이 배우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자들이 양성이 되리라 기대한다.

(4) 복음전도는 모든 사람이 함께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복음전도는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모두가 함께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한국 교회의 침체 및 정체의 원인 중에 하나는 다음세대 주일학교 학생들의 감소이다. 한국교회 장년 성도들은 약간의 감소 또는 침체이지만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은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장고신 총회교육원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교단 내 주일학교 학생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일학교 학생 수가 15만 9,928명(2006년)에서 11만 1,713명(2015년)으로 30% 감소했다.”<sup>44</sup>고 했다. 예장 통합 측의 경우 “유치부는 2004년에 78,000명이었는데 2014년에는 58,000여 명으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sup>44</sup>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96> (2020년 1월 20일 접속).

동안에 중고등부 역시 18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감소했다. 기장측의 초등부도 2013년에 41,000여 명에서 2014년에는 4만 여 명으로 줄었고, 중고등부도 26,000여 명에서 1년 사이에 24,000여 명으로 감소했다.”<sup>45</sup>고 했다.

이는 대부분의 교단 교회학교 학생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회의 다음세대 자녀들의 교회 출석 감소 현상은 저출산과 주5일근무와 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라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교회의 복음전도는 대부분 장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은 학업 문제로 거의 복음전도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초등학생부터 중고등부, 장년까지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복음전도는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인가?

복음전도는 모든 사람이 함께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장년들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모두가 함께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따라서 아이들부터 장년까지 복음전도자가 될 수 있는 복음전도 교육의 새로운 변화가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점에서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것은 성경 66권 전체에서 복음전도는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모두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가르치고 전달한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복음전도 교육방법이다. 6주간의 교육을 통해 복음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깊이 배우고 어린 아이부터 장년까지, 초신자부터 믿음이 신실한 사람까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자들로 양성이 되리라 기대한다.

---

<sup>45</sup> <http://www.kscom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20> (2020년 1월 20일 접속).

(5) 복음전도는 성경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자체보다 교회로 초청받은 사람의 수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이 소위 ‘전도왕들의 등장’이다. ‘전도왕’이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서 전도라는 단어에 왕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옳은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전도를 통해 왕이신 예수님이 높여지기보다 사람이 왕이 되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은 교회부흥과 갱신을 위해 전도왕들을 불러서 동기부여를 해 왔다. 성경 전체를 근거로 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전도 교육을 실시하기보다 전도왕들의 간증을 듣게 해서 전도하도록 동기부여를 했던 것이다. 전도왕들의 간증들은 대부분 교회로 초청한 사람들의 수에 집중되어 있었다.

송경호의 책 「총동원전도와 새신자 양육관리 가이드 예수초청잔치」에는 4명의 전도 간증이 소개되어 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대전중부교회 최미자이다. 서울 기독교 방송국 ‘새롭게 하소서’ 출연했고, 전국 500여회 전도 간증을 인도한 전도왕이다. 일만 오백명을 교회로 인도하여 삼백명이 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내용으로 전도간증을 하였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광주화정교회 김종식이다. 전국 500여회 전도 간증을 인도한 전도왕이다. 10부 예배까지 인도한 인원이 1,546명을 인도했다는 내용으로 전도간증을 하였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전주신일교회 권영주이다. 전국 500여회 전도 간증을 인도한 전도왕이다. 8부 예배에 3,721명이 예배를 드리게 하였고, 결심자가 1,050명이 나왔다는 내용으로 전도간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대전중부교회 송경호이다. 전국 2,000여 교회 간증을 인도한 전도왕이다.

총동원전도 주일 1,743명을 인도했다는 내용으로 전도간증을 하였다.”<sup>46</sup>

전도왕들의 간증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교회로 인도한 사람의 수에 집중되어 있다. 전도왕들의 전도 간증이 한국교회에 미친 좋은 영향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들의 간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패배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전도왕들의 간증은 대부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수 백 명 또는 수 천 명을 전도했다는 내용이다. 간증을 듣다 보면 한편으로는 은혜롭고 도전이 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하며 신앙의 패배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할 수 있다. 전도왕들은 대부분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했느냐에 초점을 두고 간증을 한다. 그들은 많은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 성경적인 방식보다는 일반 보험회사 직원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동원식 전도’를 한다. 교회들은 마치 실적을 나타내듯이 전도자의 전도인원을 교회 입구에 게시하고 성도들의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경쟁심리를 부추기는 방식의 전도는 또 하나의 교회 침체와 정체의 원인을 낳을 수 있다. 복음전도는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마지막 하나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전도왕을 강단에 세워 간증을 하게 했다. 심지어 주일오후예배 설교를 대신하기도 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식의 간증을 했다. 이것은 예수

<sup>46</sup> 송경호, *총동원전도와 새신자 양육관리 가이드 예수초청잔치* (서울: 예찬사, 2004), 211-67.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내용이다. 그들의 간증은 전도하는데 동기부여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기독교 신앙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

전도왕들의 간증은 분명히 성도들이 전도하는데 많은 동기부여를 했지만 복음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생산하였다. 무엇보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본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데만 집중하였다. 이로 인해 처음 교회에 나온 새 가족들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교회에 등록된 새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중도에 신앙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교회부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복음전도는 성경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전도 교육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복음전도와 관련된 성경의 몇 구절을 인용하고 여러 예화를 넣어서 만들어진 전도 교제나 전도 왕들의 간증을 통해 실시하는 전도교육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성경적인 복음전도를 종합적으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편파적이고 단순하고 부분적으로 가르칠 뿐이다. 또한 성도들을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복음전도자보다는 단회적이고 수동적인 복음전도자로만 양성할 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자는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복음전도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성경 전체를 통해 제시한다. 따라서 이것은 성도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도하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전하도록 하는데 아주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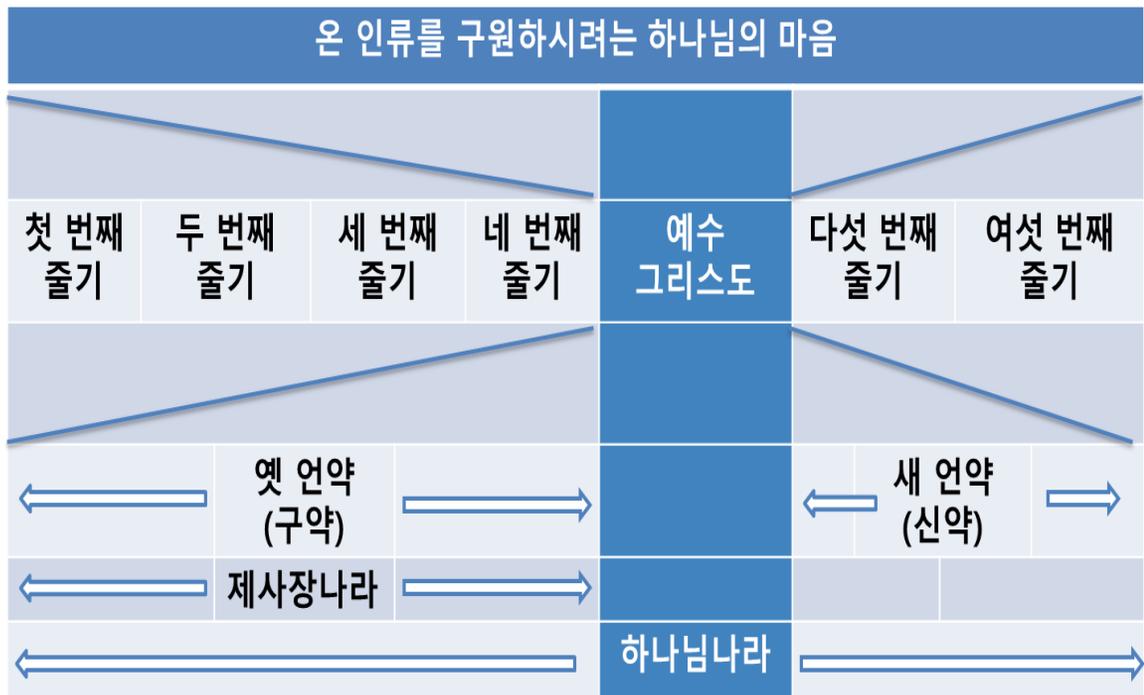
### 제 III 장

####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

#####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란?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계시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복음전도 교육용 교제이다. 또한 이것은 복음전도가 성경 전체를 통해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설명하는 복음전도 교육용 교제이기도 하다. 이것을 간단히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2>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



### (1)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 구성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섯 줄기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줄기는 모세오경에 계시된 구원스토리이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총5권(창, 출, 레, 민, 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줄기는 역사서에 계시된 구원스토리이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총12권(수, 삿, 룻, 삼상, 삼하, 왕상, 왕하, 대상, 대하, 스, 느, 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줄기는 시가서에 계시된 구원스토리이다. 율기부터 아가서까지 총5권(율, 시, 잠, 전, 아)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줄기는 선지서에 계시된 구원스토리이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총17권(사, 렘, 애, 겔, 단, 호, 율, 암, 율, 온, 미, 나, 합, 습, 학, 숙, 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번째 줄기는 복음서에 계시된 구원스토리이다.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총4권(마, 막, 눅, 요)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 번째 줄기는 서신서에 계시된 구원스토리이다.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22권(롬, 고전, 고후, 갈, 엡, 빌, 골, 살전, 살후, 딤후, 딤후, 딤후, 몬, 히, 약, 벵전, 벵후, 요일, 요이, 요삼, 유, 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사도행전은 제2장에서 성경에 나타난 복음전도 부분에서 따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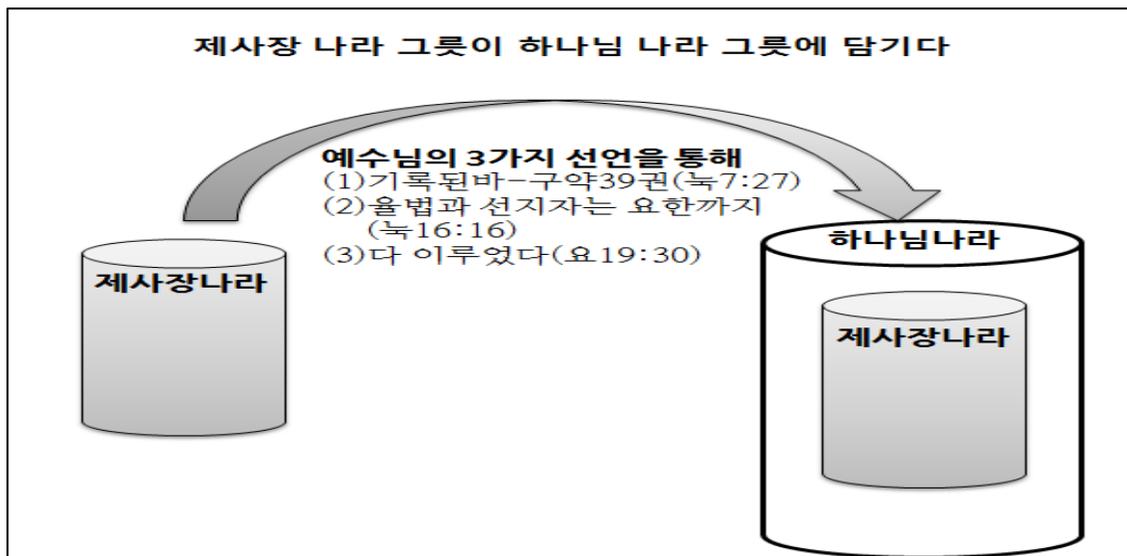
### (2)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와 제사장 나라 · 하나님 나라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는 성경에 계시된 제사장 나라 ·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19:5-6)”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온 열방을 섬기고 구원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길 원하셨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다.

조병호는 “구약성경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이고, 신약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담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다.”<sup>47</sup> 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실현된 나라이다.”<sup>48</sup>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요19:30)’ 고 하심으로 온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다. 다섯 줄기 구원 스토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로 실현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림3>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sup>47</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通)신학*, 23.

<sup>48</sup>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254.

(3)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와 통(通)성경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는 통 성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복음전도자는 성도들이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할 때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복음전도자가 될 수 있다.

조병호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책에서 통(通)성경이란 시간·공간·인간을, 개인·가정·나라를, 제사장나라·5대제국·하나님나라를 동시에 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다.<sup>49</sup> 성도들이 성경전체를 통으로 보고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복음전도자가 될 수 있다.

<표2>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와 통(通)성경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사람	아담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울 다윗 솔로몬	예레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12사도	예수님
공간	에덴동산	지시한땅	애굽	광야	가나안	예루살렘	바벨론	페르시아	예루살렘	땅 끝	새하늘 새땅
시간				성막 500년		성전 1000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B.C 2000	B.C 1800	B.C 1500	B.C 1400	B.C 1000	B.C 600	B.C 500	B.C 400	A.D 30	?
						왕정 500년		포로생활 70년		사도행전 30년	
줄기	첫번째 (모세오경)				두번째 (역사서)	세번째(사가서) 네번째(선지서)		두번째 (역사서)		다섯번째 (복음서)	여섯번째 (서신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sup>49</sup>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36.

## 첫 번째 줄기: 모세오경에 계시된 구원스토리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한다. “시내산 언약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구속 역사 즉, 창조, 인류의 범죄, 대홍수, 노아와의 언약, 족장들과의 언약, 애굽으로의 이주, 출애굽 등의 사건을 살펴볼 수 있다.”<sup>50</sup>

### 창세기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 인간의 범죄,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기록한 책이다.

#### (1) 창세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복음은 창세기부터 시작한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구약성경의 첫 부분 창세기부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줄기차게 약속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인류구원의 토대를 마련하시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셨다.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인류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갈4:4)”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복음은 창세기부터 시작한다.

존 맥아더는 그의 책 「담대한 복음전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경의 첫 대목에서부터 구속의 드라마가 전개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지만 인류의 첫 조상은 죄를 짓고 말았다. 하나님은 인간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계획하셨다(창3:15). 이것이 바로 ” 원형

<sup>50</sup> 코넬리스 반더발, *반더발 성경연구1*, 명중남 역 (서울: 연합선교회, 1991), 77.

복음 “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온 세상이 아담과 하와와 아브람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여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었다(창12:3, 18:18, 22:18, 26:4, 28:14).<sup>51</sup>

이는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한다.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창3:15), 창세기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약속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삼하7:12~13).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마1:1).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 주신다는 약속으로 표현되었다. 그 약속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 표현되었다. 복음 전도자는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

## (2) 창세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는 여자의 후손, 아담, 하와, 가죽옷, 노아, 방주, 씨, 벨기세텍, 한 솥양, 요셉, 유다이다.

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1:31).” 고 감탄하셨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환경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았다. 행복 그 자체였다. 하지만 뱀의

<sup>51</sup> 존 맥아더, *담대한 복음전도*,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41.

거짓 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았다. 그 결과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위해 여자의 후손(창3:15)으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것은 분명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암시이다.”<sup>52</sup>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최초의 복음인 것이다.

② 아담: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롬5:14)” 이라고 했다. 모형이란 단어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 미리 보여주는 어떤 ‘유형’ 이나 ‘양식’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담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다. “바울이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 으로 묘사한 것은 아담이 범죄한 모든 인류의 대표인 것과 같이 오실 자 예수님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 구원받는 모든 자의 대표가 됨을 보여준다.”<sup>53</sup>

바울은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언급한 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롬5:15)” 고 말씀했다. 이것은 분명히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주석가 핸드릭슨 역시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아담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바로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고 설명한다.”<sup>54</sup> 아담은 분명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sup>52</sup> Ibid., 108.

<sup>53</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창세기 제1-11장, 438.

<sup>54</sup> 윌럼 핸드릭슨, *핸드릭슨 성경주석 로마서(상)*, 손종국 역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83), 248.

③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 아담은 너무 기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2:23)” 고 고백했다. 이 때 성경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창3:20)” 고 말씀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왜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느냐? 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 기동연은 “창3:20은 창3:15에 대한 아담의 반응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창3:9-19의 내용은 징벌인데, 오직 창3:15만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창3:15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무찌르고 인간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줄 것을 예고하였고, 이에 대해 아담은 창3:20에서 그 하와에게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불렀다. 아담이 창3:15을 믿음을 받아 들였다는 증거이다. 디모데전서 2:15는 이런 의미를 잘 반영해 준다”<sup>55</sup> 고 설명한다.

이는 아담이 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소망하는 중에 배필로 여자를 얻었을 때 너무 기뻐서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 인간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야를 보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와라고 지었다는 것이다.

④ 가죽옷: 하나님께서 금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웠다(창3:7). 무화과나무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가리개였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었다(창 3:21).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최초의 옷이다. “옷을 짓기 위해 가죽이 사용된 것은 인간을 위해 짐승이 피흘리고 죽어간 것을 보여준다. 장차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

<sup>55</sup> 기동연, *창조부터 바벨까지* (서울: 생명의 양식, 2009), 151.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있을 것을 예표한다.”<sup>56</sup>

히브리서 기자는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9:22)” 고 말씀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준 것은 온 인류의 수치스러운 죄악을 가려주고 사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피흘려 주실 것을 예표한 사건이다. 이런 점에서 가죽옷은 장차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만 가려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수치)를 가려주고 사해주시는 진정한 가죽옷이 되신다.

⑤ 노아: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며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창6:5-7). 하나님의 홍수심판으로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었다(창8:21-22). 하지만 노아와 가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창8:23). 이것에 대해 기동연은 “창세기 6:18절에서 하나님은 언약 체결의 당사자로 노아를 지목하며 노아를 이 언약의 대표로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노아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 제2의 아담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다.”<sup>57</sup> 고 설명한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탄생한 첫 인류의 역사는 끝을 내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새 인류를 시작하셨다. 노아는 아담부터 시작된 첫 인류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제2의 아담이 되었다. “노아는 홍수 대심판에서도 구원을

<sup>56</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창세기 제1-11장, 289.

<sup>57</sup> 기동연, 창조부터 바벨까지, 299.

받았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크나큰 영예를 누렸던 것이다.”<sup>58</sup>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새 인류를 시작하신 분이다.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그 뒤를 이은 노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⑥ 방주: 하나님께서 온 땅을 홍수로 멸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설계도면을 주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다(창6:14).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창7:1).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땅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모두 멸하실 때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만 구원을 얻었다. 방주만이 홍수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처소였다.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방주였다. “노아의 방주는 역시 세례 및 구원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sup>59</sup> 홍수심판의 때에 노아의 방주가 유일한 안식처요 피난처가 된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에 유일한 안식처요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런 점에서 노아가 만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다.

⑦ 씨: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다.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씨)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창15:4).” 고 약속했다.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창22:18).” 고 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이삭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창26:4)” 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모든 족속이

<sup>58</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창세기 제1-11장, 527.

<sup>59</sup> 반더발, 반더발 성경연구1, 122.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28:14)” 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갈3:16)” 고 말씀했다.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씨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천한 만민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⑧ 멜기세덱: 성경은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 소개한다(창14:18).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땅에 살았는데 다른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람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훈련된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그를 구했다.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다.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기쁘게 축복해 주었다. 아브라함은 감사의 표현으로 그에게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주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그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히7:1).” 고 했다. 또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히7:3)” 고 했다. 또 시110편4절을 인용하여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히7:17)” 고 하였다. “멜기세덱은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으로로서 장차 오시게 될 만왕의 왕이시며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sup>60</sup>

⑨ 한 숫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 그 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멈추도록 명령했다.

<sup>60</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창세기 제12-25장, 129-30.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었다(창22:13).” 그것을 아들 이삭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숫양은 훗날 인류의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다(히11:19).”<sup>61</sup>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숫양을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셨다.

⑩ 요셉: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으면서 살았다. 어느 날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신들을 찾아온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 넘겼다(창37:28). 억울하게 죄 없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애굽 총리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다.

요셉은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여 지는 인물이다. 죄 없는 그가 형들에게 은20에 팔려간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도 12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에 의해 은30에 팔리셨다(마26:15).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눅23:34).” 라고 기도하셨다.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50:20).” 라고 고백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이런 점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

<sup>61</sup> Ibid., 488.

⑪ 유다: 유다는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의 넷째 아들이다. 야곱은 유다를 향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49:10)” 라고 예언을 하였다. “규는 일반적으로 지팡이를 나타내나 상징적으로는 ‘권세’ (시125:3)라는 뜻이 있다. 여기서는 왕권 혹은 통치권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유다 지파가 계속적으로 왕권을 계승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하지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룬다고 했다. ‘실로’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sup>62</sup>

마태는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말씀한다(마1:3). 하나님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유다였지만 그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다.

### 출애굽기

창세기가 복음(구원)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복음(구원)의 성취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구원해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삼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 (1) 출애굽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의 형성을 위해 요셉과 야곱을 입애굽하게 하셨다. 430여 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대로 큰 민족이

<sup>62</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창세기 제37-50장, 627.

되었다(출1:7).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 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19:5-6).”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세 가지로 분명히 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제사장 나라이다. “조병호는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출 12:21~22),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레 6:7),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함이 있는 나라(레 19:9~10),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레 19:33~34),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출 25:22)이다.”<sup>63</sup> 고 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다. 제사장 나라는 복음전도의 사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모든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사람들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와서 섬기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이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이다.

---

<sup>63</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47-48.

존 맥아더는 그의 책 「담대한 복음전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크게 3가지인데 곧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세우시기 위해, 새 언약을 나타내시기 위해이다. 이외 복음전도와 관련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이다.<sup>64</sup>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2:9)”라고 분명히 밝혔다.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에 살던 사람들이요 죄와 사람의 권세에 짓눌려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려 하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신 이유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롬2:18-19).” 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죄의 종살이를 하다가 구원받은 오늘날의 성도나 동일한 것이다. 복음전도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

<sup>64</sup> 맥아더, *담대한 복음전도*, 42.

## (2) 출애굽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 갈대상자, 유월절 양, 만나, 성막, 언약궤, 진설병, 등잔대, 성막덮개, 휘장, 십계명, 두 돌판, 속죄소이다.

① 모세: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왕에게 붙들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인물이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란 뜻이다(출2:10). “오늘날 성도라 불리우는 모든 사람들도 마치 모세와 같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다.”<sup>65</sup> 모세와 예수님은 유사한 점이 많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맞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했다. 또한 모세가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했던(히11:24-25).” 것 처럼 예수님도 하늘보좌를 버리고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모세가 많은 이적을 행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하셨다.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의 종이었던 온 인류를 이끌어 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한 것처럼(출3:10) 예수님을 보내어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점에서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인물이다. 모세 스스로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고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sup>65</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출애굽기 제1-12a장, 93.

은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고 말하였다(히3:5).

② 갈대상자: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했을 때 모세는 태어났다. 생후 3개월 때 그는 갈대상자에 넣어진 채 나일강에 던져졌다. 그에게 갈대상자는 유일한 안식처요 구원의 도구였다. “상자라는 단어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와 모세를 태운 상자를 가리킬 때 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특별한 단어였다. 이로 볼 때 모세를 위하여 만들었던 갈대상자 역시 노아의 방주처럼 역청까지 발라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 하나의 완전한 방주였다.”<sup>66</sup> 하나님은 갈대상자를 만들게 해서 아기 모세를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으로 남겨놓으셨다. “하나님께서도 오늘에도 ‘구원의 방주’ 를 허락하셨다. 노아의 가족을 ‘жат나무 방주(창7:14)’ 로 구원하시고, 모세를 ‘갈대상자 방주로’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교회방주’ 를 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신다.”<sup>67</sup>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모세가 갈대상자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교회) 안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

③ 유월절 양: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재앙 곧 모든 처음 난 동물과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다.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집문설주에 바름으로 무서운 장자의 재앙을 피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유월절로 정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민9:2)” 고 명령하셨다. “출애굽 성도들이 취한 어린 양의 피가 애굽

---

<sup>66</sup> Ibid., 85.

<sup>67</sup> Ibid.

노예생활로부터의 해방과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단이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죄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는 구속의 수단이라는 것이다.”<sup>68</sup>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날이다.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돌아가셨다(요19:14).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전5:7).” 고 말씀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최종적인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sup>69</sup>

④ 만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고 살았다(출16:35).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이었다. “광야에서의 만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영적인 떡을 먹었다고 선언하였다(고전10:3).”<sup>70</sup> 만나와 예수님은 유사한 점이 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양식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로서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친히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요6:33)” 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 떡을 항상 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했다(요6:35). 만나는 잠시 후 또 다시 기근을 느끼는 땅의 양식이라면 예수님은 영원토록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

<sup>68</sup> Ibid., 638.

<sup>69</sup> 반더발, *반더발 성경연구1*, 194.

<sup>70</sup> Ibid., 219.

하늘의 양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서 오신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참된 하늘의 만나이다.

⑤ 성막: 성막은 3가지 역할을 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였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출25:8)” 라고 말씀하셨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었다. 둘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의 장소였다. 하나님은 모세와의 만남의 장소가 회막(성막)이었다(레1:1). 하나님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출29:42).” 고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였다. 하나님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레1:4).” 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 두 개가 율법과 성막(성전)이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생활의 지침이었다면, 성막은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장소였다. 성막은 예수님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셨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의 장소가 성막이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신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가 성막이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런 점에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⑥ 언약궤: 언약궤는 구약시대 성막 지성소 안에 보관되었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물이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었다(히9:4).”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지는 소실되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왕상8:9)” 고 말씀한다. 언약궤는 단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민14:44). 또한 그들의 광야 길을 40년 동안 인도하였다.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 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쉼 곳을 찾았다(민10:30).” 고 말씀했다. ‘언약궤’가 언제나 앞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언제나 인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언약궤는 예수님과 유사한 점이 있다. 언약궤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인도자로서의 언약궤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요10:11).” 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 고 말씀하셨다.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요 그림자이다.

⑦ 진설병: “진설병은 ‘얼굴 앞의 떡’ 혹은 ‘임재의 떡’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71</sup> 하나님은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출 25:30).” 고 말씀하셨다.

진설병은 “일차적으로는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으며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제공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sup>72</sup> 항상 변함없이 성소에 차려진 진설병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요6:48)”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항상

<sup>71</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출애굽기 제25-40장, 68.

<sup>72</sup> Ibid.

우리과 교체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다.

⑧ 등잔대: 하나님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라고 하셨다(출25:31). 성막 내부는 앞뒤좌우뿐 아니라 위에도 몇 개의 덮개로 덮여 있어서 항상 어두웠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어둠을 밝혀 줄 수 있는 빛이 필요하였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레24:3).” 그러므로 제사장은 항상 성막 안이 어둡지 않도록 불을 켜는 일을 성실히 감당했다. “등대가 상징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깨어 지킨다는 것이다. 그 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어두움을 추방하신다. 그 등대는 성막 안에서 아름다운 정경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즉 등대는 빛을 주는 살구나무로서 금빛으로 아름답게 반짝였을 것이다.”<sup>73</sup> 또한 “등대는 종종 빛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sup>74</sup>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요8:12)” 라고 말씀하셨다. 구약시대 성소에 있었던 등잔대에서 불을 켜서 밝혔던 것처럼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밝혀주셨다.

⑨ 성막덮개: 하나님은 성막의 덮개를 만들라고 하셨다(출26:7-14). 특별히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출26:14)” 라고 했다. “붉게 물들인 것은 훗날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을 상징하는 듯하다.”<sup>75</sup> 붉게 물들인 숫양의 덮개를 덮어서 성막을 보호했듯이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이

<sup>73</sup> 반더발, *반더발 성경연구1*, 239.

<sup>74</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출애굽기 제25-40장*, 73.

<sup>75</sup> *Ibid.*, 97.

온전히 교회에 덮혀질 때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든든히 성장한다.

⑩ 휘장: 최초의 사람 아담은 처음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였다. 하지만 죄로 인해 직접적인 대화의 길이 막혀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죄인들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휘장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두셨다. 지성소와 성소가 휘장으로 나뉘어지듯이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인해 분리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마27:51).” 고 말씀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히10:20).” 고 말씀했다. 즉 휘장이 찢어진 것은 곧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이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짐을 보여준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sup>76</sup>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졌고, 온 인류의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⑪ 십계명 두 돌판(율법):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셨다(출34:28). 십계명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즉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롬10:4)”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시다.

---

<sup>76</sup> Ibid., 692.

⑫ 속죄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언약궤)가 있었다. 그 언약궤(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한다. “속죄소는 ‘가리다’, ‘덮다’ 라는 의미와 함께 ‘죄를 가리어 용서하다’ 는 뜻을 가진 카파르에서 파생된 명사이다.”<sup>77</sup> 속죄소는 인간의 죄를 덮어 용서해 주는 장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사장은 죄사함을 얻기 위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렸다(레16:14).” 이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십계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피를 일곱 번을 뿌렸다는 것이다. “피를 일곱 번씩이나 뿌린 것은 속죄 행위의 완전함을 상징한다.”<sup>78</sup> 죄를 가리어 용서하는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 레위기

레위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며(레27:34),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다.

#### (1) 레위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만남과 사랑과 거룩이다. 첫 번째, 만남은 제사를 통해 잘 나타난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과 만나기 위해 성막을 만드셨고,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범죄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제사에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때가 차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죄인이

---

<sup>77</sup> Ibid., 51.

<sup>78</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레위기 제1-17장, 719.

하나님께서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확실한 길을 열어 주셨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히10:20)” 라고 말씀했다.

두 번째 사랑은 정결의식을 통해 잘 나타난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여자의 출산에 관한 정결의식이 기록되어 있다. 남자 아이를 출산했을 때 40일, 여자 아이를 출산했을 때 80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두었다(레12:1-5). 이것은 출산 후 면역력이 약해진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임을 알 수 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환자에 관한 정결의식이 기록되어 있다. 조병호는 “한센병(나병)의 경우, 한 가지 병의 수많은 증상에 대해 116절이나 긴 내용으로 꼼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위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sup>79</sup> 고 했다. 하나님은 나병환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에 깊이 이해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나병환자 정결의식을 통해 보여주셨다.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있어 병이 회복되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절차가 적힌 레위기 14장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귀중한 ‘복음’ 이다.”<sup>80</sup>

마지막 거룩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말씀에서 잘 나타난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19:2)” 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하나님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줄지 말며(레19:9)” 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sup>79</sup> 조병호,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1), 85.

<sup>80</sup> Ibid.

말며(레19:13)” 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 이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

## (2) 레위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와 대제사장과 절기들이 있다.

① 제사: 레위기에는 다섯 가지의 제사가 기록되었다. 그것은 1)번제(레1장) 2)소제(레2장) 3)화목제(레3장) 4)속죄제(레4장) 5)속건제(레5장)이다. 이 중에 번제는 모든 제사를 대표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던 것을 반영한다(히10:14).”<sup>81</sup>

번제의 순서는 먼저 ‘흠없는 소나 양의 수컷’을 가져오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이 모든 행위는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한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조각난 번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운다(레1:3-9). 이때 중요한 절차가 안수이다. 사람이 안수할 때 죄가 번제물에 옮겨가고 번제물의 죽음을 통해 번제물의 흠이 없음이 사람에게 전가된다. 이처럼 온 인류의 죄(하나님의 진노)가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로 옮겨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것이다(롬1:17).

② 대제사장: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 죄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바로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은 제사를

<sup>81</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레위기 제1-17장, 46.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3:1).” 고 말씀했다. 또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히4:14).” 라고 말씀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희미하게 역할을 했던 사람임에 분명하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막혀 버린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요 대제사장이 되신다.

③ 절기: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후 첫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7월15일~21일)이다.

여기서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다(마26:2). 초실절은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인데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인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전15:20). 오순절은 유대인의 주식인 밀 추수를 감사하는 날인데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행2:1).

### 민수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광야 40년 생활을 기록한 책이다.

#### (1) 민수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민수기의 핵심 사건은 인구조사, 진영배치, 유월절, 가나안 정탐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인구조사는 두 번을 했다. 시내산 출발 전에 한 번, 모압평지에 도착했을 때 한 번을 했다. 1차 때 계수된 총계는 603,550명, 2차 때 계수된 총계는 601,730명이었다. 이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진영배치는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배치했다. 지파들 중심에는 성막이 놓여 졌는데 이것은 성막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다. 성막 중심의 생활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과 일치한다. 또한 언약궤를 앞세우고 길을 갔다(민10:33). 언약궤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 간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이 예수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인 것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유월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보냈다(민9:5).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후 시내산을 출발한 것은 애굽 땅에서 종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출발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탐사건은 가네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 지휘관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에 정탐하러 보낸 사건이다(민13:2).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길 원했지만 불평과 원망만 털어 놓았다. 그 결과 하나님은 정탐한 날 수인 사십 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40년 광야생활을 하게 했다(민14:34). 결국 그들은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히3:19)” 고 말씀하고 있다. 광야 40년 사건은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를 광야에서 멸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사건이다.

## (2) 민수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과 놋뱀, 한 별과 한 규, 소유권이 있다.

①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얻은 일이 두 번 있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서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출17:6).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두 번을 쳐서 물을 얻은 일이 있었다(민20:11). 중동 지역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물은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성경에는 반석을 종종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창세기에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창49:24).” 라고 했고, 시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시18:2)” 라고 고백했다. 바울은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고전10:4).” 고 했다.

②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민21:4-5).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을 죽이셨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모세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민21:8)” 고 말씀하셨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모두 살아났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이 늦뱀 이야기를 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4-15).”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위에 매달아 놓은 늦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③ 한 별과 한 규: 이스라엘은 다섯 번의 전쟁에서 승리(출17:8-16; 민31:1-12; 민21:1-3; 민21:21-32; 민21:33-35)함으로 많은 땅을 차지한 후 드디어 모압 땅에 진을 쳤다. 이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깜짝 놀랐다. 심한 위기감을 느끼고 예언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다. 발람은 4번에 걸쳐 예언을 하지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 발람이 네 번째 한 예언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민24:17).” 이었다.

발람의 예언 속에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무찌르고 멸할 것임이 담겨 있었다. “이 예언은 다윗 때에도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못했다. 발람이 바라보았던 이상을 성취하신 분은 그리스도였다.”<sup>82</sup>

발람의 예언을 성취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생각해 보라.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발람과 같은 이상을 보았던 자들이다. 그들은 새로운 별을 보고 곧 그 현상을 이스라엘의 왕의 탄생과 연결시킬 수 있었다.”<sup>83</sup>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심을 인정하고 동방박사들은 기쁨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이다. 사도 요한은 “여자가 아들을

---

<sup>82</sup> 반더발, *반더발 성경연구1*, 311.

<sup>83</sup> Ibid.

낱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계12:5).” 고 했다.

④ 소유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신 후에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민26:52).” 고 말씀하셨다. 이 때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민27:4).” 라고 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다(민27:7)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또 다른 여호수아 되시는 그리스도 사역의 그림자를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상실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의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이스라엘(교회)을 세우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기업을 이어받을 확고한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sup>84</sup>

## 신명기

신명기는 요단강 동편 모압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마지막 설교이다. “신명기라는 이름은 제 이의 율법 또는 율법의 반복을 의미한다.”<sup>85</sup>

### (1) 신명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신명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언약과 사랑과 기억이다. 첫 번째 단어는 언약이다. 신명기에는 언약이란 단어가 27회 등장한다. 하나님은 거듭 언약을 잊지

---

<sup>84</sup> Ibid., 315.

<sup>85</sup> Ibid., 319.

말라고 거듭 말씀하신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신7:2)” 라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라고 거듭 말씀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답게 모든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도였다. 더 나아가 그들이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어는 사랑이다. 사랑이란 단어가 언약 다음으로 많이 반복된 단어이다. 사랑은 24회 반복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표현되었다. 모세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신1:31)” 라고 고백했다. ‘안는 것 같이’, ‘안으사’ 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였다. 또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인도하셨음을 거듭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다(신1:33).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나안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라는 의도였다.

마지막 단어는 기억이다. 신명기에서 언약과 사랑이란 단어 다음으로 많이 기록된 단어가 기억이다. 총 18회 사용되었다. 그들이 기억할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너는 기억하라(신5:15)”,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신8:18)” 고 거듭 말씀하셨다. 또한 그들이 기억할 것은 광야 40년 생활이었다. “이 사십 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신8:2)”,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신9:7)” 고 말씀하셨다.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다(신15:15; 16:12; 24:18).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자임을 기억할 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2) 신명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도피성이다.

하나님은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 그의 생명을 보전할 도피성을 두게 했다(신4:42). 하나님께서 과실로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도피성을 만든 것이다(민35:15).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함께 담겨진 제도였던 동시에 악은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제도였다.”<sup>86</sup> 도피성은 사람의 생명을 끝까지 살려주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표현한 것처럼 도피성도 그러하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공의를 표현하셨다. 그런 점에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곳이다.

## 두 번째 줄기: 역사서에 계시된 구원스토리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 에스터까지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서는 우리에게 주께서 축복과 저주를 통하여 당신께서 언약하신 바를 어떻게 존속시켜 나가시는 지에 대하여 보여준다.”<sup>87</sup>

<sup>86</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민수기 제26-36장, 520.

<sup>87</sup> 반더발, *반더발 성경연구1*, 77-78.

##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는 만나세대(출애굽한 백성들의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 (1) 여호수아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여호수아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느냐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대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열방 모든 족속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근본 목적이다.<sup>88</sup>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중보자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 백성들에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24:15)” 라고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마친 후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sup>88</sup> 조병호,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성경통독*, 133-34.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은 결과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만나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그들이 세상 열국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국을 섬기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하고 계신다.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과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무력으로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안식을 누렸다면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안식을 누리야 한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서는 복음전도가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임을 알려준다.

## (2) 여호수아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수아와 안식이다.

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이다. “ ‘여호수아’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란 뜻이다. 신약에 와서는 ‘여호수아’란 이름이 ‘예수’로 바뀌어졌다(행7:45; 히4:8). 이러한 이름의 뜻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고, 가나안 족속들과의 거룩한 전쟁을 앞장서 수행한 여호수아의 사역 역시 택함받은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원수 사단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sup>89</sup>

여호수아는 만나세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을 정복한 지도자였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sup>89</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여호수아 제1-12장, 46.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히4:8).” 고 언급했다. 그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지만 참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다른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안식을 주실 날이다. 더 나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날 완전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② 안식: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창2:2-3). “안식은 지으시던 일 즉 창조의 역사를 마치셨을 때에 취하셨다. 그러나 그 지으신 일이 3장에서는 파괴되었다. 이는 안식이 깨어졌음을 의미한다.”<sup>90</sup>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전쟁과 각 지파별 땅 분배를 마친 후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수21:44).”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지만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다(히4:9).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어진 안식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되고도 항구적인 안식을 주실 수가 있다.”<sup>91</sup>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식하게 되는 모습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여호수아는 만나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여 승리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렸듯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안식을

<sup>90</sup> 유도순, *구약성경 파노라마* (서울: 머릿돌, 2001), 52.

<sup>91</sup> Ibid., 53.

누리게 하실 것이다.

### 사사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300년간 사사들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다.

#### (1) 사사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만나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의 문화를 따라 점차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들었다. 결국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죽은 후 남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삿2:10).

그들의 죄악은 거듭 순환되었다. 죄(우상숭배) - 심판(노예생활) - 회개(부르짖음) - 구원(사사보냄) - 평온(은혜)으로 이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린 지 몇 년 후 이스라엘 백성은 죄(우상숭배) - 심판(노예생활) - 회개(부르짖음) - 구원(사사보냄) - 평온(은혜)으로 다시 이어졌다. 이렇게 7번이 반복되면서 약 350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사사 12명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사사기에는 범죄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거듭 사사를 보내신 것으로 표현되었다.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마침내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최고의 사랑을 부어 주셨다.

## (2) 사사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사사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사사이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 “사사(judge)라는 말은 법정에서 재판을 주재하는 재판관이나 판사를 의미한다. 재판관은 원수들을 처벌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들을 의미하기도 한다.”<sup>92</sup> 사사들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나라의 압제를 받으면서 여호와께 도움을 구했을 때 그들을 적으로부터 구원해 준 사람들이다. 사사들을 통해 평안을 누렸지만 일시적이었고, 그들의 구원사역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구원을 주시는 사사가 되신다.”<sup>93</sup> 사사들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면 존경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여자 문제로 넘어졌던 삼손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요 사사이다.

## 룻기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끼여 있는 책으로 암흑 같은 사사시대 가운데 한 줄기 아름다운 빛처럼 기록된 책이다.

### (1) 룻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룻기는 단순한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아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 왕이 없던 혼란한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왕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계시해 주고 있는 이야기이다(룻4:22).

<sup>92</sup> 반더발, *반더발 성경연구1*, 370-71.

<sup>93</sup> Ibid.

“룻기는 다윗에 이르러 끝나고 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셨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다.”<sup>94</sup>

룻기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이야기이다(마1:5-6). 하나님께서 창3장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된 지를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책이 룻기다.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다.

## (2) 룻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룻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기업무를 자이다.

룻기에는 ‘기업 무를 자’ 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한다(룻2:20; 3:9; 3:12; 3:13; 4:1; 4:3; 4:6; 4:8; 4:14).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요 모압 여인이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으로 그가 희생을 치르면서 나오미 가정의 기업무를 자가 되어 주었다. “기업 무를 자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잃은 친족을 대신해 그 값을 치르고 기업을 물려 주는 제도이다. 본래 기업을 무르는 제도는 레위기25장 24절~28절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제도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기업 무르는 제도는 모세오경의 율법에 명시된 것을 넘어서 가난한 친척들이나 죽은 친척들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의무들을 포괄하게 되었는데, 룻기에는 이렇게 확대된 개념으로서의 기업무르기의 형태가 나타나고

---

<sup>94</sup> Ibid., 394.

있다.”<sup>95</sup> 보아스와 롯이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후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룻4:14)” 라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무를 자로 보내주셨다. 그 분은 우리의 친족이 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기쁘신 마음으로 자원하여 주셨으며 그 분만이 기업 무를 능력이 있으셨다.”<sup>96</sup>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업무를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진정한 기업무를 자가 되어 주셨다. 롯에게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였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기업 무를 자가 되셨다.

####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던 제사장제도에서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제도로 전환하여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마감과 왕정시대의 시작을 알리면서 사무엘과 사울이 중심인물로 등장한다. 사무엘하는 사울왕의 죽음 이후 다윗왕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열왕기서는 다윗왕이 죽은 후 통일왕국의 분열과 멸망 때까지 통치하던 열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반면 역대기는 다윗왕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자 기록한 책이다.

<sup>95</sup> 조병호,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성경통독*, 151.

<sup>96</sup> 유도순, *구약성경 파노라마*, 66.

(1)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① 사무엘상·하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서는 인간 왕을 세우시고 범죄에 대해 징계를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다. 먼저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지만 백성들은 이방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을 계속 구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이 중심이 되는 왕정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을 중심으로 국가경영이 이루어지는 제사장제도를 주셨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살아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가장 좋은 제도였다.”<sup>97</sup>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제도를 버리고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제도를 구했다. 이것이 그들의 불행의 시작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삼상8:7)” 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구체적인 예를 열거하며 왕정의 실체는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된다는 것’(삼상8:11-18).”<sup>98</sup> 입을 가르쳐 주셨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왕을 구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워줌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 그를 징계하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밋세바를 간음한 일은 하나님께는 큰 해를 끼친

<sup>97</sup> 조병호,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성경통독*, 160.

<sup>98</sup> Ibid.

일이었다. 하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삼하12:14).”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시고 데려가셨다(삼하12:15-19).

그 후에도 다윗의 가정에는 고난이 그치지 않았다. 큰 아들 압살롬이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이로 인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이복형 압살롬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 징계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가도록 하셨다. 다윗은 수년간 고난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가 고백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시39:7).”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 ② 열왕기상 · 하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열왕기상 · 하는 통일왕국으로 시작하여 분열 왕국이 되고 이방나라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여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은 왕위계승과 성전건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왕위계승이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왕상2:2)” 고 유언을 남겼다. 다윗의 유언은 제사장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그가 구한 지혜에 더하여 부와 영광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다(왕상3:13).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왕상3:14)” 라는 약속도 하셨다.

그러나 솔로몬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신앙은 변질되었고, 이방공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했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권면했으나 돌아서지 않았다(왕상11:9-10).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고, 중국에는 패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7:16)” 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는 남북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의 한없는 신실하심을 열왕기서 전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99</sup>

또 하나 열왕기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솔로몬의 기도이다. 솔로몬은 7년 만에 성전건축을 마무리했다. 그가 성전 완공 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겨놓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기도했다(왕상8:22-53). “이 기도의 핵심은 성전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종교적 건물이 아니었다.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에 이 성전이 쓰이길 원하는 기도였다.”<sup>100</sup>

하나님의 마음은 고스란히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기도에 담겼다. 그 내용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구원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 사명은 교회로 옮겨져 왔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복음전도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복음전도는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의 핵심이었고 또한 온 세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했다.

---

<sup>99</sup> Ibid., 221.

<sup>100</sup> Ibid., 210.

(2)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사무엘, 다윗, 성전이다.

① 사무엘: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선지자였다(삼상10:1; 16:13).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이면서 선지자로 사역했다(삼상8:1-2; 행13:20). 또한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 사무엘이 젓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삼상7:9). 이것은 그가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무엘이 선지자와 사사로서의 직무 외에도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부분이다.”<sup>101</sup>

“사무엘상 7장에는 사무엘이 수행했던 역할이 선지자, 제사장, 사사로 1인 3역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선지자로서 선포했으며(3절), 제사장으로 중보기도를 하고(5절), 희생 제사를 드리며 단을 쌓았고(9-10, 17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6, 15-17).”<sup>102</sup> 그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로 사역했다는 점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만한 인물이었다.

② 다윗: 하나님은 사울 왕을 “너희가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삼상12:13; 8:18)” 라고 하셨다. 사울왕의 거듭된 불순종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삼상15:11, 35). 그러나 다윗을 보시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행13:22)” 고 하시면서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 “다윗을 세우셔서 다스리실 신정왕국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명백한 예표였던 것이다.”<sup>103</sup>

<sup>101</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사무엘상 제1-10장, 458.

<sup>102</sup> [http://www.duranno.com/bdictionary/result\\_vision\\_detail.asp](http://www.duranno.com/bdictionary/result_vision_detail.asp) (2019년 12월 20일 접속)

<sup>103</sup> 유도순, *구약성경 파노라마*, 70.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 왕에게 주신 말씀(삼하7:11-16)에 잘 나와 있다.”<sup>104</sup>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7:11-16).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짓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지 않으며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전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스리는 왕을 세워 아들로 삼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영원히 보전하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때가 차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위에 앉으신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막11:9-10).”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사11:1)”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증거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마1:1)” 라고 말했다. “사무엘서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성경에서

<sup>104</sup> 존 팀머, *성경 흐름을 잡아라*, 박혜영 이석열 역 (서울: 홍성사, 2002), 165.

제일 먼저 사용하였다(삼상2:10;16:3,6,12-13; 24:6;26:9, 11, 16, 23; 삼하1:14,16;3:39;19:21). 바로 이 말에서 ‘메시아’ 라는 말이 유래되었다. 이는 왕이 되기 위해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다윗의 기름 부음받음과 왕권 확립은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의 성취인(창49:10)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다(삼하7:12-16;마21:9;22:45).”<sup>105</sup> 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다윗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③ 성전: 구약시대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성막시대를 마감하시고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다.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장차 세워질 영원한 성전의 예표로 주어졌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므로 성취된다. 하지만 그것은 예표에 불과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위에 오르실 것과 그가 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sup>106</sup>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들과 만났다면 이제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신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참 성전(교회)이 세워졌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2:22).” 고 말씀했다.

---

<sup>105</sup> [http://www.duranno.com/bdictionary/result\\_vision\\_detail.asp?cts\\_id=21286](http://www.duranno.com/bdictionary/result_vision_detail.asp?cts_id=21286) (2019년 12월 20일 접속)

<sup>106</sup> 유도순, *구약성경 파노라마*, 76.

## (3) 에스라·느헤미야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열왕기서가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패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음을 보여주는 책이라면 에스라·느헤미야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에스라·느헤미야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포로귀환과 성전 재건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역이었다는 점이다.”<sup>107</sup>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으며(스1:1),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지속할 수 있는 허락을 얻어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스5:5). 에스라와 그 그룹이 예루살렘에 올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으며(스7:27), 길에서 이들을 보호하신 분도 하사님이셨다(스8:22).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으며(느2:8),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모든 일에 도우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느4:14, 20).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포로귀환의 일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주도적으로 했지만 느헤미야서 마지막 부분은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온다.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도망가고(13:10-11),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고(13:15-16),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 백성들은 물론 제사장마저도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모습(13:23-29)을 볼 수 있다.

포로귀환과 성전재건이후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함께 그들의 죄를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

<sup>107</sup>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623.

의지하며 살아갈 백성임과 동시에 개혁을 필요로 하는 백성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회복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사단의 공격이 있으므로 항상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동시에 늘 개혁되어야 할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자기 백성이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는 것이다. 그들이 열방을 섬기며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거듭된 실패를 보게 하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주실 것을 소망하게 한다.

#### (4) 에스더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에스더서는 포로기간 중에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기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에스더라는 여인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에스더서는 성경으로 인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이유는 첫째,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신의 고유명사는커녕 일반적인 신을 가리키는 총칭 명사인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다. 반면에, 이방 페르시아 왕은 167절 안에 무려 190번이나 언급한다. 둘째, 에스더서에는 종교적 요소가 적어 보인다. 예를 들어, 율법, 언약, 성전과 같은 주제는 물론, 심지어는 위기 가운데서 기도로 위함을 극복했다는 언급도 없다. 오히려 에스더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이방 왕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인다(레 19:11을 어긴 것임). 셋째, 등장인물들의 윤리적인 모호성이다. 에스더가 할레받지도 아니한 이방인 데다가 이혼까지 한 왕의 부인이

되기 위해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는 점은 도덕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sup>108</sup> 이 세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도 에스더서가 학자들 사이에서 평가 절하되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A.D 90년 얌니아 회의 때에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가득하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왕후로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에2:17).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에4:14)”고 한 말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한다. 또한 아하수에로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는 중에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의 고발로 사전에 면할 수가 있었던 기사를 읽게 하시고 모르드개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에6:1-14).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악한 계획을 폐하고 왕후 에스더의 소청을 듣고 하만으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에8:1-10).

하나님은 창세기 이후 계속 여자의 후손(창3:15)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지만 사단은 하만과 같은 자들 통해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방해해 왔다. 하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어왔다. 바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어느 누구도 결코 막거나 방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통해서 유대인을 보호하여 주신 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요4:22)”는 말씀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

<sup>108</sup> Ibid., 637-38.

## 세 번째 줄기: 시가서에 계시된 구원스토리

시가서는 읍기·시편·잠언·전도서·아가서를 말한다. 시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와 지혜로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 (1) 읍기·시편·잠언·전도서·아가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 ① 읍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읍기는 의인은 고난 중에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기록한 책이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고난을 참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태도임을 보여준다(벧전2:20-21).

읍은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은 후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읍1:21)” 라고 고백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몸에 났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읍2:10)” 라고 고백했다. 친구 엘리바스의 질책이 섞인 말에는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읍6:9-10)” 라고 고백했다. 이토록 읍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읍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친구 빌닷의 질책이 섞인 말에 읍은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읍9:32-33)” 라고

대답했다. 욥은 중보자가 오셔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변론해 주고 주의 막대기를 떠나가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19:25-26)” 라고 고백했다. “여기서 말하는 대속자는 기업무를 자(룻2:20)의 행위와 관련된 표현이다.”<sup>109</sup>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아무도 도와 줄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한 것이다.

욥기의 주제어가 있다면 고난이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가득 담겨있다. 조병호는 “고난은 인간에게 쓸모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석을 만드는 과정이며, 인간의 아픔과 함께 눈물 흘리시며 많은 것을 사랑으로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늘보석이 되어 간다고 했다.”<sup>110</sup> 욥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하늘보석이 된 인물이었다.

## ② 시편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시편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신실한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150편의 시로 고백한 책이다. 시편에는 온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편이 대부분이지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찬양하는 시편도 많이 있다.

특히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그러하다. 다윗은 시편의 약 절반가량인 73편을 기록하였다. 그는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시로

<sup>109</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욥기 제15-31장, 236.

<sup>110</sup> 조병호,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성경통독*, 237.

찬양하고 증거하고 있다. “이 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눅24:44)”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시편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역사의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111</sup> 김성욱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선교메시지」란 주제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시편은 선교의 관점에서 보지 않아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책 중의 하나이다. 시편에서는 구원의 보편적인 내용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는 선교 메시지요 도전이다. 시편가운데,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메시야에 대한 시편들은, 예를 들면, 시2, 시118:22-23 등은 시인이 바라보는 열국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노래함에서 인간구원의 선교메시지이며, 시67:2의 “주의 도를 땅위에 주의 구원을 만민중에 알리소서” 라는 기도는 소위 “구약의 주기도문” 으로 불리며 구약에서 선교가 가장 잘 나타난 본문으로 여겨진다.<sup>112</sup>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 특별히 다윗은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시22:1)” 라는 표현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고 있다. 또한 다윗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시69:21)” 라는 표현을 하면서 장차 주님께서 신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마실 것을 계시해 주고 있다. 다윗은 거듭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열방을 향해 시로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것이다. 시편은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sup>111</sup> 유도순, *구약성경 파노라마*, 128.

<sup>112</sup> <http://www.missionews.co.kr/news/25210> (2019년 12월 20일 접속).

담겨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 ③ 잠언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잠언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쳐주시는 책이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두 부류의 삶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악한 자의 길과 선한 자의 길(잠2:12-20),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잠3:33),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잠4:18-19)을 대조하고 있다. 누가 선한 자의 길, 의인의 집, 의인의 길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는 자라고 말씀한다(잠4:7; 8:33).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뢰하는 것이며(잠1:7; 15:33; 16:3; 19:23)”, “인간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 것이며(잠30:2-4)”,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며(잠11:6; 20:23)”,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잠3:27-28; 11:25; 14:31), ” 훈계와 징계받기를 즐겨하는 것이며(잠3:12; 12:1; 13:1),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것이며(잠10:11; 10:19; 20:15; 21:23)”, “부지런히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며(잠6:6-11; 10:4-5)”,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며(잠13:20; 22:24-25; 27:17)”, “지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며(잠24:1-1; 24:19-20)”, “어리석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며(잠4:23-27; 5:7-8)”,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며(잠16:32; 25:15; 29:11)” 라고 표현되었다.”<sup>113</sup>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잠언서에는 가득 담겨 있다. 무엇보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의인의 길, 의인의 집, 선한 자의 길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sup>113</sup> 조병호,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성경통독*, 213-16.

## ④ 아가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변함없이 영원하고 순결한 사랑을 표현한 책이다.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이요(아1:5-6), 서로에 대해 집중하는 사랑이요(아2:2-3), 세밀한 관심과 배려를 하는 사랑이요(아2:6-7), 동행하는 사랑이요(아2:10-13),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요(아4:7), 죽음까지도 이기는 사랑(아8:6-7)임을 말하고 있다.”<sup>114</sup> 두 사람의 사랑은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다. 과연 이런 사랑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조병호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아가서에 흐르는 이 사랑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특히 인생들을 향한 사랑과도 같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베푸신 사랑,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큰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sup>115</sup>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지극히 아름다운 사랑을 보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 올리지 않을 수 없다. 두 사람의 사랑 속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엿보인다.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빼앗거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표현이 되었다. 그 큰 사랑으로 온 인류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 계속해서 모든 족속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신부로 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가서에는 담겨 있다.

## ⑤ 전도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전도서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노년에 사람의 참된 본문이

---

<sup>114</sup> Ibid., 217-19.

<sup>115</sup> Ibid.

무엇인지를 기록한 책이다. “인생에서 최대의 비용을 지출하고 난 후 인생이 무엇인지를 써 놓은 책이 바로 ‘전도서’이다.”<sup>116</sup> 전도서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1:2)” 라고 고백함으로 시작한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한 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전3:1-2).” 라고 고백했다.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때를 언급한 저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전12:1)”,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전12:13).” 고 끝을 맺는다.

전도서는 사람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그것은 인생의 허무함과 삶과 죽음의 때가 있으니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다. 생이 마감할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함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잠언에는 담겨 있다.

## (2) 욥기·시편·잠언·전도서·아가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① 대속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욥1:1). 그러한 그가 갑자기 모든 재산과 자녀마저 잃었을 때 친구들에게 위로는 커녕 수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욥19:25)” 고 고백했다. “대속자는 히브리어로 ‘고엘’ 이다.

<sup>116</sup> 조병호,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성경통독*, 223.

룻기서에서는 기업무를 자로 표현되어 있다.”<sup>117</sup> “욥은 인간의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대속자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성숙된 신앙을 가졌던 것이다. 이는 성부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연상케 한다.”<sup>118</sup> 욥은 고난 중에서 대속자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것이다. “헨델의 “메시아”를 통하여 “내 주는 살아 계시고”라는 욥의 고백이 신약 시대의 교회에 널리 알려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sup>119</sup>

② 기름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시2:2).” 라고 했다. 여기서 “기름부음 받은 자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며 그에 대항하는 ‘군왕들’ 과 ‘관원들’ 은 하나님 나라의 참되고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언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20</sup>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로 묘사한 신약의 구절들을 읽을 때 시편2편을 생각해야 한다.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그것이 시편2편에서처럼 기름부음 받은 자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으신 왕이시다.”<sup>121</sup>

③ 지혜: 잠언서에는 지혜라는 말이 123회 사용되었다. 그 지혜가 한 인격체로 종종 표현되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잠1:20). 또한 지혜가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sup>117</sup> 유도순, *구약성경 파노라마*, 125.

<sup>118</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욥기 제15-31장, 235.

<sup>119</sup> 반더발, *반더발 성경연구2*, 44.

<sup>120</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욥기 제15-31장, 77.

<sup>121</sup> 반더발, *반더발 성경연구2*, 100.

너희에게 보이리라(잠1:23).” 고 말씀하고 있다. 특히 지혜가 한 인격체로 마치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잠8:1)” 고 말하며,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잠9:5-6)”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라(마22:3).’ 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와 일치한다. 궁극적인 지혜란 그리스도에게로 귀착된다.”<sup>122</sup>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고전1:30)”<sup>123</sup> 잠언서에는 지혜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명철도 얻고 생명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④ 솔로몬: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한 사람으로 다윗의 아들이다. 그는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3대 왕이 되었고 성전을 건축하였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부과 영광과 권세와 함께 지혜를 얻은 왕이 되었다.

“솔로몬(아1:1)이란 이름은 ‘살롬’ 즉 ‘평강’ 이란 뜻이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솔로몬은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이름을 ‘여디디야’ (삼하12:15)라 하셨는데 이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3:17)고 하신 말씀과 상통한다.”<sup>124</sup>

<sup>122</sup> 유도순, *구약성경 파노라마*, 134.

<sup>123</sup> 반더발, *반더발 성경연구2*, 109.

<sup>124</sup> 유도순, *구약성경 파노라마*, 142.

## 네 번째 줄기: 선지서에 계시된 구원스토리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총 1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지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기록한 책이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 김성욱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선교메시지」란 주제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야와 관련된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의 사상들을 분명하게 피력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 선교사역의 중요한 모델이 된다고 볼 수 있다.<sup>125</sup>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 그들이 열방을 섬기고 구원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다. 구약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심판 후에 있을 남은 자를 통한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끝맺고 있다.

### (1) 선지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 ① 아모스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아모스서는 정치적 안정과 물질적 풍요 속에 영적으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를 기록한 책이다. 드고아 지방의 목자에 불과한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나라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한다.

<sup>125</sup> <http://www.missionews.co.kr/news/25210> (2019년 12월 20일 접속)

그 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대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뇌물을 받고 불의하게 재판을 했으며(암2:6), 음행이 가득했고(암2:7), 부자들은 사치를 일삼았으며(암6:4-6), 거짓 제사장들이 득세하였다.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면에서 폭탄선언을 하고 있다(암3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서 그 역사적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sup>126</sup>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 “공의를 쓴 썩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암5:7)” 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5:24)”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암9:11).” 라고 말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부흥기였던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게 된다는 예언이다. “야고보가 본문의 내용을 인용하여 이방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함을 밝히는 내용이 제시되었다(행15:16).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열방의 모든 백성들로 구성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sup>127</sup> 이어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sup>126</sup> 조병호,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성경통독*, 258.

<sup>127</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아모스 나훔*, 500.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암9:12).” 고 선포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 만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즉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28</sup>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제사장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적 번영 속에서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을 아모스서는 보여준다.

## ② 호세아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호세아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시며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책이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선지자라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선지자였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주신 이름은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흠으신다’는 뜻이고, ‘로루하마’는 ‘공홀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란 의미이며,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였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다는 말이었다.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하고 하셨는데, 꾀에 빠져 창녀가 된 고멜을 또 가서 값을 지불하고 속량해 오라고 말씀하셨(암3:1-2). 그리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sup>128</sup> Ibid., 501.

그리하리라(암3:3).”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다.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부터 가르쳐 주며 기르신 것도, 그들을 향해 진노하고 경고하신 것도, 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더욱 멀리 떠나려고만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존심마저 버리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다(호14:4-8).<sup>129</sup>

하나님의 사랑은 호세아를 통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계획이 중단됨이 없이 성취해 나갈 것을 말씀함으로 표현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암1:10).”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창22:17-18)인데,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때가 차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5:8).” 라고 말씀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도들은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지금도 복음전도를 통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불러 모으고 계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이다. 반드시 복음전도를 통해 온

<sup>129</sup> 조병호,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성경통독*, 261.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있다.

### ③ 요나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요나서는 자기 백성을 패망시킨 이방 나라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다. “아모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전하고 있었던 그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향해서도 새로운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고자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선지자 요나를 보낸 내용이 요나서이다.”<sup>130</sup>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방인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요나서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러나 요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은 누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선지자 요나조차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셔서 3일 동안 보내게 하심으로 니느웨로 가게 하셨다. 그는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욘3:4).” 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놀랍게도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니느웨 왕과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 때 니느웨 성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긍휼을 베푸셨다. 자기 민족을 패망시킨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못마땅한 속마음을 표현했다. 그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 하나님은 박 녁쿨을 준비해 주셔서 태양의 열기로부터 요나가 편안한 쉼을 얻도록 해 주었다. 그 후 벌레를 준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박 녁쿨을 갉아먹고 사라지게 하셨다. 요나는 화를 내며 죽기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녁쿨을

---

<sup>130</sup> Ibid.

아졌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욘4:10-11)” 라고 말씀하셨다. 요나는 그 때서야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조병호는 하나님의 열심, 해외선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요나와 같은 선지자를 많이 보내고 싶으셨다.<sup>131</sup>

요나서에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하나님은 수 천 년 전부터 변함없는 열심으로 온 세상 족속들이 구원받도록 요나와 같은 사람들을 세계 곳곳으로 보내셨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생겨났고,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국교회를 통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세계 곳곳으로 사람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온 세상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계신다. 복음전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소원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책이 요나서이다.

#### ④ 이사야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이사야서는 타락한 남유다와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거룩한 씨(남은 자) 통한 구원과 회복을 기록한 책이다.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사1:3)” 라고 말했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는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이심을 즐기치게 전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선포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절망하며 탄식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찬 계획을 선포했다.

<sup>131</sup> Ibid., 262.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사2:2).”

“ ‘말일’ 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만방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교회 시대와 재림 이후의 메시아 시대라는 두 시대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영광된 미래를 예언한 것이다.”<sup>132</sup>

이사야서는 1-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기록했고 40-6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이 담겨있다. 앞부분은 공의의 하나님을 묘사했다면, 뒷부분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사야서에는 ‘구원’ 이란 단어가 58번이 나온다. 다른 선지서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등장한다. 이것은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구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부 이사야 9장에서는 강하고 능력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는 연약한 순 같은 예수님의 모습, 고통 앞에 처해져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책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sup>133</sup>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사53:5-6).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표현된 것이다. 사53장에서 표현된 고난 받는 종의 모습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이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

<sup>132</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이사야 제1-10장, 149.

<sup>133</sup> 조병호,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성경통독, 280.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 이 땅 위에 실현되었다.”<sup>134</sup>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관해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다.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사43:12).” 라고 말씀하셨다. 동시에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거듭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사1:18).” 고 희망찬 약속까지 전했다. 이것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초청을 듣고 나아오기만 하면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지금도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죄사함의 약속은 유효하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죄 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선포할 사명이 있다.

##### ⑤ 미가서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미가서는 타락한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심어주기 기록한 책이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다면 미가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sup>134</sup> Ibid., 281.

선지자였다. 미가 선지자는 주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책망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아 들으라(미3:1).” 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으며, 선지자들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미3:5).” 라고 부르며 그들은 죄악을 지적하였으며, 제사장들은 “살을 위하여 교훈하며(미3:11).” 라고 지적하며 그들 모두의 심판을 선포했다. 미가는 그들을 향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6:8)” 고 강조했다.

그 시대에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는 없었다. 그러면서 그는 참된 통치자가 장차 오심을 예언했다. 그 분은 창3장15절에서부터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였다. 미가는 그 분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미5:2).” 고 말했다. 이 말씀은 주변 열강들의 억압과 타락한 지도자들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이다. 미가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미7:20).” 고 끝을 맺고 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은 미워하시고 심판하셨지만 끝내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다. 미가서에도 변함없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⑤ 스바냐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구원의 날임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는 책이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의 날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다(슌1:18; 2:2,3).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이스라엘을 넘어 사방의 여러 나라들로 이어질 것을 선포한다(슌2:4-15). 특별히 장차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슌1:2)” 고 말씀하신 것은 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땅은 홍수 심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상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sup>135</sup>

스바냐 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방 나라들이 망함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었을 뿐이었다. 장차 온 인류를 향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슌3:17).” 고 선포하셨다. 온 열방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의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sup>135</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스바냐 학개 말라기, 31.

⑥ 하박국서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하박국서는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려주려고 기록한 책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선지자였다. 악인들의 죄악을 보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이 땅의 악함과 불의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시는가?(합1:2-4)” 라고 질문을 던졌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고 고치기 위해 바벨론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는가?(합1:12-17)” 라고 질문을 던졌다. 하박국은 유대인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바벨론은 형통하고 유대인들은 끊임없는 징계만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의인의 고난도 이해하기 어렵고 악인의 형통도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심판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합2:3). 하나님은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아도 정한 때까지 뿐이고 의인들의 고난도 오래 가는 것이 아니며 악인들에 의하여 의인이 다 죽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합2:4).” 고 선포했다. 하박국은 이 계시를 받고 너무나도 감격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셨다. “이 구절은 바울에게 영감을 주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의에 이를 수 있다는 소중한 구원의 진리를 설교하게 한 것이다.”<sup>136</sup>

<sup>136</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미가-하박국, 469.

신약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 갈3:11; 히10:38)” 는 말씀이 세 번 인용 되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을 따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 고 말씀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는 것은 처음도 믿음이요 나중도 믿음이라는 것이다.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의인은 처음도 이 믿음이요, 과정도 이 믿음이요, 나중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총을 얻음을 선포하고 있다.

하박국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3:17-18).” 라고 말하며 끝을 맺고 있다.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 ⑦ 나훔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나훔서는 앗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교만과 죄악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록한 책이다. “요나서는 대략 B.C 760년경에 기록되었고, 나훔서는 대략 B.C 663-612년 사이에 기록된 책이다”<sup>137</sup> 니느웨는 앗수르의 수도로서 나훔 때로부터 약100년 전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진심으로 회개했던 도시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시 타락하여 다시는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됨으로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나1:1)를 다시 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sup>137</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아모스·나훔, 516.

경고였다.

나훔서는 요나서의 후편과도 같다. 요나서에서는 죄악된 니느웨 성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다면, 나훔서에서는 그들의 교만과 죄악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다. 나훔서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죄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음에 내어 주시면서 인류를 향한 진노를 거두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었다. 사도 바울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6:23).” 라고 선포했다.

#### ⑧ 요엘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요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으로 죄로부터 돌이켜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회개를 촉구함으로 요엘서는 시작한다.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 이란 단어가 다섯 번 등장한다(을1:15; 2:1; 2:11; 2:31; 3:14). 1장에 묘사된 여호와의 날은 메뚜기 재난이었다. 2장에서는 메뚜기 재난을 계속 다루고 있는지 앗수르나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말씀하고 있는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최후 심판의 날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sup>138</sup> 그러나 3장에서 묘사된 여호와의 날은 “사람이 많음이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을3:14).” 라고 표현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sup>138</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요엘·오바다·요나, 107.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묘사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어떤 특정한 날로서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날이다.”<sup>139</sup> 이어서 그 날에 일어날 일을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욘3:15).” 라고 표현한다. 과연 그 날이 언제인가? 조병호는 신약과 요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감람산 강론(마24:29)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요엘서 2장10절, 31절, 3장 15절 등에서 언급된 사건들을 그의 재림의 표적과 연관 지으셨다.<sup>140</sup>

요엘서는 1차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말씀이지만 장차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다. 그때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지만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욘3:16).” 라고 말씀한다. 요엘서에서는 장차 만민에게 부어주실 성령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강림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취임을 증거해 주고 있다(행2:16). 사도행전은 남자들 뿐 아니라 노인들, 여자들,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성령을 내려 주셨지만 제한된 몇몇 사람들에게만 내려 주셨다. 성막 기술자였던 브살렐과 오홀리압(출35:34-35),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칠십인 장로(민11:24-27), 사사들(삿11:29; 13:25), 왕들(삼상10:6; 16:13), 선지자들(겔1:3)과 같은 자들에게만 극히 한정적으로 임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어서 요엘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sup>139</sup> Ibid., 237.

<sup>140</sup> 조병호,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성경통독*, 296.

얻으리니(욘2:32).” 라고 선포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10:13).” 고 증거하였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 것이다.

⑨ 예레미야·예레미야 애가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서는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눈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으로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려고 기록한 책이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바벨론 침략으로 폐허가 되버린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픔을 노래로 표현한 책이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편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좁고 험난한 길을 가게 하였다. 험난한 시대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결혼도 할 수 없었다(렘16:1-2). 그의 일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날들이었는지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며 살았다(렘20:14-18).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렘1:10).” 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사명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와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로 나뉜다. 전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사역이라면 후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관련된 사역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경건한 자(남은 자)로 하여금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는 말씀을 전했다. 바벨론이 공격해 오면 대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라고 했다. 이 말에 소위 애국자인 체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앞잡이로 매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잠깐 동안의 징계를 통하여 쓸 만한 도구로 다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며(렘9:7).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임을 선포했다(렘21:8).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렘23:5-6).” 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그 땅의 지도자들에게서 희망을 거두시고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다.”<sup>141</sup> 타락한 유다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다. 또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렘31:31).” 고 하셨다. 그 내용의 핵심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렘31:33).” 는 것이었다. 돌판에 새겨 지키도록 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었다. 옛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말한다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성취된 언약을 말한다(히9:15).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생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언약이며,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요14:26; 행2:1-4).

예레미야서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자기 동족을 향한 예레미야의 심정이다.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겐 편지를 보내어서 그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를 했다. 그

---

<sup>141</sup> Ibid., 302.

내용의 핵심은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렘29:10).” 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였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렘9:1).” ,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과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렘14:17).” 고 표현되었다. 예레미야가 주야로 흘려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조병호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레미야는 모든 백성들이 모르고 있을 뿐 국가의 멸망은 필연적인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사실에 통곡한다. 이를 숲에서 본다면 그의 눈에 흐르는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가슴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었다.<sup>142</sup>

예레미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는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생일까지 저주했지만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20:9).” 고 고백했다. 주님은 당신의 본심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렘애3:33).” 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었다. 예레미야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라는 것이다. 마지막 날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백성들을 향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구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

<sup>142</sup> Ibid., 299.

⑩ 오바다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오바다서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을 기록한 책이다.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로 더불어 마땅히 서로 협력하면서 살았어야 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려고 할 때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막아서면서 가지 못하게 했다(민20:14-21).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왕상11:14). 에돔은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 유대민족이 아니라 바벨론을 도와주었다(욥1:11). 결국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셨다.

그러나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욥1:17). “이방이 심판을 당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은총을 누릴 것을 예언한 것이다.”<sup>143</sup> 하나님은 온 열방을 심판하는 중에도 당신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오바다서는 “구원 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욥1:21)” 고 끝을 맺고 있다. 이것은 모든 만물과 나라와 족속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다윗도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대상29:12)” 고 고백했으며, 사도 바울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롬11:36)” 라고 고백했다. 이것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소원이다. 이젠

<sup>143</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요엘·오바다·요나, 326.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할 차례이다. 그 방법은 바로 복음전파를 통해서 이루어 질 것임을 확신한다.

#### ⑪ 다니엘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다니엘서는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기록한 책이다.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것은 범죄의 결과였지만 이방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방신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건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과 3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셨다.

다니엘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이유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불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단3:29).” 고 고백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한 것이다.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무시하고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다. 그러나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단6:26-

27).” 고 고백했다.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도록 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단12:3).” 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끝까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심을 다니엘서는 보여준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약속한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바벨론 포로생활처럼 절망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 인생이 될 것이다.

#### ⑫ 에스겔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에스겔서는 포로 기간 동안에 백성들의 죄악을 꾸짖고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다. 에스겔은 너희가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지만 정한 시간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줄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격려하였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겔3:17).” 고 말씀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

그런데 그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겔3:7).”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겔3:9)” 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다.

에스겔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장차 있을 이방나라의 공격을 모형군대와 모형무기들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게 했다. 에스겔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볼모로 잡혀가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그의 짐들을 챙겨 집안의 물건을 싣고 이사를 가는 일도 행하게 하였다.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생활을 하게 된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환상가운데 보여주셨다.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으로 데려가 그곳에 가득한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을 보게 하셨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거하실 수 없는 상태임을 보게 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가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회복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근본적인 회복이요, 그 땅의 죄악 가운데서 깨끗함을 얻는 죄로부터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종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른 뼈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꿈이었다.”<sup>144</sup>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들이 거듭나게 될 것을 말한다.”<sup>145</sup>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을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에스겔 33장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너는 백성들을 주께로

<sup>144</sup> 조병호,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성경통독*, 326.

<sup>145</sup> 유도순, *구약성경 파노라마*, 176.

돌아오게 할 파수꾼임을 설명하면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겔33:8-9)” 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에게 큰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아는 듯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고전9:16)” 고 고백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여호와의 전을 가득 채울 것을 계속 선포했다. 포로생활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희망을 계속 강조함으로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갖도록 하였다. 즉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이었던 에스겔의 사명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어 받아서 신약시대 유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젠 한국교회가 이어 받아서 복음전도라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 ⑬ 학개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학개서는 중단된 성전 건축 사역이 다시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기 위해 기록한 책이다. 바벨론에서 1차 귀환한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시작한 성전건축공사가 극심한 방해로 중단된 지 15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임하였다(학1:1)는 것으로 학개서는 시작한다. 학개1장을 보면 학개는 성전 건축 지연에 대해

책망하면서 다시 열심을 내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격려했다. 학개2장을 보면 학개는 이전 성전을 생각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향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학2:9).” 고 선포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제2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나타날 영광을 가리킨다. 그러나 성전이 진정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영광을 가리킨다.”<sup>146</sup>

학개서는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학2:23) 으로 끝을 맺고 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을 ‘내 종’ 이라 칭하시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스룹바벨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스룹바벨을 인치셔서 당시 포로 귀환한 선민들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을 완수하실 것이다. 이러한 스룹바벨의 사역은 범죄로 사로잡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한다.”<sup>147</sup> 학개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참 성전과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 ⑭ 스가랴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스가랴서는 중단된 성전 건축을 완성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다. 학개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sup>146</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스바냐·학개·말라기, 279.

<sup>147</sup> Ibid., 333.

하느니라(학1:2)” 고 방치된 성전건축을 먼저 언급하였는데 스가라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슁1:2)” 고 조상들이 범한 죄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 것을 권면함으로 시작하고 있다. “스가라와 학개는 유사한 메시지를 전했다지만 그 선포방법은 달랐다. 학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현재 상태를 직시하고 변화할 것을 촉구했다면 스가라는 현재의 상태를 넘어서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바라보라고 촉구했다.”<sup>148</sup> “학개 선지자가 외적인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을 썼다면 학개보다 두 달 후 활동한 스가라는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49</sup>

스가라는 학개와 함께 각자의 방식으로 성전 건축을 계속 하도록 격려했다. 그 결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라6:14.)” 고 성경은 말씀한다. 스가라에는 8가지 환상이 나온다. 그 중에 스가라 5장에 등장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슁5:1-4)과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슁5:5-11) 그리고 스가라 6장에 등장하는 네 병거로 주위의 대적을 물리치고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환상(슁6:1-8)이 있다. “이 환상 안에는 성전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마음을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대로 그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의 중보적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의도였다. 여기에 구원을 베풀 겸손한 왕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그 왕이 예루살렘에 임한다고 말씀하신다(슁9:9).”<sup>150</sup> 하나님께서

<sup>148</sup> 필립 안시, *필립안시와 함께하는 맥잡는 성경읽기*, 임종원 역 (서울: 진흥, 2002), 174.

<sup>149</sup> 유도순, *구약성경 파노라마*, 246.

<sup>150</sup> 조병호,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성경통독*, 344.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장차 오실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스가랴서에는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슥9:9)과 은30에 팔릴 것(슥11:12)이 예언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은30에 팔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 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 스가랴는 이것을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슥14:9)” 고 선포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들어 더욱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라고 촉구했다. 장차 예루살렘은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는 도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예루살렘 계신다는 말을 듣고 만국 백성들이 몰려들 곳이었기 때문이다.”<sup>151</sup>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복음의 빛을 비추는 도성으로 만들었다. 그 후 사도들이 흩어져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 빛이 한 국 땅에 들어와 교회가 세워졌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제사장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 ⑮ 말라기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말라기서는 영적인 나태와 도덕적인 타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sup>151</sup> 양시, *필립안시와 함께하는 맥잡는 성경읽기*, 174.

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여섯 개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과 논쟁을 벌일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회의, 냉소가 많았다. 그 이유는 포로귀환과 성전재건을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기근과 병충해 때문에 경제적인 형편이 나빠졌다. 이런 현실이 계속되자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말1:2), 그들은 하나님이 변했다고 생각했다(말3:6).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는 피곤하고 헛되다고 말하였다(3:14).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여인과 결혼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는 등 마음대로 살았다. 백성들은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다며 십일조도 드리지 않았다(3:8).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표현해 주셨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말1:2),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말1:6),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말1:7),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말2:17),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말3:17),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말3:8).” 고 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4백여 년의 긴 침묵으로 들어간다. 이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마3:3)” 인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셨다.”<sup>152</sup>

말라기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sup>152</sup> 조병호,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성경통독*, 368.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4:5-6)” 고 끝을 맺고 있다.

“선지 엘리야는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요한이었다.”<sup>153</sup>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 그는 주님이 나아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1:29).” 고 외쳤다. 그리고 그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3:2).” 는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해 “다 이루었다(요19:30).” 고 선포하셨다.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15:13).” 고 말씀하셨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만큼 큰 사랑은 없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 는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심으로 표현되었다.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창3:15)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그 이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창22:18; 26:4; 28:14)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16절은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다.

<sup>153</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스바냐·학개·말라기, 545.

하나님의 소원은 그들이 열방을 섬기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지만 제사장나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면서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도록 권면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결국 나라는 이방족속에게 패망하고 민족은 뿔뿔이 흩어져 하나님의 소원이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졌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교훈과 책망과 징계를 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보고 약속하신 대로 참된 구원자요 중보자(히12:24)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류구원을 완성하셨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인류구원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세상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있었기에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온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2) 선지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① 요나의 표적: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그는 다시스로 가버렸다. 그때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삼 일 동안이나 보내게 하심으로 니느웨로 가게 하셨다. 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왕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였다(요나 3:5-10).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표적을 구했다. 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삼 일만에 살아난 것처럼 불신의 세대에게 표적으로 제시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뿐이라는 것이다. 마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마12:40).” 고 표현했다.

②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마1:23).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할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왕에게 징조를 구하도록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임마누엘’ 이란 이름으로 태어날 한 아기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셨다(사7:14). “이것은 남유다 보존 예언을 확증하는 징조이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하스에게 여호와를 믿고 도움을 구하라는 일종의 신앙적 도전임과 동시에 징조를 주심으로써 그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내용이기도 하다.”<sup>154</sup>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의미이다. “아하스에게 한 징조로 주어졌던 이 예언은, 물론 이사야 당대에도 성취되었으나 궁극적인 실현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였다(마1:21).”<sup>155</sup> “사7장16절의 아들이 임마누엘의 예표라는 것은 요셉이나 여호수아 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사실과 관련지을 때 조금도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sup>156</sup>

③ 한 아기: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략을 당할 때 앗수르를 의지한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은 패망을 예언하였다(사8:7-9). 그런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sup>154</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이사야 제1-10장, 418.

<sup>155</sup> 반더발, 반더발 성경연구2, 186.

<sup>156</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이사야 제1-10장, 426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메시아로 표현된 ‘한 아기’, ‘한 아들’ 을 보내 주실 것을 예언하셨다(사9:6).

메시아가 ‘아기’ 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첫째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다는 것이며, 둘째로 제국의 왕의 모습이 아닌 아기처럼 힘이 없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마11:30)으로 태어나실 것을 의미한다. “사9장7절 말씀은 이사야가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한 아이가 바로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준다 하겠다.”<sup>157</sup>

④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의 패망을 선포하면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건설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말씀했다. 그 나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자는 나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나라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는 나라로 이전에 비해 훨씬 자세히 설명했다(사11:6-8). 그 나라를 건설할 메시아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사11:1).” 라고 말씀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 나올 메시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이새의 줄기 즉 다윗 집안으로부터 한 싹이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 위에 일곱 가지의 여호와의 영(사11:2)이 강림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으로 기름부음받은 자인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이 메시아가 평화(shalom)를 가져올 것이다.”<sup>158</sup>

⑤ 구원의 우물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이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sup>157</sup> Ibid., 520.

<sup>158</sup> 반더발, *반더발 성경연구2*, 190.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사12:1-2).”  
 라고 고백하자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사12:3).” 고 말씀하셨다. “구원이 우물로 비유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물이 상징하는 바는 구원 그 자체보다는 구원을 통해 얻는 생명과  
 풍성함이다.”<sup>159</sup> “장막절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날마다 제사장은 황금으로 된  
 물주전자를 준비하였다가 실로암 우물에서 물을 길러온다. 제단 서편에 있는 은으로  
 된 물동이에다 물을 쏟았다. 제사장이 길러온 물을 쏟을 때, 백성들은 이사야의  
 예언(사12:3)을 낭독하였다. 장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7:37). 다윗의 뿌리이시며 유다의  
 사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계신다.”<sup>160</sup>

⑥ 여호와와의 종: “이사야서에서 ‘종의 노래’ 로 불리는 4개의  
 노래(사42:1-4, 49:1-6, 50:4-9, 52:13-53:12)가 나온다. 여호와와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노래하고 있다.”<sup>161</sup>  
 이 여호와와의 종은 누구인가? “신약을 통해 볼 때, 이 여호와와의 종은 비하와 승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명백하다(마12:17-21). 그는 어린 양으로서  
 도살장에 이끌려 가신 분이시다(사53:7) 그는 고난의 길을 따름으로써 승귀케  
 되셨으며(사52:13), 그의 승귀하심을 통하여 자신을 위하여 고통을 받았던 “많은

<sup>159</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이사야 제11-23장, 83.

<sup>160</sup> 코넬리스 반더발, 반더발 성경연구2, 191.

<sup>161</sup> [http://www.duranno.com/bibleco/bibleco\\_view.asp?bbs\\_id=4336](http://www.duranno.com/bibleco/bibleco_view.asp?bbs_id=4336) (2020년 1월 20일 접속)

자” 들을 그와 함께 앉히셨다.”<sup>162</sup>

⑦ 새 언약: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렘31:33).” 고 하셨다.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36:26-27).” 고 하셨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으로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써 새 언약을 성취시키셨다. 그러므로 그는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눅22:20)’ 이란 말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마26:28)’ 란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써 이루어졌고(출24:5), 새 언약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의 피로써 이루어졌다(히7:22; 8:6; 9:18-10:18).”<sup>163</sup>

⑧ 선한 목자: 에스겔은 자기 배만 채우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라고 경고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방나라에게 노략거리)이 된 것은 타락한 이스라엘 목자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겔34:1-8). 하나님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겔34:23).” 고 말씀하셨다. 한 목자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다(요10:11).

<sup>162</sup> 반더발, *반더발 성경연구2*, 223.

<sup>163</sup> 반더발, *반더발 성경연구2*, 278.

⑨ 인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그가 환상가운데 본 인물을 “인자 같은 이” 로 표현했다(단7:13). 옛적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못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였다(단7:14). 사복음서를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82회 사용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종종 ‘인자’ 라고 표현하셨다(마8:20). “인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정을 포괄하는 호칭이다.”<sup>164</sup>

#### 다섯 번째 줄기: 복음서에 계시된 구원스토리

4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말한다. 4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각자의 경험과 지식과 관점으로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 자세히 기록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저자들은 메시아를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4복음서 저자들은 그림자처럼 보였던 그 분이 나사렛 예수이심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다. 저자들마다 나사렛 예수의 출생과 행적에 대한 기록들이나 구약성경을 인용한 횟수나 강조하는 부분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4복음서 저자 모두가 나사렛 예수가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심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다.

(1) 복음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① 마태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

<sup>164</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에스겔 제1-11장, 128.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다. “마태복음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싶어서 쓴 책이다.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약적 지식과 배경을 통해 예수님을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등장한다.”<sup>165</sup>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다. 구약성경에는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씨(창22:18), 다윗의 후손(삼하7:12-16)으로 오실 것으로 약속되어 있다. 따라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믿고 의지하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마1:1)으로 오신 분이심을 가장 먼저 기록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마1:22)”,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마2:23)” 라고 거듭 기록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마8:17)” 라고 말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연히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탄생하신 분이심을 강조한 것이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

<sup>165</sup> 조병호,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성경통독*, 399.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 는 복음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신 주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마태복음 속에서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 ② 마가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마가복음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다. “마가복음은 ‘오실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이룰 왕일 것’ 이라고 오해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 쓴 책이다.”<sup>166</sup>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1:1).” 으로 시작한다. 창세기1장1절이 천지창조의 시작이라면 마가복음 1장1절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그 새로운 창조를 여는 키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기록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마가가 선포하는 새로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건설하는 새로운 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1:15) 너희가 복음을 듣고 항복하면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그러하기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 는 복음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속에는 로마인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

<sup>166</sup> Ibid.

마음이 담겨 있다.

③ 누가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누가복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아들 곧 인자(人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데오빌로 각하’ 라는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기록된 책이다. 특히 누가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메시아임을 밝히고자 했다.”<sup>167</sup>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마가는 복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으로 언급했다면 누가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메시야로 증언한다(24:44).

또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는 종으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했다면 누가는 인자(人子)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록하지 않고 유년기와 소년기를 자세히 언급하면서 족보를 통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연이어서 나온다. 이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들 곧 잃어버린 자를 간절히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강조한 것이다. 그 주님께서 삭게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19:10).”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칠십 인을 세우사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눅10:3).”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신 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24:48).” 말씀하시며 복음전도의 사명을

<sup>167</sup> Ibid., 400.

주셨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간절히 찾아 구원하려 하시는 인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임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요한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요한복음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즉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sup>168</sup>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와 좀 다른 언어로 예수님을 표현한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1:1)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1:14)이며, 만물을 창조한 분(1:3)이며, 생명(1:4)과 빛(1:5)이 되시는 분으로 소개한다. 또한 생명의 떡(요6:35), 세상의 빛(요8:12), 선한 목자(요10:11), 부활이요 생명(요11:25), 참포도나무(요15:1)가 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다.

무엇보다 요한은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 주님께서서 행하신 많은 이적 중에서 7가지만 선별하여 기록한다. 그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요2:1-11), 왕의 신하를 고치신 이적(요4:43-54), 38년된 병자를 고치신 이적(요5:1-9), 오병이어의 이적(요6:1-15), 물 위를 걸으시는 이적(요6:16-21),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이적(요9:1-12),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요11:1-44)이다.

사도 요한은 7가지 이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

<sup>168</sup> Ibid., 401.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3:16),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8:12)고 말씀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20:21).” 고 하시며 복음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요20:31).

## (2) 복음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① 왕: “마태복음의 중심메시지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sup>169</sup>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 다윗 왕가의 계보를 서두에 기록하였다(마1:6-11).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마2:2)” 라고 물었을 때 헤롯왕과 온 백성들은 소동했다. 특히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헤롯왕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당황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마16:28).” 고 말씀하셨다. 또한 “시온 땅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마21:5)” 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고(요일3:8) 하나님

<sup>169</sup> 이동원, *절망의 밤에 본 비전 에서겔서 연구* (서울: 나침반, 2008), 16.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이셨다. 그래서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후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12:28).” 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마27:11)” 고 물었다. “ ‘유대인의 왕’ 이라는 호칭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사용되지 않고 예수에게만 4회 사용되었다(마2:2; 27:11,29,37).”<sup>170</sup> 주님은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마27:37).” 고 되어 있다. 예수님은 죄패에 쓰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계17:14; 19:16).

② 종: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사 수난을 받으시고 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sup>171</sup> “마가복음은 신적 권능을 행하시는 분 및 수난 당하신 종으로서의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서”<sup>172</sup> 라고 한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난 받는 종으로 강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난의 종으로 부각시켰을까요? 첫 창조는 말씀만으로 가능하였으나 재 창조시에는 누군가가 죄 값을 대속해 주어야만 했기 때문이다.”<sup>173</sup> 주님은 공생애 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거듭 자신이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막8:31; 9:9; 9:31; 10:34).

마가는 그 이유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sup>170</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에스겔 제1-11장, 633.

<sup>171</sup> 이동원, *절망의 밤에 본 비전 에서겔서 연구*, 16.

<sup>172</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마가복음 제1-9장, 24.

<sup>173</sup> 유도순, *신약성경 파노라마* (서울: 머릿돌, 2001), 16.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10:45).” 고 말씀했다. 수난 당하신 종으로서의 모습을 정확히 표현한 말씀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하지만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

③ 인자: “누가복음에서 나타내는 ‘인자인 예수님’ 은 사람의 모습이다.”<sup>174</sup> “누가복음은 예수의 완전한 인자되심과 세상 모든 만민을 죄로부터 구속하실 구원자되심을 강조하는 복음서이다.”<sup>175</sup> .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사람, 인자로 강조하고 있다.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하는 언약의 상속자이자 다윗 왕통을 계승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족보에 기록했다면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까지 연결시킴으로써 예수님이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을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한 아담과 비교되는 자, 제2아담으로서 인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롬5:12-19; 고전15:45-47)”<sup>176</sup>

특별히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유년기와 소년기의 기사까지 기록하면서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셨음을 강조한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고 27번이나 표현하셨다(눅5:24; 6:5; 6:22).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을 인류구원을 성취하셨다.

<sup>174</sup> 이동원, *절망의 밤에 본 비전 에스겔서 연구*, 16.

<sup>175</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누가복음 제1-8장, 24.

<sup>176</sup> Ibid., 317.

④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에서 나타낸 예수님은 의완전한 신으로서의 예수님”<sup>177</sup>이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됨을 증거하는 복음서”<sup>178</sup>이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란 이미지로 제시하여 예수님의 선재성과 영원성을 밝힘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다.”<sup>179</sup>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1:29)”이라고 외쳤다.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장면을 보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요1:34).”고 했다. 나dana엘은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요1:49)”라고 고백했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요1:27).”고 고백했다. 저자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20:31)라고 했다.

#### 여섯 번째 줄기: 서신서에 계시된 구원스토리

서신서는 총 22권(바울서신 13권, 일반서신 8권, 요한계시록 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울서신 13권 중 교회에게 보낸 서신은 9권(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이며,

<sup>177</sup> 이동원, *절망의 밤에 본 비전 에스겔서 연구*, 16.

<sup>178</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요한복음 제1-6장*, 24.

<sup>179</sup> *Ibid.*, 51.

개인에게 보낸 서신은 4권(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이다. 일반서신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1,2,3서 유다서까지 총 8권이다.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특징은 서신이다(계1:4).”<sup>180</sup>

(1) 바울서신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① 갈라디아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위한 대선언’ 이라고 불리는 서신이다.”<sup>181</sup>

갈라디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짓교사들이 침투를 하였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이상한 교리를 가르쳤다. 이런 거짓교사들로 말미암아 연약한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때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갈2:16).” 고 했다. 또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갈5:13)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② 데살로니가 전서·후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데살로니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다. 바울이 3주간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sup>180</sup>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6), 30.

<sup>181</sup> 조병호,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성경통독*, 544.

소망의 인내(살전1:3).” 가 풍성했다. 하지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잘못되어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다가 최후 심판의 날에 심판장으로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했다. 이것은 꺾박받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 동시에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재림 신앙을 갖고 열심히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권면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니(살전1:10), 소망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 ③ 고린도 전서·후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여 동안 머물며 개척한 교회다. 그러나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 내 분열과 성적 타락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복음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1:18).” 고 전하였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낸 직후 교회의 상황이 더 악화되자 바울은 부득불 고린도에 직접 방문하였다. 이것이 “두 번째 방문한 ‘가슴아픈 방문(고후2:1)”<sup>182</sup> 이었다.

“바울의 입장에선 완전한 실패작이었다. 성도들은 회개는커녕 바울을 심하게 모욕했다(고후2:5-8; 10; 7:12). 바울은 에베소로 귀환한 후 소위 ‘눈물의 편지’ 또는 ‘혹독한 편지’ 로 불리는 사도서신을 써서 디도 편에 보냈다.”<sup>183</sup> 그 결과

<sup>182</sup> 로버트 H. 건드리, *신약개관*, 이홍성 역 (서울: 크리스찬서적, 1994), 422.

<sup>183</sup> D.A.카슨 외 2인 공저, *신약개론*, 노진준 역 (서울: 은성, 1994), 299.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였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 바울을 사도로 영접하지 않고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였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보내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진리의 진리 위에 다시 서도록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마음이었다.

#### ④ 로마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로마서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칭의이다.”<sup>184</sup> 로마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도 아니요, 로마교회 성도들을 직접 대면한 적도 없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다수이고, 유대인은 소수였지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추방령을 내린 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다수가 되었다(행18:1-3).”<sup>185</sup> 이후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이 생겼다. 또한 아직 성도들 대부분이 복음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롬1:16)”,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롬1:17).” 고 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복음(롬3:22)과 함께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롬8:39)을 전했다. 또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지지 말고(롬13:8),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며(롬15:1) 사랑하도록 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고 동시에 주님의

<sup>184</sup> 건드리, *신약개관*, 430.

<sup>185</sup> 카슨, *신약개론*, 274.

마음이었다.

⑤ 옥중서신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바울이 로마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이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서신 중 가장 사적인 서신이며, 옥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도록 보낸 서신이다.”<sup>186</sup>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의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빌4:4) 살아가도록 보낸 서신이다.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엡1:23).” 으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골1:18).” 고 표현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거짓 교리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연합과 축복을 찬양하고 있다.”<sup>187</sup> 이 둘의 내용은 아주 비슷하여 흔히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sup>188</sup> 옥중서신에는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것은 우릴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

⑥ 목회서신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서·후서와 디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디모데전서·후서는 사도 바울이 참 아들 된 디모데(딤후1:2)가 교회를 잘 섬기도록 보낸 목회지침이며, 디도서는 참 아들 된 디도(딤후1:4)가 교회를 잘 섬기도록 보낸 목회지침이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거짓교사들을 경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딤후1:18), 교회의 지도자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딤후3:6)고 권면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sup>186</sup> Ibid., 441.

<sup>187</sup> 건드리, *신약개관*, 462.

<sup>188</sup> 헨드릭슨, *헨드릭슨 에베소서 상*, 248.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딤후1:8)”,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4:2).” 고 권면했다. 디도서는 그레데섬에 두고 온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를 잘 섬기도록 기록한 서신이다. “그레데 섬의 주민들은 대부분 거짓말쟁이이며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다(딤후1:12-13).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한다’ 라는 말은 ‘거짓말쟁이’ 란 뜻으로 사용될 정도이다.”<sup>189</sup>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거짓교사들이 들어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를 올바른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고(딤후1:5), 복음에 합당한 삶(딤후2:1)과 이단에 대한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한 디도서를 보냈다. 바울이 참 아들이 된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사랑의 서신이 목회서신이였다. 디모데와 디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 (2) 일반서신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 ① 야고보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야고보서는 시험에 대한 인내와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할 참된 믿음을 기록한 서신이다.”<sup>190</sup>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것은 주님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것이요,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이였다. 야고보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고

<sup>189</sup> 조병호,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성경통독*, 593.

<sup>190</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야고보서·요한서신·유다서*, 23.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2:17)” 고 말씀했다. 믿음과 함께 행함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야고보서에는 담겨있다.

### ② 베드로전·후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베드로전서는 AD64년경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대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고난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사도 베드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벧전1:4).”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도록 권면했다.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의 확실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안겨주실 것이며(벧전1:7),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전했다(벧전1:9).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2:9)” 고 말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면서 뜨겁게 사랑하고(벧전4:8),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도록 권면했다(벧전5:10). 고난의 때에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 ③ 히브리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히브리서는 극심한 핍박을 피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서신이다. 1세기 유대계 성도들의 신앙은 진보가 없고, 회의, 침륜, 배교의 위험가운데 있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그들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 부족으로 판단하고 구약시대 동물의 희생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제사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를 설명했다. 또한 예수님은 천사나 구약시대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한 분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새 언약의 큰 대제사장이시며, 유일한 증보자이시며, 구약 율법의 완성자임을 선포하고 있다.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만의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 ④ 요한1서·2서·3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요한1서는 거짓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바른 기독교 진리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요일5:13)이다. 성육신의 진리를 거부하는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3:18).” 라고 강조한다. 요한2서와 요한3서는 당시 순회 전도자에 관한 내용이다. “1세기와 2세기 동안에는 순회전도자들에 의해 복음전파가 이루어졌다. 성도들은 순회 전도자들을 집안에 맞아들여 여행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제공하였다. 요한이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중에서도 거짓교사에 대해서는 분별하여 경계할 것을 당부하는 서신이다.”<sup>191</sup> “요한삼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일서나 이서와 달리 순회 전도자를 접대치 않고 모욕을 주며 그들을 환대하려는 성도들을 내어 쫓기까지 한 교회 내의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

<sup>191</sup> Ibid, 334.

악한 지도자를 경계하고 순회전도자들에게 가이오처럼 선을 행하라는 내용이다.”<sup>192</sup>

요한1서·2서·3서의 공통점은 모두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한일서는 사랑이란 단어가 30회, 요한이서는 4회, 요한삼서는 5회 사용되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 요한일서는 진리란 단어가 7회, 요한이서와 요한삼서는

모두 4회 사용되었다. 사도 요한은 듣고 보고 배운 진리대로 행하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 ⑤ 유다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을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도록 기록한 서신이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유1:4)임을 말했다. 결국 그들은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유1:11)”을 행하다가 멸망한다고 경고했다. “저자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도덕적 타락성을 적나라하게 제시하면서 힘써 믿음의 도를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다.”<sup>193</sup>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터위에 견고해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 ⑥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극심한 고난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보낸 서신이다.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

<sup>192</sup> Ibid.

<sup>193</sup> Ibid., 693.

종말론적 승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sup>194</sup>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계1:1).” 로 시작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밝히 드러내어 주는 책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세상에 아직 악이 존재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지만 장차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멸망하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 으로 27번 사용되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계5:6).” 고 했는데 7장에서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계7:10).” 고 찬송하고 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계22:20).” 고 약속하심으로 끝을 맺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영원히 성도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릴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준다.

신약성경과 복음전도를 정리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인류구원을 위한 구원자 예수그리스도가 그림자처럼 기록되었다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그리스도가 완전히 드러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그가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과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면서 선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하나님의 선교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땅의 저주와 요한계시록22장에 기록된 새

---

<sup>194</sup> 건드리, *신약개관*, 556.

창조에서 그 저주가 종식되는 것 사이에 걸쳐 있다.<sup>195</sup>

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전체를 통해 선교가 정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5:39)” 라고 말씀하셨다. 이 성경은 구약성경은 말한다. 구약성경은 줄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했다는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눅24:44)” 이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다. 복음 전도자는 성경 66권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통으로 이해해야 한다.

조병호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책에서 성경을 ‘시간 공간 인간’ 을 통으로, ‘개인 가정 나라’ 를 통으로, ‘제사장나라 5대제국 하나님 나라’ 를 통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sup>196</sup> 성경전체를 통으로 본다면 그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신약이다.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배웠던 사도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를 전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웠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여 이방 곳곳에 교회를 세웠다. 그 복음이 지금

---

<sup>195</sup> 라이트, *하나님 백성의 선교*, 50.

<sup>196</sup>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36.

우리에게까지 와서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세상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확신한다.

(2) 서신서에 계신된 예수 그리스도

① 하나님의 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롬1:17)” 라고 말씀했다. 이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롬3:21)” 라고 선언한다. 하나님의 의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성에서 벗어나는 자를 멸망시키는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는 길, 즉 칭의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sup>197</sup> 하나님은 이를 위해 대속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란 임기응변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라(롬3:21)” 고 말했으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롬3:22) 우리에게 주어졌다.”<sup>198</sup> 고 말했다.

② 화목제물: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롬3:25)고 말씀했다.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요일2:2; 4:10)이라고 말씀했다. 구약시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속죄제물이 필요했다. 속죄제물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속죄제물로 사용된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히7:27). 때가 되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 제물로 세우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

<sup>197</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로마서 제1-8장, 98.

<sup>198</sup> 유도순, 신약성경 파노라마, 45-47.

③ 교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고백을 듣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마16:18)” 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 ‘교회’ 는 헬라어 ‘에크’ (~로부터)와 ‘칼레오’ (불러내다)의 합성어로 구성된 ‘에클레시아’ 의 번역이다. 즉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 말할 수 있다.”<sup>199</sup> 또한 교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고전12:27, 엡1:23, 골1:12)이요, 성령 하나님의 전이다(고전3:16, 6:19).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공동체이다. 독일의 선교학자 칼 하르텐슈타인(Karl Hartenstein)은 “교회의 본질은 전반적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의 참여와 세계구원을 위한 그의 선교 참여이고 교회는 선교를 통해 존재하며 선교는 교회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무이며 유일한 존재이유이다.” 라고 정의하며, 베델은 “교회는 구원의 방주” 라고 정의한다.”<sup>200</sup> 따라서 무엇보다 복음전도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④ 세례: 예수님은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다(막1:9).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 씻음을 위한 세례가 필요함을 직접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일원으로 인정됨을 상징하는 할례의식을 계승한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세례는 예수의 세례로부터 비롯되었다. 신약의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므로써 죄 씻음과 연합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sup>201</sup>,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씻는 성례인데,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sup>199</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마태복음 제11-20장, 481.

<sup>200</sup> 이종성,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69.

<sup>201</sup>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마태복음 제1-11장, 218.

은혜언약의 모든 은덕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함을 표하며 인치는 것이다.”<sup>202</sup>

⑤ 성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낱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고 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고 하셨다(막14:22-24). 성찬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례이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sup>203</sup>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고전10:16), 성찬 참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하나됨을 보여준다(고전10:17). 또한 예수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함으로 ‘지금도 계시는(히13:8)’ 부활의 그분과 교제함이다.”<sup>204</sup>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그들이 주님과 갖는 연합과 교제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sup>205</sup>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을 전하는 것으로 말하며 설명한다(고전11:23).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경고한다(고전11:29).

⑥ 부활: 부활이란 단어는 신약에만 41회 등장한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

<sup>202</sup>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2011), 236.

<sup>203</sup> Ibid., 240.

<sup>204</sup> 유혜무, *개혁교의학*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521.

<sup>205</sup>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헌법*, 240.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전15:3-4).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즉 십자가와 부활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사로의 경우처럼 단순한 죽음으로부터의 회생이 아니었다. 그의 육체는 완전해져서 더 이상 연약함이나 노쇠 혹은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생명의 ‘첫 열매’ (고전15:20,23)가 되셨다.”<sup>206</sup>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6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첫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게 된다. 둘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과 믿음이 헛되게 된다.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 네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다섯 번째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마지막은 부활이 없다면 신자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전15:13-19).

⑦ 재림: 예수님은 사람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행1:11). “그리스도의 갑작스런, 개인적인, 가시적인, 육체적인 재림이 있을 것이다.”<sup>207</sup> 예수님께서서는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오신다(마24:43; 살전5:2; 벴후3:10). 또한 노아의 때(눅17:26)와 롯의 때(눅17:28)와 같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자기 일에 정신이 빠져서 살아갈 때 주님은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육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오신다(눅21:27; 행1:11; 계1:7). 주님은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계22:12).

“그리스도의 재림에 선행되는 표적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sup>206</sup> 웨인 그루뎀, *성경 핵심교리*, 김광열 외 1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458.

<sup>207</sup> *Ibid.*, 734.

전파되고(마24:14), 대환란(막13:19-20), 이적들과 기사들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마24:23-24), 하늘의 표적들(마24:29-30), 불법의 사람의 임함과 반역(살후2:3)이 있다.”<sup>208</sup>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다(빌3:20).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다. 주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히9:28).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⑧ 최후심판: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딤후4:1). “심판 선포는 신앙/회개로의 강한 초청이다(마3:10; 행10:42). 이 심판이 그리스도의 직무에 속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이다. 심판자가 바로 우리의 구속주이다(시130:3-4).”<sup>209</sup>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다(요5:22).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딤후4:1). 모든 불신자들이 심판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계20:12). 모든 말한 것과 모든 해위는 밝히 드러나며 심판을 받을 것이다(전12:14).”<sup>210</sup> “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롬14:10-12). 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다양한 등급의 보상을 주기 위한 심판이다(고전4:5; 고후5:10; 히11:6). 므나의 비유에서 열 므나를 더 남긴 사람에게는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고 했다. 이것은 최후 심판 때의 신자들에 대한 상급의 차이를 가르치거나 암시한다.”<sup>211</sup>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분명하다면 최후의 심판 역시

---

<sup>208</sup> Ibid., 740-41.

<sup>209</sup> 유혜무, *개혁교의학*, 632-35.

<sup>210</sup> 그루뎀, *성경 핵심교리*, 782.

<sup>211</sup> Ibid., 782-84.

분명히 있을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 분명하다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⑨ 영생: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요17:3). “영생은 영사(永死)에 대비되며(마24:36), 영원한 영광이다(요5:24; 17:3). 영생이란 지금이든 장래든 죽음에 위협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장래의 영생은 지금의 영생과 직결된다.”<sup>212</sup> 영생의 말씀은 주께 있다(요6:68).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될 것이다(요3:36). 영생을 얻으려면 주께 나아가야 한다(요5:40).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롬2:7).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롬6:23). “장래의 영생은 지금의 영생과 직결된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완성이다.”<sup>213</sup>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나라이며 영생이다.

⑩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계21:1).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곳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의가 거하는 곳(벧후3:13)이다. 즉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계21:7)” 는 약속이 완전히 실현된 곳이다.”<sup>214</sup>, “새 하늘과 새 땅은 세계의 폐기가 아니라 갱신을 말한다. 피조물의 해방(롬8:20), 만물이

<sup>212</sup> 유희무, *개혁교의학*, 635-36.

<sup>213</sup> Ibid.

<sup>214</sup> Ibid.

중생(마19:28), 만물의 중생(마19:28), 만유회복(행3:21)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회복을 복귀나 보수 정도로만 생각지 말라. 신천신지의 영광은 첫 천지를 능가할 것이다.”<sup>215</sup> 요한이 밧모섬에서 환상으로 본 새 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며 창조의 갱신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곳이며,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다(계21:4).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

---

<sup>215</sup> Ibid., 636-37.

## 제 IV 장

###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구미제자교회

#### 적용과정

본 연구자는 경북 구미에 있는 구미제자교회에서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를 진행했다. 본 교회는 장년성도가 약 30명 모이는 교회이다.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주중에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2019년 4월부터 6주간 전교인을 대상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서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를 선포했다. 그 후 9월부터 6주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따로 토요일 오전10시에 모여서 교육을 3시간 정도 실시했다.

2020년 1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5일간 집중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했다. 시간은 저녁 7시에 시작해서 2-3시간 정도 진행했다. 대상은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성도들까지 전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참석인원 25-30명이 꾸준히 참석하였다. 교제는 조병호의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성경통독」을 참조하여 교안과 시청각 자료를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지금까지 교육한 결과 지금은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까지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자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혀졌다. 또한 복음전도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깨닫고 자발적인

전도분위기로 이어져 가고 있다.

###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에 대한 이론 강의를 통해 3가지를 분명히 전하려고 노력했다. 가장 먼저 성경 전체에 계시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두 번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다. 마지막으로 복음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임을 전하는데 노력을 했다.

강의를 한 후 참석한 성도들에게 각 줄기에 맞는 질문을 던짐으로 한 번 더 복음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했다. 그 후 한국 교회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5분내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각 줄기 강의 때마다 한 가지씩 강의했다. 전도방법을 강의한 후 참석한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선정하여 불신자와 전도자의 역할을 맡도록 해서 전도실습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뜨겁게 기도한 후 강의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함께 노방전도를 실시했다. 이때 준비물은 전도용품과 전도수첩이며 전도한 후에는 전도한 내용을 문서(사진)로 보고하도록 했다.

#### 1) 각 주차의 Time Schedule

- ① 찬양시간: 약 10분      ② 강의시간: 약 90분      ③ 질문시간: 약 10분
- ④ 기도시간: 약 20분      ⑤ 휴식시간: 약 20분      ⑥ 전도 강의 및 실습: 약 20분
- ⑦ 노방전도: 약 1시간

2)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 6주간 집중 교육 일정표

<표3>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 6주간 집중 교육 일정표

시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찬양 9:00-9:10	부흥 하나님당신의	제자삼오라 부르신곳에서	아바아버지 이제 내가	하늘문여소서 누군가널위해	신실하게 살아계신주	당신의그섬김 주님다시오실
합심기도 9:10-9:20	자신과 교회 사명을 위해	1주차 만남 대상자 위해	2주차 만남 대상자 위해	3주차 만남 대상자 위해	4주차 만남 대상자 위해	5주차 만남 대상자 위해
강의 9:20-10:50	첫 번째 줄기 모세오경	두 번째 줄기 역사서	세 번째 줄기 시가서	네 번째 줄기 선지서	다섯 번째 줄기 복음서	여섯 번째 줄기 서신서
Tea타임 10:50-11:10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질문/답변 11:10-11:30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전도실습 11:30-11:50	백지전도	전도폭발	부스전도	글 없는 책	손가락전도	4영리
합심기도 11:50-12:00	오늘 만날 대상자 위해					
노방전도 12:00-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그림3> 구미제자교회에서 실시한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통한 전도 교육 장면



##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 6주간 집중교육

<표4> 1주차 교육: 첫 번째 줄기(모세오경에 계시된 구원스토리를 통한 전도)

시간	순서	내용
10분	찬양	복음송(2곡): 부흥,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10분	합심기도	자신과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한다.
90분	강의	1. 모세오경에 나타난 구원스토리를 강의한다. 2. 강의내용은 상기에 나온 내용으로 한다.
20분	Tea 타임	간식과 함께 성도간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20분	질문 및 답변	1. 모세오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2. 모세오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3. 오늘 배운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20분	전도 강의 및 실습	백지전도법(부록2) 강의 및 실습을 한다.
10분	합심기도	오늘 만날 전도대상자와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60분	노방전도	모든 강의를 끝나면 함께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1주차에서는 모세오경에 계시된 구원스토리를 통한 전도를 강의한다. ① 찬양시간에 복음전도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찬양 두 곡을 한다. ② 뜨겁게 찬양을 한 후 합심해서 자신과 교회를 향해 복음전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기도한다. ③ 강의시간에는 먼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계시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한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찾아보게 하고 왜 그러한지를 설명한다. ④ 잠깐 휴식 및 간식 타임을 가진다. ⑤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3가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가진다. ⑥ 전도 강의 및 실습은 백지전도법(부록2)을 강의 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전도실습을 진행한다. ⑦ 자신과 교회가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⑧ 모든 강의를 끝나면 함께 1시간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표5> 2주차 교육: 두 번째 줄기(역사서에 게시된 구원스토리를 통한 전도)

시간	순서	내용
10분	찬양	복음송(2곡): 가서 제자 삼으라, 부르신 곳에서
10분	합심기도	1주차에 만난 전도대상자와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90분	강의	1. 역사서에 나타난 구원스토리를 강의한다. 2. 강의내용은 상기에 나온 내용으로 한다.
20분	Tea 타임	간식과 함께 성도간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20분	질문 및 답변	1. 역사서에 게시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2. 역사서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3. 오늘 배운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20분	전도 강의 및 실습	전도폭발(부록3) 강의 및 실습을 한다.
10분	합심기도	자신과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한다.
60분	노방전도	모든 강의를 끝나면 함께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2주차에서는 역사서에 게시된 구원스토리를 통한 전도를 강의한다. ① 찬양시간에 복음전도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찬양을 한다. ② 뜨겁게 찬양을 한 후 합심해서 자신과 교회를 향해 복음전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기도한다. ③ 강의시간에는 먼저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게시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한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찾아보게 하고 왜 그러한지를 설명한다. ④ 잠깐 휴식 및 간식 타임을 가진다. ⑤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3가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가진다. ⑥ 전도 강의 및 실습은 전도폭발(부록3)을 강의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전도실습을 진행한다. ⑦ 자신과 교회가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⑧ 모든 강의를 끝나면 함께 1시간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 &lt;표6&gt; 3주차 교육: 세 번째 줄기(시가서에 게시된 구원스토리를 통한 전도)

시간	순서	내용
10분	찬양	복음송(2곡): 아바아버지, 이제 내가 살아도
10분	합심기도	2주차에 만난 전도대상자와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90분	강의	1. 시가서에 나타난 구원스토리를 강의한다. 2. 강의내용은 상기에 나온 내용으로 한다.
20분	Tea 타임	간식과 함께 성도간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20분	질문 및 답변	1. 시가서에 게시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2. 시가서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3. 오늘 배운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20분	전도 강의 및 실습	부스전도법(부록4) 강의 및 실습을 한다.
10분	합심기도	오늘 만날 전도대상자와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60분	노방전도	모든 강의가 끝나면 함께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3주차에서는 시가서에 게시된 구원스토리를 통한 전도를 강의한다. ① 찬양시간에 복음전도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찬양을 한다. ② 뜨겁게 찬양을 한 후 합심해서 자신과 교회를 향해 복음전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기도한다. ③ 강의시간에는 먼저 읊기에서부터 전도서까지 게시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한다. 그리고 읊기에서 전도서까지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찾아보게 하고 왜 그러한지를 설명한다. ④ 잠깐 휴식 및 간식 타임을 가진다. ⑤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3가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가진다. ⑥ 전도 강의 및 실습은 부스전도법(부록4)을 강의 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전도실습을 진행한다. ⑦ 자신과 교회가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⑧ 모든 강의가 끝나면 함께 1시간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 &lt;표7&gt; 4주차 교육: 네 번째 줄기(선지서에 게시된 구원스토리를 통한 전도)

시간	순서	내용
10분	찬양	복음송(2곡): 하늘의 문 여소서, 누군가 널 위해
10분	합심기도	3주차에 만난 전도대상자와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90분	강의	1. 선지서에 나타난 구원스토리를 강의한다. 2. 강의내용은 상기에 나온 내용으로 한다.
20분	브레이크 타임	간식과 함께 성도간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20분	질문 및 답변	1. 선지서에 게시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2. 선지서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3. 오늘 배운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20분	전도 강의 및 실습	글 없는 책(부록5) 강의 및 실습을 한다.
10분	합심기도	오늘 만날 전도대상자와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60분	노방전도	모든 강의가 끝나면 함께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4주차에서는 선지서에 게시된 구원스토리를 통한 전도를 강의한다. ① 찬양시간에 복음전도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찬양을 한다. ② 뜨겁게 찬양을 한 후 합심해서 자신과 교회를 향해 복음전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기도한다. ③ 강의시간에는 아모스에서 말라기까지 게시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한다. 그리고 아모스부터 말라기까지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찾아보게 하고 왜 그러한지를 설명한다. ④ 잠깐 휴식 및 간식 타임을 가진다. ⑤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3가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가진다. ⑥ 전도 강의 및 실습은 글없는 책(부록5)을 강의 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전도실습을 진행한다. ⑦ 자신과 교회가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⑧ 모든 강의가 끝나면 함께 1시간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표8> 5주차 교육: 다섯 번째 줄기(복음서에 제시된 구원스토리를 통한 전도)

시간	순서	내용
10분	찬양	복음송(2곡):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계신 주
10분	합심기도	4주차에 만난 전도대상자와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90분	강의	1. 복음서에 나타난 구원스토리를 강의한다. 2. 강의내용은 상기에 나온 내용으로 한다.
20분	Tea 타임	간식과 함께 성도간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20분	질문 및 답변	1. 복음서에 제시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2. 복음서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3. 오늘 배운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20분	전도 강의 및 실습	손가락 전도법(부록6) 강의 및 실습을 한다.
10분	합심기도	오늘 만날 전도대상자와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60분	노방전도	모든 강의가 끝나면 함께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5주차에서는 복음서에 제시된 구원스토리를 통한 전도를 강의한다. ① 찬양시간에 복음전도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찬양을 한다. ② 뜨겁게 찬양을 한 후 합심해서 자신과 교회를 향해 복음전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기도한다. ③ 강의시간에는 먼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제시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한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찾아보게 하고 왜 그러한지를 설명한다. ④ 잠깐 휴식 및 간식 타임을 가진다. ⑤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3가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가진다. ⑥ 전도 강의 및 실습은 손가락전도법(부록6)을 강의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전도실습을 진행한다. ⑦ 자신과 교회가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⑧ 모든 강의가 끝나면 함께 1시간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표9> 6주차 교육: 여섯 번째 줄기(서신서에 제시된 구원스토리를 통한 전도)

시간	순서	내용
10분	찬양	복음송(2곡): 당신의 그 섬김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0분	합심기도	5주차에 만난 전도대상자와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90분	강의	1. 서신서에 나타난 구원스토리를 강의한다. 2. 강의내용은 상기에 나온 내용으로 한다.
20분	브레이크 타임	간식과 함께 성도간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20분	질문 및 답변	1. 서신서에 제시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2. 서신서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3. 오늘 배운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20분	전도 강의 및 실습	4영리(부록7) 강의 및 실습을 한다.
10분	합심기도	오늘 만날 전도대상자와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60분	노방전도	모든 강의가 끝나면 함께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6주차에서는 서신서에 제시된 구원스토리를 통한 전도를 강의한다. ① 찬양시간에 복음전도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찬양을 한다. ② 뜨겁게 찬양을 한 후 합심해서 자신과 교회를 향해 복음전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기도한다. ③ 강의시간에는 먼저 갈라디아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시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찾아보게 하고 왜 그러한지를 설명한다. ④ 잠깐 휴식 및 간식 타임을 가진다. ⑤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3가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가진다. ⑥ 전도 강의 및 실습은 4영리전도법(부록7)을 강의 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전도실습을 진행한다. ⑦ 자신과 교회가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⑧ 모든 강의가 끝나면 함께 1시간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 제 V 장

###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의 설문조사와 평가 및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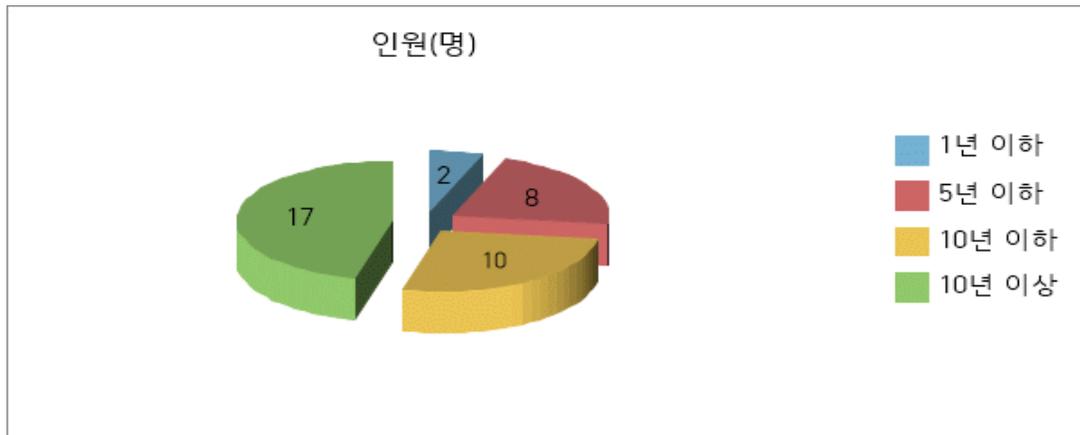
#### 설문조사와 평가

필자는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를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에 적용하여 실시한 후 1차와 2차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수행에 따른 변화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1차 설문조사는 2019년 8월에 실시했으며,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성도들이 알고 있는 전도에 대한 인식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2020년 1월에 실시했으며,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에 참석한 후 발생한 전도에 대한 인식과 상황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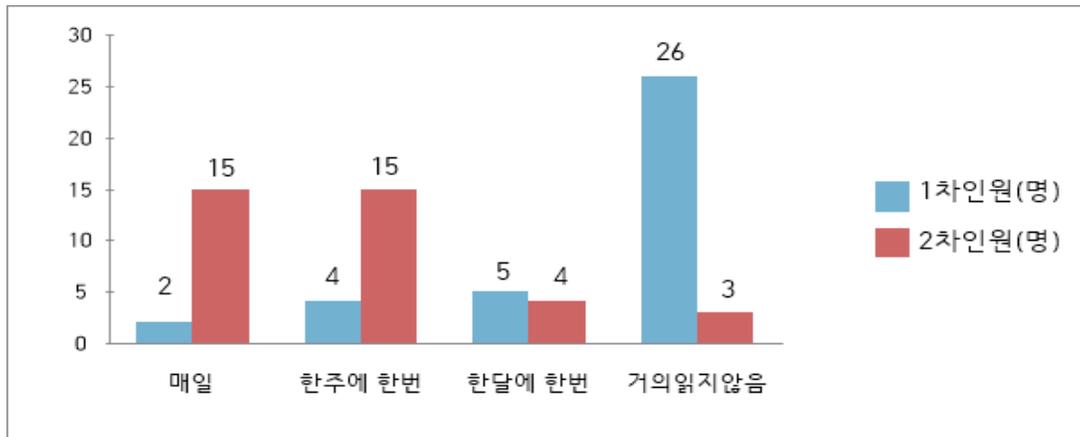
아래는 구미제자교회 성도들을 대상(장년32명, 초등학생1명, 중·고등학생 4명)으로 행한 2차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에 대한 반응이다.

<표10> 질문1 신앙생활을 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석자 17명이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 고 답했다. ‘1년 이하 신앙생활을 했다’ 고 응답한 사람이 2명, ‘5년 이하 신앙생활을 했다’ 고 응답한 사람이 8명, ‘10년 이하 신앙생활을 했다’ 고 응답한 사람이 10명이었다. 설문에 참석한 37명 중 73%(27명)가 신앙생활을 5년 이상 한 성도들이었으며, 95%(35명)가 1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었다. 대부분 성경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읽고 배웠을 것이다. 정리하면,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에 참석한 성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왔으며,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웠을 뿐 아니라 전도훈련도 대체적으로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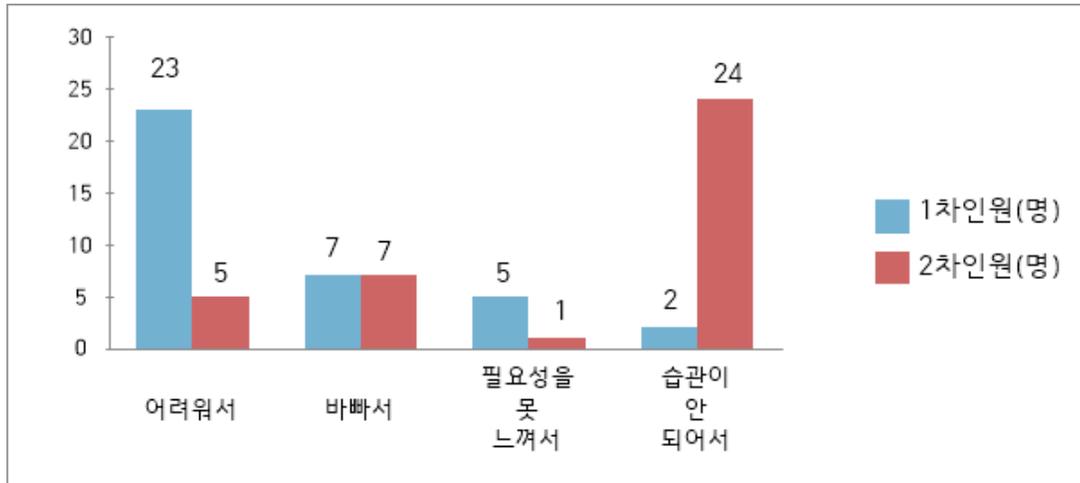
&lt;표11&gt; 질문2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고 있습니까?



“성경은 얼마나 자주 읽고 있습니까?” 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석자 중 26명이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 고 답했다. ‘매일 읽는다’ 고 대답한 사람이 2명, ‘한 주에 한 번 읽는다’ 고 대답한 사람이 4명, ‘한 달에 한 번 읽는다’ 고 대답한 사람이 5명이었다. <질문1>에서 보았듯 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전체 참석자 중 73%(27명)인데 비해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사람이 70%(26명)라는 점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 중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많음을 보여준다.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를 설교와 집중 교육을 통해 진행한 후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석자 중 3명이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 고 답했다. 1차 설문조사 때의 결과와 비교하면 23명이 감소하였다. 또한 2차 설문조사 때 ‘성경을 매일 읽는다’ 고 대답한 사람이 1차 설문조사 때의 결과와 비교하면 13명이 증가하였다. 정리하면,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교육을 실시한 결과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주에 한 번 이상, 매일 읽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이해함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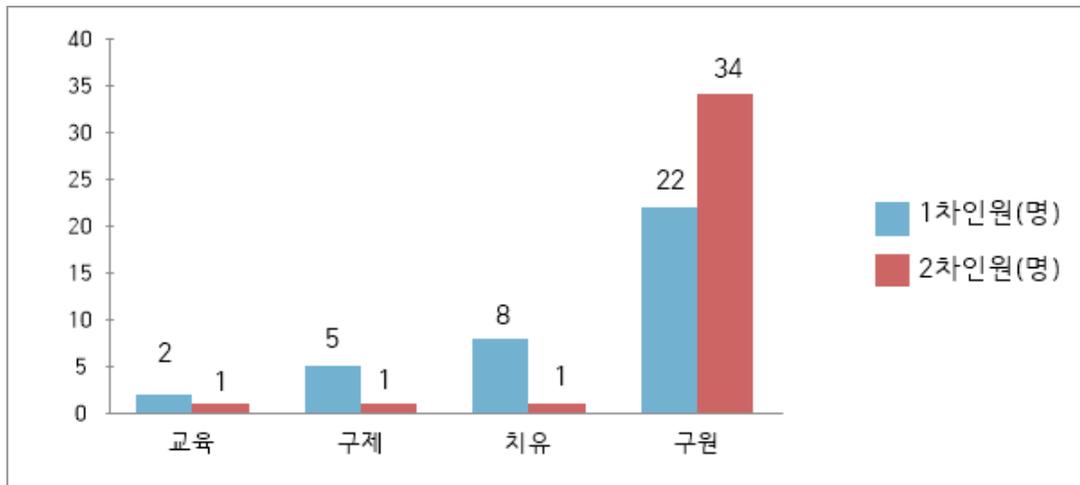
<표12> 질문3 성경을 자주 읽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자주 읽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석자 중 23명이 ‘성경이 어려워서’ 라고 답했다. ‘바빠서’ 라고 대답한 사람이 7명, ‘필요성을 못 느껴서’ 라고 대답한 사람이 5명, ‘습관이 안 되어서’ 라고 대답한 사람이 2명이었다. <질문1>에서 보았듯이 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전체 참석자 중 73%(27명)인데 비해 성경을 자주 읽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어려워서라고 답변한 사람이 62%(23명)라는 점은 신앙생활을 오래한 성도들 중에 성경이 어려워서 읽지 않는 사람이 많음을 보여준다.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를 설교와 집중 교육을 통해 진행한 후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석자 중 5명이 ‘성경이 어려워서 읽지 않는다’ 고 답했다. 1차 설문조사 때의 결과와 비교하면 18명이 감소하였다. 또한 2차 설문조사 때 ‘습관이 안 되어서 성경을 안 읽는다’ 고 대답한 사람이 1차 설문조사 때의 결과와 비교하면 22명이 증가하였다. 정리하면,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교육을 실시한 결과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습관이 안 되어서 읽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이 어려워져 읽지 않았던 사람들이 습관만 잘 갖추어지면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성경 읽기의 습관화를 위해서 매년 2회 ‘한 주간 성경 읽기’를 실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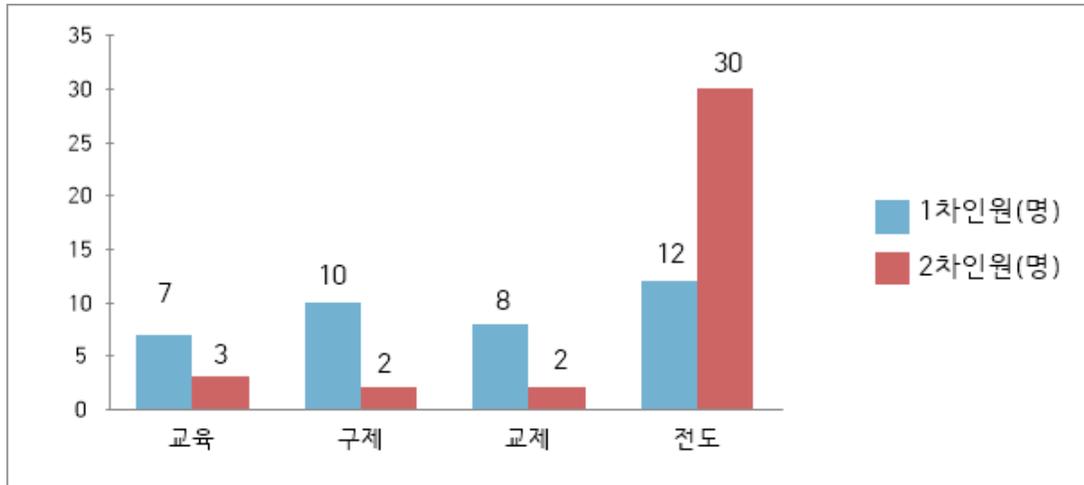
<표13> 질문4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석자 중 22명이 ‘구원’이라고 답했다. ‘치유’라고 대답한 사람이 8명, ‘구제’라고 대답한 사람이 5명, ‘교육’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2명이었다. <질문1>에서 보았듯이 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전체 참석자 중 73%(27명)인데 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60%(22명)라는 점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를 설교와 집중 교육을 통해 진행한 후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석자 중 34명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구원’이라고 답했다. 1차 설문조사 때의 결과와 비교하면 12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2차 설문조사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치유’라고 대답한 사람이 1차 설문조사 때의 결과와 비교하면 7명이 감소하였다.

정리하면,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교육을 실시한 결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발적으로 복음전도를 하려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표14> 질문5 교회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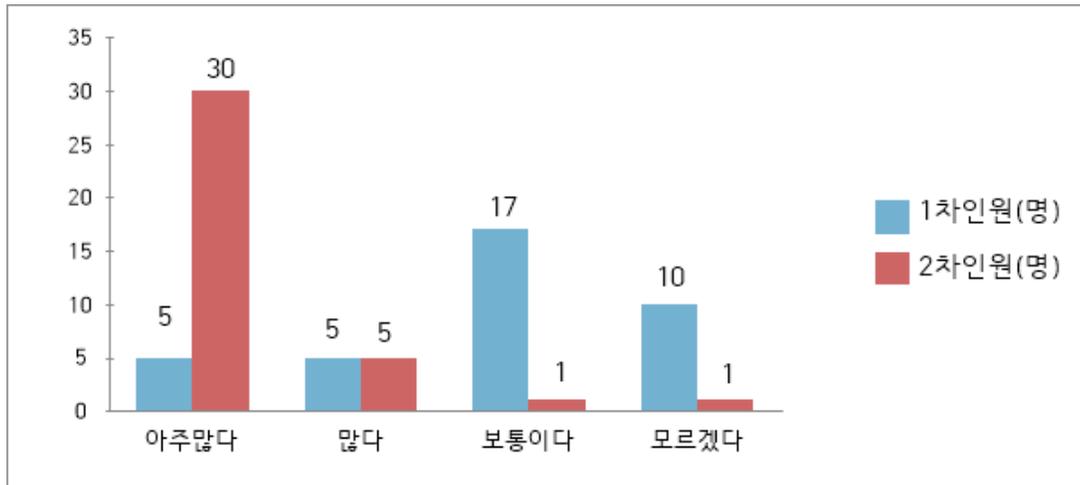


“교회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석자 중 12명이 ‘전도’ 라고 답했다. ‘교육’ 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7명, ‘구제’ 라고 대답한 사람이 10명, ‘교제’ 라고 대답한 사람이 8명이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질문1>에서 보았듯 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전체 참석자 중 73%(27명)인데 비해 교회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전도라고 답변한 사람이 32%(12명)라는 점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 중에 전도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를 설교와 집중 교육을 통해 진행한 후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석자 중 30명이 ‘교회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전도’ 라고 답했다. 1차 설문조사 때의 결과와 비교하면 18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2차 설문조사 때 ‘교회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일이 교육, 구제, 교제’ 라고

대답한 사람이 모두 1차 설문조사 때의 결과와 비교하면 4명 이상 감소하였다. 정리하면,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회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전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도들이 교회의 사명이 영혼구원임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전도하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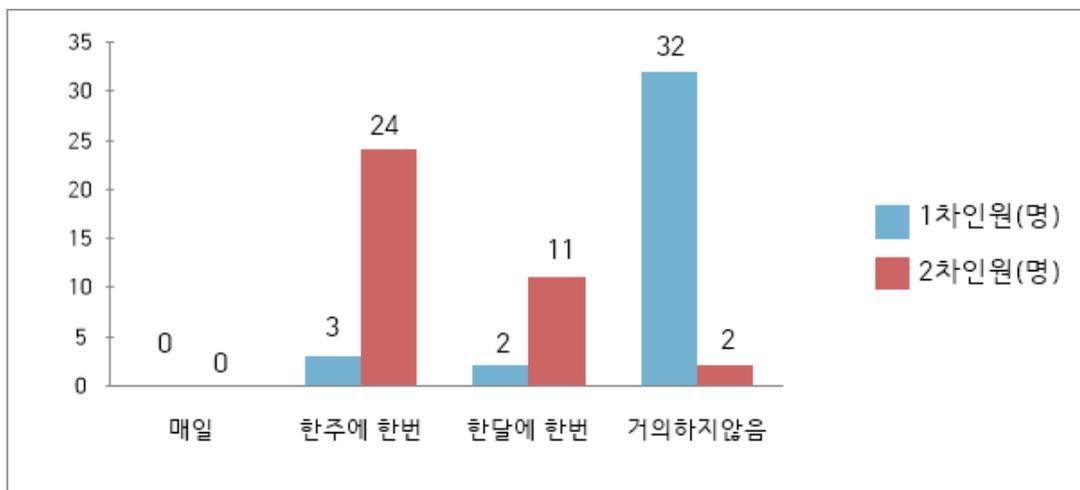
<표15> 질문6 성경은 복음전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복음전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석자 중 10명이 ‘모르겠다’ 라고 답했다. ‘아주 많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5명, ‘많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5명, ‘보통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7명이었다. <질문1>에서 보았듯 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전체 참석자 중 73%(27명)인데 비해 성경은 복음전도에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이 27%(10명)라는 점은 신앙생활 연수에 비해 성경이 복음전도에 대해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를 설교와 집중 교육을 통해 진행한 후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석자 중 30명이 ‘성경은 복음전도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다’ 고 답했다. 1차 설문조사 때의 결과와 비교하면 25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2차 설문조사 때 성경이 복음전도에 대해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이 1차 설문조사 때의 결과와 비교하면 9명 감소하였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정리하면,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교육을 실시한 결과 성경이 복음전도를 아주 많이 강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전도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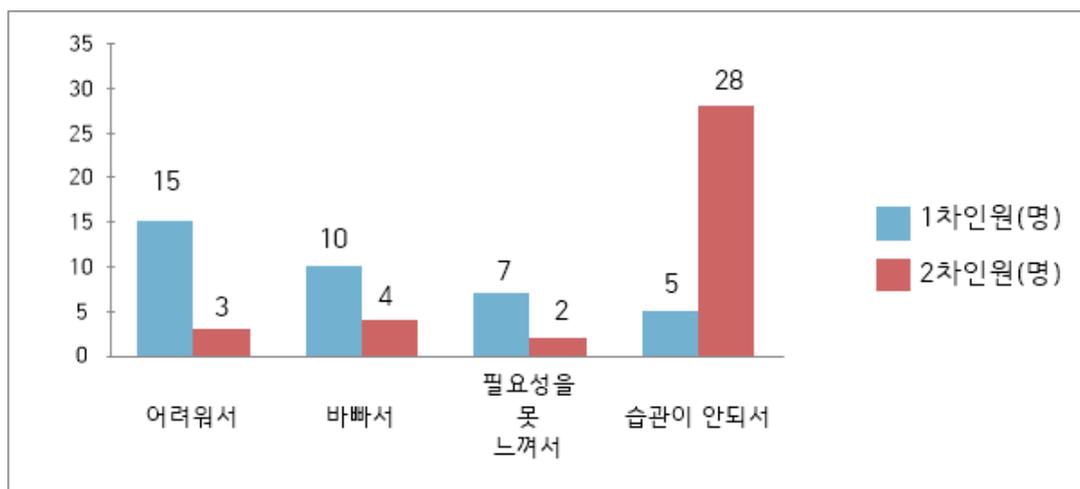
<표16> 질문7 평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전도를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전도를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석자 중 32명이 ‘거의 하지 않음’ 이라고 답했다. ‘매일’ 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0명, ‘한 주에 한 번’ 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3명, ‘한 달에 한 번’ 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2명이었다. <질문1>에서 보았듯 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전체 참석자 중 73%(27명)인데 비해 평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전도는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87%(32명)이라는 점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 중에 복음전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를 설교와 집중 교육을 통해 진행한 후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석자 중 24명이 ‘한 주에 한 번

복음전도를 한다’ 고 답했다. 1차 설문조사 때의 결과와 비교하면 21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2차 설문조사 때 복음전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람이 1차 설문조사 때의 결과와 비교하면 32명 감소하였다.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정리하면,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교육을 실시한 결과 모든 사람이 전도하는데 한 번 이상 전도하는데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전도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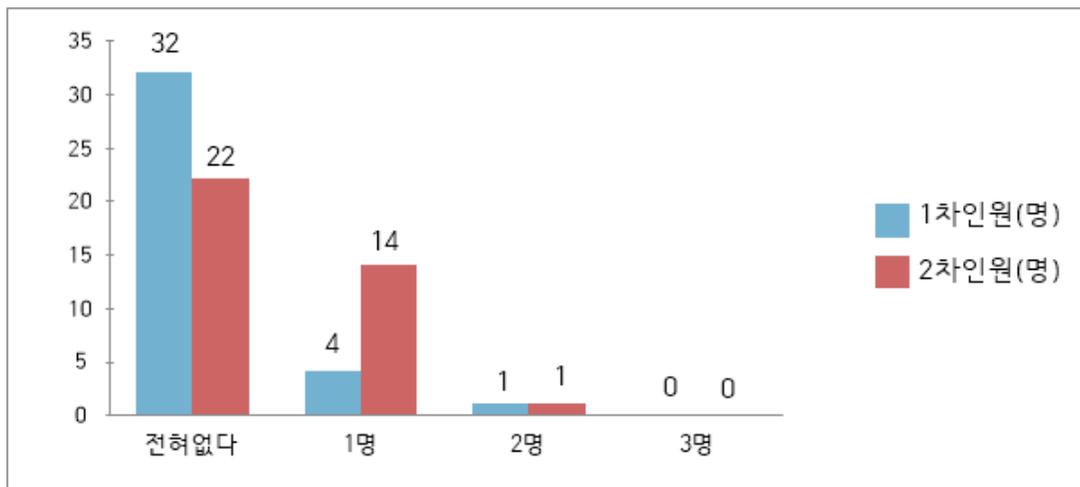
<표17> 질문8 복음전도를 자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전도를 자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석자 중 15명이 ‘어려워서’ 라고 답했다. ‘바빠서’ 라고 대답한 사람이 10명, ‘필요성을 못 느껴서’ 라고 대답한 사람이 7명, ‘습관이 안되어서’ 라고 대답한 사람이 5명이었다. <질문1>에서 보았듯 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전체 참석자 중 73%(27명)인데 비해 복음전도를 자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려워서’ 라고 한 사람이 40%(15명)이라는 점은 신앙생활을 오랜 한 성도들 중에도 복음전도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음을 보여준다.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를 설교와 집중 교육을 통해 진행한 후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석자 중 28명이 ‘습관이 안 되어서 복음전도를 자주 못한다’ 고 답했다. 1차 설문조사 때의 결과와 비교하면 23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2차 설문조사 때 복음전도를 ‘어려워서’ 자주 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1차 설문조사 때의 결과와 비교하면 12명 감소하였다. 정리하면,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교육을 실시한 결과 어려워서 전도하지 못한다고 했던 사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도들이 전도하는 습관만 되면 자발적으로 복음전도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따라서 매주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실시함으로 자발적인 전도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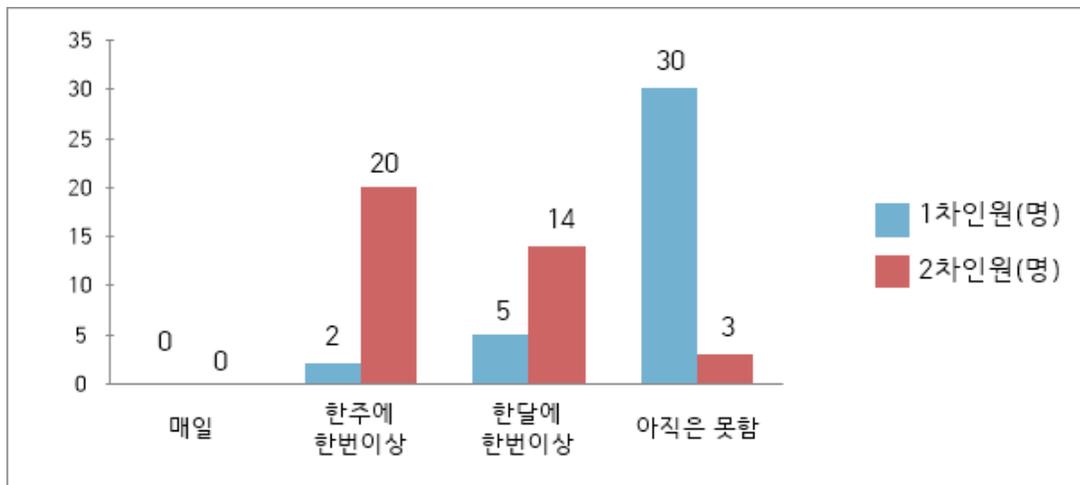
<표18> 질문9 지금까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석자 중 32명이 ‘전혀 없다’ 고 답했다. ‘1명’ 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4명, ‘2명’ 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명, ‘3명 이상’ 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0명이었다. <질문1>에서 보았듯 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전체 참석자 중 73%(27명)인데 비해 지금까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이 ‘전혀 없다’ 고 한 사람이 87%(32명)라는 점은 복음전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를 설교와 집중 교육을 통해 진행한 후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석자 중 14명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이 1명’이라고 답했다. 1차 설문조사 때의 결과와 비교하면 10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2차 설문조사 때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1차 설문조사 때의 결과와 비교하면 10명 감소하였다. 정리하면,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교육을 실시한 결과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한 사람이 1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명 이상 전도한 성도들이 10명 증가하였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변화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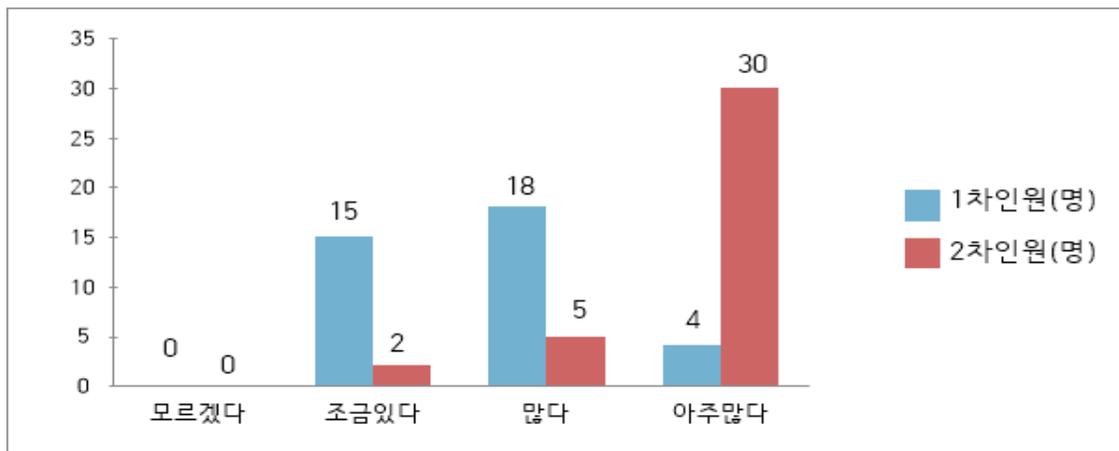
<표19> 질문10 앞으로 얼마나 자주 복음전도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자주 복음전도를 하겠습니까?”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석자 중 30명이 ‘아직은 못함’이라고 답했다. ‘한 주에 한 번 이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2명,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5명, ‘매일’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0명이었다. <질문1>에서 보았듯 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전체 참석자 중 73%(27명)인데 비해 앞으로 매일 전도를

하겠다고 한 사람이 0명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전도를 하지 못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81%(30명)라는 점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이 전도하는데 거의 열심을 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를 설교와 집중 교육을 통해 진행한 후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석자 중 20명이 ‘한 주에 한 번 이상’ 전도하겠다고 답했다. 1차 설문조사 때의 결과와 비교하면 18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2차 설문조사 때 아직은 전도를 못하겠다고 한 사람이 1차 설문조사 때의 결과와 비교하면 27명 감소하였다. 정리하면,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교육을 실시한 결과 한 주에 한 번 이상 전도를하겠다고 한 사람이 1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은 복음전도를 하지 못하겠다고 한 사람이 27명 감소하였다. 아직은 못하겠다고 답변한 3명도 직장에서 최대한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복음전도에 힘쓰겠다고 답변을 한 것이다.

<표20> 질문11 여섯줄기 구원스토리 교육이 전도에 미친 영향은 얼마나 됩니까?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 교육이 전도에 미친 영향은 얼마나 됩니까?” 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석자 중 4명이 ‘아주 많다’ 고 답했다.

‘조금있다’ 고 대답한 사람이 15명, ‘많다’ 고 대답한 사람이 18명,

‘모르겠다’ 고 대답한 사람이 0명이었다.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를 설교와 집중 교육을 통해 진행한 후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석자 중 30명이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 교육이 전도에 대한 영향이 ‘아주 많다’ 고 답했다. 1차 설문조사 때의 결과와 비교하면 26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2차 설문조사 때 조금있다고 한 사람이 1차 설문조사 때의 결과와 비교하면 13명 감소하였다. 즉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교육은 복음전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진다.

설문조사를 종합해서 정리하면, 구미제자교회 성도들 중에 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전체 참석자 37명 중에 27명(73%)이었다. 많은 분들이 설교나 성경공부를 통해 성경을 배워왔지만 성경을 자주 읽지 않거나 복음전도에 동참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교육을 주일예배 설교와 6주간의 집중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복음전도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 사례 연구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실명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사례를 본 연구에 기재한다는 부분은 허락을 받았기에 사례 연구내용만을 기록하였다. 우선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를 통한 개인의 변화 사례는 많았다. 그 이유는 참가한 사람들 스스로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후에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사례는 6주간의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교육에 참석한 참석자 중 2명을 선발하여 진행했다. 상담 대상자는 40대 초반의 여성과 50대 중반의 남성이다. 상담 방식은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교육에 참석하기 전과 후의 삶의 변화를 간단히 질문하면서 서술형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질문은 3가지였다. 첫 번째, 6주간의 집중 교육에 참석하기 전 자신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두 번째, 6주간의 집중 교육을 받은 후 삶의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이었다. 한 주 전에 질문지를 드려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후 상담을 하였다. 상담 진행시기는 2020년 1월 6일에서 20일까지 이었다.

#### 사례 1

올해 43세인 000씨는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둔 어머니이자,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시는 분이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기 전에는 성경을 거의 읽지 않거나 매월 한번 정도 읽는 수준이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 왔고,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성경은 잘 모르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심신이 무척이나 지쳐 있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나 평안은 쉽게 찾아보기 힘든 분이셨다.

그러나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에 대한 설교를 꾸준히 들으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권유로 6주간의 집중 교육을 받았다. 처음엔 자녀 문제로 참석하기를 굉장히 힘들어 했지만 1-2주간 지나는 동안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적극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했다.

교육을 받은 후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라고 답했다.

성경 전체에 계시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자신을 향하고 있음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앞으로 주어진 시간을 좀 더 알차게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기도 했다. 또한 설교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이전에 비해 훨씬 잘 이해가 되었고, 매 주일 교회학교 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전에 비해 훨씬 기쁨이 넘쳐났고 가르치는 것이 즐겁고 보람이 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교육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 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하면서 매일 읽기 시작했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 사례 2

올해 55세인 000씨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둔 아버지이자,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시는 분이시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 온 터라 성경지식도 남다르게 많아서 교회학교 교사와 부장으로 섬겨왔다.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자기 열심만 많았던 분이시다.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겸손과 온유함보다는 교만함과 거친 말투로 섬기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 때로는 교인들을 선동해서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목사를 비판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 온 것이다.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미흡하고 부족한지는 몰랐다. 직장생활을 한다는

평계로 성경은 거의 읽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도생활도 많이 부족했다. 심지어 기본적인 예배생활도 잘되지 않는 상태로 수년간 살아왔다. 아내와의 관계는 당연히 좋지 않았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교육에 6주간 참석을 했다. 그 동안 설교를 통해서 조금씩 들어오다가 6주간의 집중 교육을 받게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화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성경 전체에 계시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도 알게 되었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적극적인 신앙자세로 바뀌게 되었다.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고, 그 분의 얼굴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웃음꽃이 피어났고 입술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왔다. 정죄하는 모습에서 관용하는 모습으로, 비판하던 모습에서 이해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

과거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였으며, 이제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섯 줄기 구원스토리를 적용한 전도” 교육은 자신의 지난 삶을 회개하게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성경을 자연스럽게 읽기 시작하면서 직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가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

## 제 VI 장

### 결 론

#### 요약 및 평가

본 논문은 교회부흥과 갱신을 위한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에 대한 연구논문이다. 한국교회는 지금 부흥의 시기는 거의 끝이 나고 교인수의 정체 또는 감소를 하고 있다. 개 교회마다 교회성장과 갱신을 위한 다양한 전도프로그램과 행사들을 하고 있지만 교회부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성장하는 교회는 기존 교인들의 수평 이동으로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교회 정체와 감소 현상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증가와 마음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회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감들이 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성도들의 복음전도에 대한 열정이 점점 더 감소하고 있어서 교회 부흥과 갱신은 이전에 비해 훨씬 더 힘든 상황이다. 또한 교회 내 다양한 영적인 질병들이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 기도와 말씀의 영성은 약화되고, 복음전도의 열정은 감퇴되고, 성도들은 점점 더 고령화되고, 교회는 친교모임 위주로 운영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함을 잃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필자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은 올바른 말씀 선포와 복음전도의 회복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전체에 계시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도록 하고, 복음전도의 사명을 갖도록 가르치고 양육한다면 교회의 부흥과 갱신은 곧 일어나리라고 판단했다.

이에 필자는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 라는 교육방법을 고안해 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전체에 계시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순서대로 설명하였다. 또한 복음전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임을 성경 전체를 통해 설명함으로 성도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복음전도를 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다.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구미제자교회에서 실시한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 로 교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 는 ‘방법’ 중심에서 ‘본질’ 중심의 복음전도로 전환시켰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전도 방법의 문제를 고민하며 달려왔다. 복음전도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요, 이해의 문제이다. 성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게 할 것인가? 를 고민하기보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어떻게 자발적으로 전도를 하게 할 것인가? 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복음전도는 강압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된 복음전도는 방법보다는 본질에 강조점을 많이 두었다. 이런 점에서 성경 전체를 텍스트로 하여 만들어진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 교육은 복음전도의 본질을 깨닫게 함으로 이전에 비해 더 자발적이고 효과적으로 복음전도를 하게 하였다.

둘째,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 는 ‘단회적’ 에서 ‘지속적’ 복음전도로 교회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복음전도가 절기

때마다 진행되는 행사처럼 복음전도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총동원전도주일, 이웃초청주일, 새 가족 환영모임 등 다양한 전도 행사들은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단회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계시된 복음전도는 단회적이 아니라 주님오실 그 날까지 지속적이고 영구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를 통한 교육은 성경 전체에 계시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 지속적인 복음전도를 하도록 교회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셋째,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는 ‘목사중심’에서 ‘성도중심’의 복음전도가 되게 하였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복음전도가 목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성도들이 수동적인 전도자 또는 복음에 무관심한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다. 성경 전체는 일관되게 복음전도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맡긴 사명이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 교육은 복음전도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임을 제시함으로 ‘목사중심’의 복음전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성도중심’의 복음전도가 되도록 하였다.

넷째,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는 ‘병든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의 복음전도로 변화되었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영혼구원무감각증, 하나님마음상실증, 영적무기력증, 신앙열정감퇴증 등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다. 그 결과 교회는 정체 혹은 침체의 늪에 빠져 허둥대고 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앤컴이 전국 개신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개신교인 25.3%는 거의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응답했다.”<sup>216</sup> 성경은 개인뿐 아니라 교회 내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질병을 치료하며 새로운 회복의 돌파구를 제시해 준다. 바로 이 사실을 고스란히 담은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는 성도들의 신앙열정을 회복시켜 주었으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해 주면서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는 ‘사람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복음전도로 나아가게 하였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서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상당한 금액의 돈이나 값비싼 상품을 내걸어서 복음전도를 하도록 독려했다. 이것은 성경의 방식이 아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시해 줌으로 ‘성경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전도자가 되도록 변화시켰다.

필자가 구미제자교회에서 실시한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는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복음전도의 사명을 깨닫게 해 줌으로 성도들의 복음전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발적으로 복음 전도를 하게 되었고,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였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 전체에

<sup>216</sup>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3557> (2020년 1월 30일 접속).

계시된 온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된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본 연구가 개 교회와 한국교회 부흥과 갱신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바란다.

## 제언

첫째로, 성경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라고 요청하고 싶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야 한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전도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속에 가득 담겨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릇과 같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진노와 심판하시는 마음까지 가득 담겨 있다.

조병호는 “성경통독은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성경66권을 읽어가는 동안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읽어가야 한다.”<sup>217</sup> 고 거듭 강조한다.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어야 복음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성경구절 암송위주의 성경공부나 성경 몇 구절로 구성된 설교에서 벗어나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야 한다. 즉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는 성도들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성도들이 예수

<sup>217</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通)신학*, 45.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수동적 복음전도자에서 자발적인 복음전도자로 변화를 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복음전도 교육의 변화를 요청하고 싶다. 한국교회는 왜 단회적인 복음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가? 왜 절기 때마다 이루어지는 행사처럼 전도가 이벤트처럼 진행되고 있는가? 필자가 복음전도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한국교회들이 복음전도를 하기 위해 성경전체를 심도 있게 교육하고 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성경 전체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복음전도 교제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복음전도 교제들이 성경 몇 구절 또는 성경 몇 장을 근거로 만들어져 있거나 때로는 성경의 내용보다 예화를 더 많이 넣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때로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전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쳐서 성도들을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복음전도자로 양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필자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전도교육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도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는 성경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성도들이 단회적인 복음전도자에서 지속적인 복음전도자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으며,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 만큼 효과적인 복음전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모두가 함께 전도하라고 요청하고 싶다. 현재 한국교회 장년층은 감소 또는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초등학생과 중고등부는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주5일 근무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교회학교 학생들의 감소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다음세대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교회는 대부분 장년들 중심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세대 자녀들은 학업을 하느라 거의 복음전도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청장년들마저도 복음전도에 적극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왜 복음 전도에 동참하고 있지 않을까? 복음전도 교육을 받았는데 왜 사람들은 실제 전도하지 않을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문제이든 교육의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사람들이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복음전도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초등학생부터 중고등부, 장년까지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복음전도는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일까?

이런 점에서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를 통한 전도”를 통한 복음전도 교육은 어린 아이부터 장년까지, 신앙이 어린 성도들부터 믿음이 신실한 사람까지 쉽게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모두가 함께 복음 전도하게 되리라 판단된다.

## 부록1

설문조사.

\* 해당번호에 체크해 주세요.

1. 신앙생활을 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1) 1년 이하 2) 3년 이하 3) 5년 이하 4) 10년 이상

2.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고 있습니까?

- 1) 매일 읽음 2) 1주에 한 번 읽음 3) 1달에 한 번 읽음 4) 거의 읽지 않음

3. 성경을 자주 읽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어려워서 2) 바빠서 3) 필요성을 못 느껴서 4) 습관이 안 되서

4.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1) 확실히 알고 있음 2) 거의 알고 있음 3) 조금 알고 있음 4) 전혀 모름

5. 교회에서 가장 우선 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 교육 2) 구제 3) 교제 4) 전도

6. 성경에서 전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1) 아주 많다 2) 많다 3) 보통이다 4) 거의 없다.

7. 평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 1) 매일 2) 1주에 한 번 3) 한 달에 한 번 4) 거의 하지 않음

8. 전도를 자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어려워서 2) 바빠서 3) 필요성을 못 느껴서 4) 습관이 안 되서

9. 지금까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1) 전혀 없다 2) 1명 3) 2명 4) 3명 이상

10. 앞으로 얼마나 자주 전도를 하겠습니까?

- 1) 매일 2) 한 주에 한 번 이상 3) 한 달에 한 번 이상 4) 아직은 못함

11. 여섯 줄기 구원 스토리 교육이 전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 1) 전혀 없다 2) 조금 있다 3) 보통이다 4) 많다

부록2

백지전도법<sup>218</sup>

1. 도입(접근) - 멋있는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종이를 절반을 접는다.

행	듣고 믿는 자	복
세상(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불행-죽음	예수 그리스도	행복-영생
두려움-심판		평안-기쁨
형벌-지옥		축복-천국

2. 복음 제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종이를 벌린다)  
 절벽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찾아 온 것이 인생에게 불행이 찾아 왔는 그것은 죽음입니다.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모두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죽고나서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심판받습니다.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심판받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형벌이 따라오는데 그 형벌은 지옥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서 영원히 지옥에가는 이 영혼들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는데 (성구) 나를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리)  
 불행대신에 축복을, 그 축복은 죽음대신에 영생을 주십니다.  
 두려움대신 평안을 주는데, 그것은 영원한 기쁨,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형벌이 아닌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sup>218</sup> <https://blog.naver.com/ksjong7/120057526261> (2020년 2월 12일 접속).

## 부록3

전도폭발<sup>219</sup>

## 1. 첫째 다리-서론

## 가. 그들의 교회배경

전 : 혹시 이전에 교회에 다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대 : 네! 어렸을 때 한 두 번 가본 적이 있고 지난 번에 친구의 권유로 기쁨의 교회에 한번 가 보았어요.

## 나. 우리교회(교회에 대한 첫 인상)

전 : 아! 그러셨군요. 우리 교회에 대한 처음 인상이 어떠셨어요?

대 : 많은 사람들이 밝고 기쁜 얼굴로 찬양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 다. 간증(교회간증/개인간증)

전 : 네~에.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들이 들이 것처럼 밝고 기쁨이 있는 것은 바로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 :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뵈었지만,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 : 네. 말씀하세요.

전 :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 나의 간증 #1 >

전 : 어떠세요? ○형제님께서도 오늘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세요?

훈1 : 예.

전 : 우리 ○자매님도 영생의 확신이 있으시죠?

훈2 : 예.

## 라. 두 가지 진단 질문

주체전환 : (선생님),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 : 예.

전 : (선생님) 만일 오늘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대 : 자신이 없는데요.

전 : 네. 그러시군요. 저도 영생 얻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일5:13).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 : 그럼, 제가 영생 얻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또한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 : 예.

전 : 그러면 먼저 이것을 좀더 분명히 해 줄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때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sup>219</sup> <https://www.cjob.co.kr/mission/1300> (2020년 2월 12일 접속).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 : 글썽요.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또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해서가지 않을까 하는데요.

전 :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는지 알고 싶군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시겠다” 는 것이지요?

대 : 예.

주제전환 : 오늘 저는 (선생님)을 뵈고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과연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들으신 것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 2. 둘째 다리-복음 설명

### 가. 은혜

전 :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선물)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6:23)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제전환 :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 나. 인간

전 :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3:23)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 :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제전환 :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 다. 하나님

전 :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일 4:8)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한다” 고 말씀합니다.

주제전환 :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 라. 그리스도

전 :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전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제전환: 이 영생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 마. 믿음

전 :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16:31)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 Ⅲ. 셋째다리 - 결신

가. 확신질문(진지한 자세로 한다.)

전 : 지금까지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드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대 : 예.

나. 결신질문

전 : 지금 이시간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기 원하는데 받겠느냐?” 고 묻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대 : 네. 받겠습니다.

다. 결신설명

전 : 이제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만 믿겠다는 뜻입니다. #2 부활하여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3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4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5 회개하겠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 결신기도

전 : 참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이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한 다음,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하시면 됩니다.

(1) 준비기도 (2) 영접기도 (3) 확신기도

마. 구원의 확신

전 : (선생님)이 결정하고 기도하신 일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대 :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

전 :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그랬죠?

대 : 영생입니다.

전 :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대 :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 : 그럼 지금 이 시간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 : 저지요.

전 :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확신질문 :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어디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십니까?

대 : 천국에서요.

이유질문 :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 :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전 : 지금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과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훈 : (전도대원들이 함께 박수를 치면서 축하한다.)

## 부록4

## 부스전도법

1. 매일 만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지정된 장소에 BOOTH 를 설치합니다.
  - 1)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이 좋습니다.
  - 2) 너무 분주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적당한 곳을 찾으세요.(예: 공원 )
  - 4) 가능한 매일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3. 복음전도를 실시합니다.
  - 1) 유인물을 배부합니다. 교회전단지, 안내장, 종교설문지, 교회신문, 초대장을 사용하여 일대일 전도를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 2)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OO교회에서 나왔습니다”  
- 환하고 반갑게.
  - 3)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재치 있게.
    - ① 반응 有 : 가능성이 있다. 종교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말을 건네면서 같이 걸습니다. 이때는 가능한 물려서서는 안됩니다.
    - ② 반응 無 : 약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시도합니다.
    - ③ 싫어할 때 :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다.
4.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 1) 다음에 찾아뵙겠다는 말을 건네고 헤어집니다.
5. BOOTH를 철수합니다.
  - 1) 시간 작정을 하세요 : 빨리 철수하지 마세요. 늦게 철수하지도 마세요.
6. 후속처리
  - 1) 설문지에 작성된 가정을 바로(즉시) 방문합니다.  
=> 전화 걸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로 갑니다.
  - 2) 초인종을 누릅니다(두근두근).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 3) “OO교회 ○○○집사입니다” - 신분을 분명히 밝힙니다.

4) “아까 설문지에 너무 잘 응답해 주셔서 드릴 것이 있어 그렇습니다.”

☞ 문을 열어 주도록 기도합니다.

5) 문을 열면 준비해 간 물건을 건넵니다(식혜, 빵, 과자류).

☞ 물건 건네면서 무조건 받음 들려놓고 봅니다(기도의 힘으로).

6) 들어가면 거실 적당한 장소에 앉아 짧게(5~10초) 기도합니다.

☞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너무 많이 체험합니다.

☞ 결국 마음을 오픈하기 시작하며, 끝내는 기도를 합니다.

※ 만났을 때 바로(하루를 지체하지 말 것) 만나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① 부스현장에서 만나게 하시고 종교 설문지 작성까지가 자기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② 시간이 지나면 핑계를 대고 만나길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담대함이 식어지고 방문을 주춤거리게 됩니다.

③ 중요한 것은 길에서 만난 사이기 때문에 빨리 그들이 나를 신뢰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④ 자주 찾아가서 교체하며 친해져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자신감, 복음에 대한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 7. 후속 처리는 관심이 최고

1) 열매를 거둔 가정 : 계속 연락하면서 공예배 및 구역모임에 참석하도록 권면합니다.

2) 열매를 거두지 못한 가정 : 이 사람은 구체적 “전도 대상자”가 되고, 본인의 전도수첩, 기도수첩에 기록합니다. 등록의 그 날을 위해 계속 찾아가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 부록5

글 없는 책<sup>220</sup>**황금색**

요3:16

하나님은 누구신가?

1. 창조자 2. 사랑 3. 천국 4. 기록
- 그러나 “천국”에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죄”예요.

**검정색**

롬3:23

문제점 · 필요

1. 죄의 정의 2. 죄의 실례(實例) 3. 죄 가운데 태어남
  4. 하나님과의 분리
- 그러나 하나님은 너와 내가 “죄” 때문에 벌 받지 않아도 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붉은색**

고전15:3-4

해결 · 길

1.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2. 벌을 대신 받으심 3. 보혈을 주심
4. 죽으심과 부활 5. 이제는 천국에 계심

**하얀색**

요1:12

적용

1. 초청 2. 구원의 확신

**초록색**

요일1:9

영적 성장

1. 죄의 고백
2. 예수님 안에서 자라감
  - ① 교회 출석    ② 기도    ③ 성경읽기와 순종    ④ 전도

<sup>220</sup> <https://www.cjob.co.kr/mission/23> (2020년 2월 12일 접속).

## 부록6

손가락 전도법<sup>221</sup>

## 1) 엄지 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은 무엇을 가리키지요? 으뜸 또는 최고, 위대함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아주 위대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생님이 그곳에 와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 2) 검지 손가락

이 손가락을 무슨 손가락이라고 합니까?(네 검지요) 이 손가락은 검지라고 합니다. 이 손가락은 이렇게 가리키는 데 쓰기도 합니다. 성경은 선생님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과 저 그리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 3) 중지 손가락

이 손가락은 무슨 손가락입니까? (네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그래요 가운데 손가락입니다(검지와 약지를 함께 펴서 보이면서)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선생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지 않을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 4) 약지 손가락

이 손가락은 무슨 손가락이지요?(네 약지 손가락입니다) 응 이 손가락은 약지라고 합니다. 다른 손가락들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이 손가락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 들이겠습니까?(네!)

그러면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sup>221</sup> <https://www.cjob.co.kr/mission/1312> (2020년 2월 12일 접속).

(영접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다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모셔 들입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5) 새끼 손가락

이 손가락은 무슨 손가락이라고 합니까? (네, 새끼손가락입니다) 새끼손가락 또는 애지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나라의 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는 누가 돌보지요?

(엄마, 아빠가 돌보지요)

엄마 아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아 주는 곳이 어디지 아십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어서 00교회 소개를 한다.

#### 6) 후속 처리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집으로 찾아가서 인사한다.

교회 공예배 혹은 구역모임에 올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부록7

사영리<sup>222</sup>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 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 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예수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16).

### ②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10).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 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 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로마서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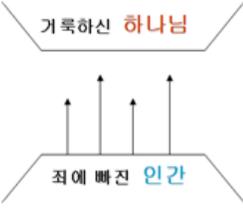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귄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죄의 증거로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 ②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로마서 6:23).

<sup>222</sup> <https://www.4laws.com/laws/downloads/KknEng4pWB04Jul.pdf> (2020년 2월 12일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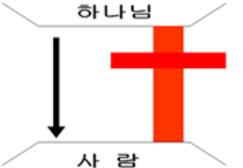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3원리

예수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

- ①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롬5:8).
  
- ②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3-6).
  
- ③ 예수 그리스도 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6).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4원리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 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요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 ②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2:8-9)”
- ③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고 하셨습니다(계 3:20).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 참고 문헌

### 번역서적

- C.E. 어트리. *기본전도학*. 정진황 역. 서울: 침례회출판사, 1976.
- C.P. 와그너. *교회성장학 개론*. 이재범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5.
- D.A. 카슨 외 2인 공저. *신약개론*, 노진준 역. 서울: 은성, 1994.
- F.F. 부루스. *헨드릭슨 성경주석 사도행전(상)*. 이용복 외 1인 역. 서울: 아가페, 1986.
- 데이비드 왓슨. *나는 복음전도를 믿는다*. 박영호 역.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80
- 로버트 H. 건드리. *신약개관*, 이홍성 역. 서울: 크리스찬서적, 1994.
- 마이클 그린. *초대교회의 전도*. 김경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 브루스 윌킨슨.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 홍미경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4.
- 웨인 그루뎀. *성경 핵심교리*, 김광열 외 1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 윌럼 헨드릭슨. *헨드릭슨 에베소서 (상)*. 손종국 역.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89.
- 윌럼 헨드릭슨. *헨드릭슨 성경주석 로마서(상)*. 손종국 역.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83.
- 제임스 패커. *제임스 패커의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 존 맥아더. *담대한 복음전도*.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 존 팀머. *성경 흐름을 잡아라*. 박혜영 이석열 역. 서울: 홍성사, 2000.
- 코넬리스 반더발. *반더발 성경연구1*. 명중남역. 서울: 연합선교회, 1991.
- 코넬리스 반더발. *반더발 성경연구2*. 명중남 역. 서울: 연합선교회, 1991.
-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 백성의 선교*. 한화룡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7.

피터 와그너 · 톨레이너 · 엘머 타운즈. *교회성장의 장벽을 극복하라*. 오수현 역.

서울: 도서출판 침탑, 2008.

필립얀시. *필립얀시와 함께하는 맥잡는 성경읽기*. 임종원 역. 서울: 도서출판 진흥, 2002.

해롤드 엘 픽켓트. *교회성장의 열 가지 원리*. 조해수 역.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78.

### 한국어서적

기동연. *창조부터 바벨까지*. 서울: 생명의 양식, 2009.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2011.

서정윤. *한국교회 진단과 그 처방*. 서울: 요단출판사, 1996.

송경호. *총동원전도와 새신자 양육관리 가이드 예수초청잔치*. 서울: 예찬사, 2004.

유도순. *구약성경 파노라마*. 서울: 머릿돌, 2001.

유도순. *신약성경 파노라마*. 서울: 도서출판 머릿돌, 2001.

유해무. *개혁교의학*.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이동원. *절망의 밤에 본 비전 에스겔서 연구*. 서울: 도서출판 나침반, 2008.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4.

이종성.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6.

전호진. *한국교회 침체 원인과 해결책*. 월간고신 8월호(1995).

정규모. *설교의 연구와 실제*. 서울: 은성문화사, 1976.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 조병호.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1.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通)신학*.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6.
-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8.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창세기 제1-11장*. 서울: 제자원, 2006.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창세기 제12-25장*. 서울: 제자원, 2006.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출애굽기 제1-12a장*. 서울: 제자원, 2006.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출애굽기 제25-40장*. 서울: 제자원, 2006.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레위기 제1-17장*. 서울: 제자원, 2006.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민수기 제26-36장*. 서울: 제자원, 2006.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여호수아 제1-12장*. 서울: 제자원, 2006.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사무엘상 제1-10장*. 서울: 제자원, 2006.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욥기 제15-31장*. 서울: 제자원, 2006.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이사야 제1-10장*. 서울: 제자원, 2006.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에스겔 제1-11장*. 서울: 제자원, 2008.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요엘·오바다·요나*. 서울: 제자원, 2006.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아모스 나훔*. 서울: 제자원, 2006.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미가·하박국*. 서울: 제자원, 2006.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스바냐·학개·말라기*. 서울: 제자원, 2006.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마태복음 제11-20장*. 서울: 제자원, 2006.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마가복음 제1-9 장*. 서울: 제자원, 2006.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누가복음 제1-8장*. 서울: 제자원, 2006.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요한복음 제1-6장*. 서울: 제자원, 2006.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사도행전 제8-14장*. 서울: 제자원, 2006.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로마서 제1-8장*. 서울: 제자원, 2006.
-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야고보서·요한서신·유다서*. 서울: 제자원, 2006.

## 논문

- 박종무. “개인전도에 관한 연구.” 신학박사학위논문,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1985.

## 웹사이트

- <https://www.4laws.com/laws/downloads/KknEng4pWB04Jul.pdf>.
- <https://blog.naver.com/ksjong7/120057526261>.
- <http://www.church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769>.
-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630>.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121000043292>.
-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925370#RedyAi>.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96>.
-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20>.
- [http://www.duranno.com/bdictionary/result\\_vision\\_detail.asp](http://www.duranno.com/bdictionary/result_vision_detail.asp).
- [http://www.duranno.com/bdictionary/result\\_vision\\_detail.asp?cts\\_id=21286](http://www.duranno.com/bdictionary/result_vision_detail.asp?cts_id=21286).
- [http://www.duranno.com/bibleco/bibleco\\_view.asp?bbs\\_id=4336](http://www.duranno.com/bibleco/bibleco_view.asp?bbs_id=4336).
-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3557>.
- <http://www.missionews.co.kr/news/25210>.
- <https://www.cjob.co.kr/mission/1300>.
- <https://www.cjob.co.kr/mission/23>.
- <https://www.cjob.co.kr/mission/1312>.
- <https://www.cjob.co.kr/mission/1343>.

## VITA

## PERSONAL DATA

Full Name: Gideok Park

Place and Date of Birth: Busan, South Korea, June 23, 1971

Parent's Names: Manyoung Park and Myeongseon Kim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Busan High School</b> 23, Choryang-ro 40 beon-gil, Dong-gu, Busan, Korea	Diploma	Feb 13, 1990
Collegiate: <b>Dong-A University</b> 37, Nakdong-daro 550 beon-gil, Saha-gu, Busan. Korea	B.A	Feb 25, 1997
Graduate: <b>Korea Theological Seminary</b> 535-31, Chungjeol-ro, Dongnam-gu, Cheonan-si, Chungam, Korea	M.div	Feb 17, 2004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Gideok Park

Name typed

March 12, 2020

Date